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1월 13일 화요일(주간) 제395호

木材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두 초선의원의 다짐

10월31일 실시된 조계종 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격 · 보경 두 스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두 스님 모두 초선이라는 점과, 81명의 당선자 가운데 최연소자라는 점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회에 임하는 소신이 뚜렷하다는 점이 관심을 끌게 한다.

초격스님은 25교구 봉선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스님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종회가 입법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회가 문중과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21교구 송광사에서 출마해 당선된 보경스님은 초선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소신은 뚜렷하다. 종회의 종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원 연수국장의 경험을 살려 승가교육 발전에도 알익을 담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이들 두 스님은 현재 종회 내의 각 계파로부터 일원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받고 있지만 계속 거절하고 있다. 자칫 뜻도 펴보지 못하고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걱정도 하나 둘 쌓여가고 있다. 의지와 소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스님은 지금의 초발심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스님의 이런 초발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배 종회의원들과 불자들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두스님의 종회에 임하는 초발심이 다른 스님들에게도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129 일양: 055)353-1196

"수행체계 바로 세우자" 여론 높아

"신앙형태 · 방법 혼재… 각 수행법 상호보완 필요"

선우논강 · 불교포럼서 잇따라 문제 제기

조계종이 금명간 '수행체계 연구실무위원회' 발족과 함께 수행교학 체계 확립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출 · 재가의 수행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에서 고우스님(각화사 선원장)은 "한국불교 수행체계는 기초가 안돼 있다"며 현재의 수행행태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면

또 선우논강에 참석한 상당수 스님들도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초기불교 수행법과 대승불교 수행법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는 풍토도 문제가 있고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을 지나치게 이단시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산스님(천사람수련회 교육원장)도 '서양불교의 성장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13일 열리는 '불교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이제는 현대인에게 알맞는 눈높이 수행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현 수행법의 개선을 주장했다.

미산스님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 초기단계의 수행체계 빈약, 출재가자의 신행체계 통일성과 차별성 부재, 여러 가지 신앙형태(기도, 주력, 사경 등)와 수행법의 혼재, 각 수행법의 가치와 상호보완성의 이해 부족 등 한국불교 수행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원 실상사 회림원(원감 재연)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동안거에서 '경전 읽기 결제'를 통해 수행체계의 기본을 세우겠다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전 읽기 결제'는 동안거 중 10주 동안 매주 한차례씩 〈금강경〉에 대한 강설과 대중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회림원이 '경전 읽기 결제'를 하게 된 것은 소의경전에 대한 이해 없이 바르고 체계적인 수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재연스님은 "경전은 수행지침서이며, 경전을 통해 수행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혼재하고 있는 여러 수행법에 대한 검증은 물론 경전을 통한 수행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mhan@buddhapia.com

"교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선원수좌회 · 계단위원회 · 강원교직자협 성명

전국선원수좌회, 전국강원교직자협의회, 조계종계단위원회가 6일 현 조계종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종단은 승가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행과 교화에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무소유의 율장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승가구성원 안에 흐르고 있는 물질적, 세속적, 권력지향적인 흐름은 금권선거의 폐해, 권력편중 현상,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기득권층의 고착화, 삼보정재의 유실 및 사유화로 교단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과 총무원장에 대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지난 19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한 이래 총무원은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최근에 취한 총무원장의 비개혁적이고, 무원칙적인 일련의 인사정책은 그 도를 넘고 있어 종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13대 종회에서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팔만대장경 경판 449장 손상

해인사 채광 · 통풍 문제있는 신 판가 철거 추진

72년 건립된 신 판가(남면판가)가 햇빛에 노출되고, 경판전의 통풍 흐름이 바뀌면서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경판 449장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 해인사는 8일 "최근 문화재청과 신 판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문가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인사와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 협의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올해와 내년에 보수작업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인사 한 관계자는 "신판가에 보관된 경판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해인사는 신판가 철거 및 장경각 내부 보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 문화재청 조사결과 장경각 법보전과 수다라전내 대장경판 보관대인 신판가에 보관중인 경판 5천여장 가운데 나비금을현상(268장), 비틀림현상(151장), 길이굽음현상(30장)으로 총 449장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해인사와 문화재청은 동사간고와 서사간고 경판과 법보전 및 수다라전의 경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72년 장경각 부근에 신 판가를 건립했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립 금강대 7일 준공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는 7일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대운동장에서 개교 및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천태종 도용종정, 윤덕 총무원장, 지하 전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중국 천태산 국청사 키밍(何明) 방장, 일본 천태종 니시오카 료오코오 종무총장,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장, 윤청하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2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논산=고영배 기자

전통문화진흥국 · 문화재보존과학연 신설 등

불교계, 대선후보에 27항 요청

조계종이 문화부내 전통문화진흥국 신설,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불교계 대선후보 요청사항을 8일 발표했다.

요청사항은 문화분야 14개항, 사회 환경 복지 분야 9개항, 종교간 형평성 관련 분야 4개 항 등 모두 27개 항이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은 법주사 동화사 직지사 등 11개 본사 주지 및 총무원 6개 부장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쌍둥이빌딩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나라당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불교계 대선후보 요청사항을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후보도 문화재청장 차관급 승격, 전통사찰 복원, 종교간 형평성 유지, 불교계 정보화 지원 등 11개 불교계 공약 사항을 정대스님에게 전달하고, 불교계와 협의해 한나라당 공약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날 노무현, 정몽준 후보측에도 불교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13대 중앙종회 9일 개원

법전 종정 법어 내려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23일까지 15일간 155회 정기종회 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종회 개원에 즈음해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시비에 얽매이면 본심을 잃는다.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한다면 중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 다툼도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어를 발표했다. (법어 전문 3면)

이번 종회에서는 의장단 및 7개 분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원을 구성한 후 종정감사 및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법규위원, 호계위원, 직능대표선출위원 등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각 종정기관의 위원들도 이번 종회에서 선출된다.

한명우 기자

성수 노스님 폐교에 선원 개원 11면

신행수기 보내주세요 12월 17일 마감

불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8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마감: 2002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사 설

'선우논강 재개'를 환영

2일 남원 실상사에서 재개된 선우논강이 교계 안팎의 시선을 끌었다. 60여명의 승려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비판은 건전한 불교문화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다. 건전한 비판문화가 정립될 때 그 집단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 칭찬과 비판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선우논강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불교 현실에서 이들의 비판은 오랜 가뭄 뒤에 내린 가랑비이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가뭄이 해갈되지는 안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은 그들이 추구하는 선적 깨달음의 세계가 지나치게 신비화 내지 관념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부처는 있으되 중생은 없으며, 불법은 있으되 그 가르침의 실천자는 없다는 것이다.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문화와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다. "조계종은 '사기 집단'이다"라거나 "화두 들고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선인가?"하는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의 사자후는 뼈저린 자기반성에서 터져 나왔기에 새벽 종성처럼 다가오고 있다.

애정이 없으면 비판도 나올수 없다. 우리는 선우논강과 같은 모임이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길 고대한다.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새 살을 돋우기 위한 아픔으로 드러나야 한다. 종단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인간문제 나아가 일체의 생명체에 관한 존엄성을 깊숙하게 탐색하여 진정한 승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13대 중앙종회에 바란다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9일 원구성과 함께 제155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하며 4년간의 장도에 들어섰다.

출발선을 막 지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를 향해 우리는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종회 내에 구성된 계파의 문제다. 이미 12대에서 고착된 계파는 4개. 13대에서도 그 이름을 바꾸거나 구성원을 달리해 이들 계파는 여전히 구성되었고 거기에 한 두 개의 계파가 더 생겼다는 소식이다.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종회에 5개 이상의 계파가 형성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나은 종책 개발과 보다 발전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들어진 계파라면 그 취지에 충실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다음은 종단 바깥으로도 시선을 던져 달라는 것이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대의기구인 만큼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세속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화두도 챙겨 들고 폭넓은 활동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 제12대 중앙종회는 종단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제13대는 그 안정의 힘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하게 도약하는 종단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4년 후, 종정 법전스님이 개원법어를 통해 던진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오기는 왔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이 베풀어 준 은혜를 갚겠습니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기본교육 실시 아직은 30% 불과

조계종 조사 사찰 1,439곳 중 473곳만 시행

지역별·연합교육·편차해소 방안 필요

포교원 "명확한 종책세워 미비점 보완"

신도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조계종이 의무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이 조사사찰의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체계적인 신도교육종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로 실시한 신도기본교육 실시현황 조사 결과, 응답한 1,439개 사찰 중 473곳(32.9%)만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응답하지 않은 1,250개 사찰중 통화가 되지 않은 곳(613곳), 결번(424곳), 조사 불응(117곳) 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실시율은 30%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966개 사찰 중 향후 교육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찰은 68곳. 369개 사찰은 계획이 없다. 529곳은 응답을 회피했다. 이는 "점차 기본교육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포교원 방침과 대치되는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137, 영남 178개 사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호남, 제주, 강원지역은 각각 58, 12, 15곳에서만 실시해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이 기본교육 교재로 지정한 〈불교입문〉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209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4개 사찰은 교재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중교재와 임의교재를 사용하는 사찰도 각각 83곳, 137곳에 달했다.

이번 결과는 당초 포교원이 신도기본교육 시행 1주년을 맞아 설정한 목표였던 200개 사찰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조계종 전체 사찰이 26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 형태에 있어서도 이번 조사는 전화로 이뤄져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따라서 신도기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찰들을 지역별로 연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교원 심의로 사찰 자체교재의 적합 여부를 검증해 다양한 교재가 활동되도록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균형 있는 신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11월말까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기본교육의 명확한 종책을 설정하고, 미비점 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6회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실시해 모두 164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총무부장 선용·기획실장 도현스님

조계종, 5개부처 부·국장 인사



◇총무부장 선용



◇기획실장 도현



◇재무부장 범여



◇문화부장 설응



◇호법부장 진욱



◇포교부장 일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6일 총무원 총무부장에 선용스님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부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선용스님은 도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1대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초심 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前 교육부장 도현스님이, 재무부장에는 사서실장 범여스님이 전보 발령됐다. 또 문화부장에는 낙산사 주지 설응스님이, 호법부장에는 법계사 주지 진욱스님이 발탁됐다.

사서실장에는 전 사서차장인 경우스님이 직무대리로, 문화국장에는 성효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에는 심우스님이 각각 임명됐으며, 호법국장에는 자공스님이 전보 발령됐다.

또 포교부장에는 일관스님(불암사 주지), 포교연구실장에는 진명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

공소시효 조항은 삭제

앞으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도난문화재를 불법 취득하여 은닉·보관한 경우 훔친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81·82조 4항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은닉·보관 행위가 발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토록 하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도난문화재를 은닉 보관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권형진 기자

태고종 26회 합동득도수계산림 회향

사미 124, 사미니 40명 배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6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회향하고, 사미 124명 사미니 40명 등 모두 164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원로의장 일우스님을 교수사로, 사정원장 법장스님을 갈마사로,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전계사로 실시된 수계식은 10월 7일 입재, 매일 1천배 정진, 1보1배, 기초습의, 예경의식 등 4주간의 엄격한 교육과 득도고시를 통과한 행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운산 총무원장은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청정히 하여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의 책임을 다하는 수행자로 정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순천 선암사=박봉영 기자

진각종 대표단 북한방문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7일 진산 종의회 의장, 혜인 총무부장, 무외 문화사회부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선상신 BBS 정치부장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 19~23일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측과 만나 [illegible] 사업을 협의하고, 광법사 또는 보현사에서 통일기원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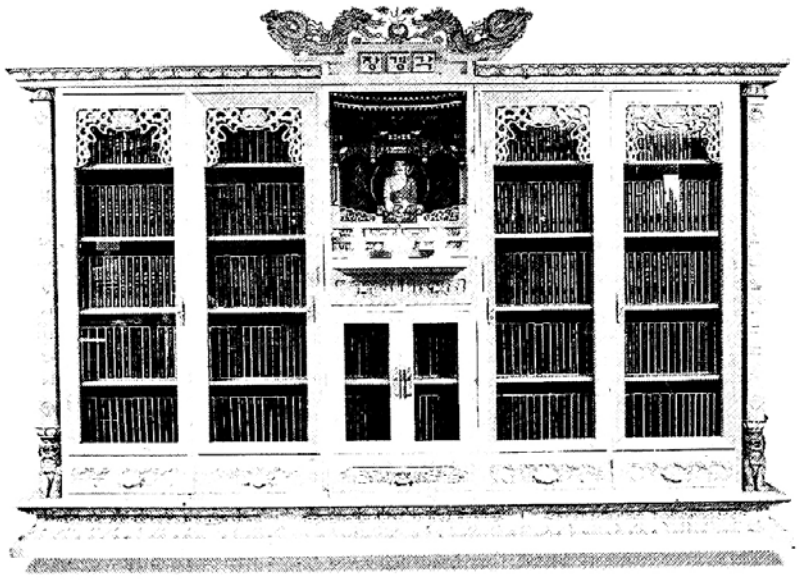
신도교육, 제대로 합시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부담없는 구성 한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문화정보화 지원"

조계종, 대선후보들에 무엇을 요구했나



◇8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조계종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이 불교계 요청사항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이 8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불교계 요청사항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 측에 요구해 온 사항이거나 불교계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문화 관련 사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불교문화 중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반영했다. 각 분야별 주요 항목과 내용을 요약했다.

문화 및 문화유산 분야

▲문화예산 3% 확보=문화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산 3%는 시급한 과제다.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전통문화 및 문화재구역'을 신설해 건축행위 제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영향평가' 신설. '전통사찰보존법' 정비 등.

▲불교전통문화 정보화 지원=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의 문화관광자원화, 산중 사찰의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

▲국가 소유·점유 불교문화재 및 폐사지의 불교계 반환 또는 위탁=불교문화재 신앙공간에 위치해야 보존 용이 및 가치 확립.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지원=사찰 소장 문화재의 유지·보존을 위해 절대 필요.

▲문화부내 전통문화진흥국 신설=현대문화중심의 문화정책 지양,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전통사찰보수지원비 증액과 각종 부담금 폐지=862개 전통사찰 중 14%에도 못 미치는 지원 대상 사찰 확충.

사회·환경·복지 분야

▲국립공원 보전 위한 대책 강구=자연공원 내 국가 자연·문화유산 관리기구를 통합한 '국가공원청' 설립. 자연공원법 폐지하고 국가공원법으로 대체 입법.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북한 불교문화재 복원과 남북 공동학술조사에 정책적 지원.

▲민간사회복지차원의 불교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종단 차원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양성 정규 교육기관 설립 지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및 협조=종교적인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간 형평성 관련 분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인사의 종교간 형평성 고려=국가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종교적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

▲불교방송의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종교방송의 공익성 고려해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필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제13대 중앙종회 개원 법어

"들어오긴 했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의 은혜 갚겠습니까"

境非心外有(경비심외유)하니 休見主中賓(휴멱주중빈)하라
學道是爲妄(학도환위망)하니 敬友己害賢(경현이해진)이라
경계는 마음 밖에 있지 않으니
주인 속에서 나그네를 찾지 말라.
도를 배우려고 하면 도리어 거짓이 되고
현묘함을 찾으려고 하면 현진함을 해치고 말 것이다.

拔群無比(발군무비)한 지혜와 衆靜大士(일군대사)의 기틀로 제13대 중앙종회 의원에 당선되어 오늘 院(원) 구성함을 사부대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十方大衆(시방대중)이 一家(일가)를 이루고 賢愚是非(현우시비)가 一乘(일승)으로 돌아갑니다. 實際理智(실제이지)에는 한 티끌도 용납되지 않지만 萬行門中(만행문중)에는 一法(일법)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宗門(종문)의 門(문)이 사방으로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 왔습니까? 또 들어오기는 했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이 베풀어준 은혜를 갚겠습니까?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삿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시비에 얽매이면 자기본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기허물을 살피지 않고 남을 헤치는 것은 불조를 속이는 일입니다. 누구나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한다면 前塵(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치와 일이 안전하면 고쳐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저절로 통하니 다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宗門(종문)의 근본을 꿰뚫어 안다면 바른 눈이 열려 佛慧命(불혜명)을 잇고 역대조사의 機用(기용)으로 종풍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開口動舌(개구동설)에 無利於人(무리어인)이어든 或之莫言(계지막언)하라
擧心動念(거심동념)에 無利於人(무리어인)이어든 或之莫起(계지막기)하라

입을 열어 말을 함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마음 내어 생각을 일으킴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거든 경계하여 생각조차 내지 말라.

종단명 상표등록 늘고있다

조계종 이어 조동·법화·삼론종 등 특허출원

천태·관음·일붕선교종은 이미 등록마쳐

종단 명칭의 상표등록 추진이 늘고 있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이 종단 명칭의 업무표장 등록상표 특허출원을 낸 데 이어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도 지난달 중순에 종단 명칭 상표등록을 위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협조공문을 접수시키는 등 종단 명칭의 상표등록 바람이 다른 종단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운덕),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 등 3개 종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0월에 각각 종단 명칭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혜륜), 한국불교법화종(총무원장 은산),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승), 대한불교남론종(총무원장 마정),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 한국조동종총본산(총무원장 학봉) 등 6개 종단들도 올해 말까지 종단 명칭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들이 이렇게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종단 명칭이 갖는 인지도가 대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조동종 및 삼론종 2개 등 유사 종단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신도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존 종단들은 사용 중인 종단 명칭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보장받고, 신생종단들로부터 유사 종단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종단 명칭을 똑같게 쓰고 있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단 간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 종단 총무원장 스님은 "근래 들어 신흥종단의 난립과 기존 종단의 분종 등으로 관련 종단들이 종단 명칭을 놓고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두 달 전부터 상표등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종단은 종단 명칭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종단의 분종과정에서 남았던 해묵은 감정까지 얽혀있어, 앞으로 종단 명칭 상표등록 문제로 종단 간의 분쟁과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될만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시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자녀의 종교

1.불자님의 자녀가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인정해 준다 ②설득하여 불자가 되게 한다. ③일단 인정하고 차츰 대화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

2.현재 불자님은 자녀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11월 1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6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공익사업 전개"

불교정보화협 초대회장 현성스님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로 설립된 불교정보화협의회의 초대 회장 현성스님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가 한 치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화 분야에 있어 불교계의 위치는 아직 미흡한 수준. 그러나 현성스님은 "우리 민족의 많은 문화유산이 불교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보존 발전 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국가적인 대사라 할 정도로 할 일이 많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불교를 원형으로 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작업들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면 불교야말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 창출의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시점이지만 큰 욕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천천히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단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스님의 복안이다.

"협의회에 참여하길 원하는 종단과 단체, 업체와 개인들이 많아서 참여의 기회도 최대한 넓히겠다"는 스님은 "자문위원단, 연구위원단 등 포괄적인 조직의 가동을 통해 불교계 정보화 불사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싶은 사업은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캠페인 활동과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정신적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공익성 높은 사업들을 전개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만간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현성스님은 "초대 회장으로서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 기틀을 반드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불기 2546년 동안거 금강경 결제

조계종의 오늘과 미래, 소의 경전 금강경으로 다시 본다

막막한 사막을 건너가려는 사람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길에 나선 이에게 경전은 곧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허둥대면서 「불립문자」, 「언어도단」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고 부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휘젓는 무딘 칼은 정작 갈고 닦아야 할 지혜의 칼을 뭉개고 맙니다.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에서는 매 안거마다 수행과 하나가 되는 「경전 읽기 결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동안거 동안에는 근본 불교 사상을 철저히 계승하고 중국 선종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각묵스님이 논주가 되어 스스로 번역하고 해설한 《금강경역해》를 주 교재로 쓰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재방의 선지식과 강사, 화림원 대중이 참여하여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과 다양한 번역, 주석서의 교학적 이해와 선종의 입장을 아울러 살피는 열띤 논강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은 이번 「금강경 결제」를 화림원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불교신문 지면에 연재됩니다. 이 전대 미문의 활짝 열린 논강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출가 대중은 물론 재가 불자들의 열렬한 성원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기 간 : 동안거 중 10주 (올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2) 일 시 :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 장 소 :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
4) 교 재 : 각묵스님의 《금강경역해》 [불광출판부 발행] 개별 구입
5) 참가대상 : 사부대중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6) 동 참 금 : 10만원
7) 입 금 : 우체국 401711-01-000452 (예금주 : 화림원)
8) 접수 및 연락처 :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
화림원 063)636-3990, 636-3994
실상사 홈페이지 화림원 게시판 :
http://www.silsang.net/ez2000/ezboard.exe?cb=hwalim

불기 2546년 11월

주 관 :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 협 찬 : 불교신문

화림원에서 함께 정진할 도반들을 모십니다

실상사 뒤쪽으로 약 1km쯤에 자리한 아담한 황토집의 화림원은 학력 졸업 이상, 또는 승납 5년 이상, 세납 50세 이하의 비구로서 화림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부응하는 조계종 승려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림원은 승납과 세납, 전공분야 등 개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떠나 모두가 절차탁마하는 도반으로서 三學을 균등하게 수행하고, 다양한 수행의 조화와 전법 등이 함께 하는 수행도량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자고 설립된 곳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수행을 위해 안거 동안에는 참선을 중심으로 경전 연구를 병행하고, 해제 기간에는 경전연구를 중심으로 참선을 병행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1년중 1안거 이상의 기간을 원내에 안거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모난 데는 갈아내고, 모자라는 곳을 메워줄 도반들을 모십니다.

■연락처 : 전화 063)636-3990, 636-3994
■실상사 홈페이지 화림원 게시판 :
http://www.silsang.net/ez2000/ezboard.exe?db=hwalim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지 리 산 실 상 사
화 림 원 원 감 재 연

"비명에 간 재훈이가 드립니다"

40대 부부 소쩍새마을에 돼지저금통 보시

쏟아지는 동전과 함께 한통의 편지가

"불법 실천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길"

최근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부부가 찾아왔다. 스님을 뵙고 싶다는 요청에 소쩍새마을 총무부장 묘전스님이 두 사람을 맞았다. 부부는 묘전스님을 보자마자 빨간 돼지저금통 하나를 꺼내놓는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을 건넸다.

"우리 재훈이가 드리는 겁니다."

이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부부는 훌쩍 자리를 떠났다.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고, 왜 저금통을 내놓았을까. 묘전스님과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돼지저금통을 깨자 쏟아지는 동전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나왔다. 사연은 '승가원 원장님께 올립니다'로 시작됐다.

"둘째 아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는 나누었지만 가난 때문에 몇 푼의 돈 조차 나누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던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헌혈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던 아이였는데…. 아빠 담배 값 절약하고 제 형도 버스 값 아껴 모았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가난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전북 고창군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살았던 네 식구의 평화는 2년 전 둘째 아들 재훈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깨지고 말았다.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던 재훈이의 빈 자리는 가난보다도 더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다.

돌아가신 부모는 땅에 묻고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마당을 쓸면서도, 부엌일을 하면서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곤 했던 어머니. 기왕 간 길, 저 세상 구경 다하고 다시 오면 소쩍새마을에 와서 돼지저금통 보고 '나도 나누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남은 세 식구는 동전 하나하나에 시리도록 아픈 그리움과 재훈이의 소망을 담았다.

'이 돼지는 좋은 일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서재훈 이름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돼지저금통에 삐뚤삐뚤 적힌 글귀가 소쩍새마을 식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어머니가 쓴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졌다.

"부처님 말씀 실천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비옵니다. 꼭 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 영섭 모 임금례 형 서정일."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그림=김영민

동국대 총장후보 유세전

불교병원 조속개원등 공약

동국대 제15대 총장 후보 추천선거 유세가 6일 중강당에서 300여명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정병조 교수(윤리문화학과)는 총장평가제 실시, 발전기금 700억원 모금, 경주캠퍼스 자율권 확보, 불교문화센터 건립, 일산병원 특화경영을 약속했다.

홍치유 교수(물리학과)는 투명한 인사와 행정, 불교병원 개원, 일산캠퍼스 생활관 강의동 신축, 교직원 복지 강화, 신입생 80% 학과별 모집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표방했다.

이어 홍기삼 교수(국문학과)는 특성화 전략 수립, 학부제 재검토, 교원평가제도 개선, 불교병원 개원, 경주캠퍼스 교육인프라 구축, 재정확충 등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교수(경영학과)는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우수교원 확보, 이공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책임시간 조정, 불교종합병원의 합리적 개원, 경주캠퍼스 대학원 증설을 내걸었다.

한편 선거는 20일 10~19시 중강당에서 실시된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화협의회 5일 창립

정보화 저변확대위한 각종사업 전개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가 5일 서울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 조계종 기획실장 종훈 스님 등 교계 지도자 스님들과 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의원, 문화관광부 윤형하 종무실장,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불교TV 이수덕 사장,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창립대법회에서 회장 현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정보화 시대에 불교가 적절히 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창립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각종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성스님 인터뷰 3면>

임연태기자



◇불교정보화협의회는 5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미타사 수행환경 보상협의 결렬

서울 보문동 미타사(주지 자원) 수행환경 침해에 따른 보상 협의가 결렬됐다. 5일 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정지원)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타사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 · 출입 원천 통제 △재개발구역 남 · 서면의 구획담장 미타사측 의견에 따라 시공 △103동 벽면 문양 도색 △거주승의 사생활 보호 위해 104동, 105동 등에 시야 제한 장치 강구 △사찰측이 지정한 소유토지에 실평수 50평, 불교 전통양식에 따른 목조와즙 대체 법당 건립 등을 재개발조합측에 요구했다.

자원스님, 정지원 조합장, 황진하 현대산업개발 상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측은 주출입구 차량 진 · 출입 원천 통제 외에는 4개 항목에 난색을 표명, 결렬됐다. 다음 협의는 14일 미타사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자비의말씀 게시판

충북 공공시설 설치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설치된 풍경소리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충북지역 공공시설에도 설치됐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청주시내 주요 공공장소에 게시판을 설치, 퇴직한 불자들의 모임인 정암회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암회가 주관해 1차로 청주시청 및 구청 민원실, 충북도청 민원 · 휴게실, 충북대 학생회관, 청주우체국,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등 21개 공공장소에 설치를 이미 마친 상태다. 풍경소리는 향후 충북도내 공공장소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봉은문화센터 준공식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7일 조실 석주스님, 원로의원 천운스님, 전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고은 시인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8년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공된 봉은문화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건축면적 932평, 연면적 5,666평의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시설로 건립됐다. 봉은문화센터는 시민선방, 각종 문화교실, 연회장,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김원우 기자

수경 · 지율 스님, '람사협약' 총회 기간중(17~25일) 스페인서

천성산 화엄늪 살리기 3보1배

새만금간척 · 경부고속철 부당성 항의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과 지율 스님(양산 내원사)이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3보 1배'를 한다.

수경 · 지율 스님은 17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제8차 람사협약(습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문규현 신부 등과 함께 3보1배, 대형사진 전시회, 플래카드 게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새만금 갯벌과 천성산 화엄늪 보존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NGO 활동가 15명과 함께 참석하는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두 스님은, 총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세계 NGO 습지회의에 참석해 새만금 갯벌과 금정산 천성산의 위기를 토론회 등을 통해 세계에 공개한다.

또 정부 간 회의인 람사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회의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간척 사업과 고속철 건설로 인한 한국의 환경파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켜 공감을 얻은 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NGO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갯벌과 화엄늪 보존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제안, 당사국총회에서의 채택을 추진한다.

남동우 기자

경주 골굴사 선무도대학

일반 · 청소년 겨울수련회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개최된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이뤄지는 겨울 수련회는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등을 실시한다. 또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도 정화한다. (054)745-0246 남동우 기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 공석에

지난 94년 멸빈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7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개교식 내빈으로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경북지역의 한 토굴에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95년 불교방송이사회 이후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밝은 표정으로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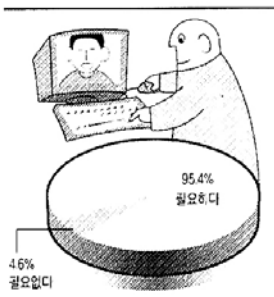
고침 본지 394호 6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명단에서 지만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를 보문사 전 주지로 바르잡습니다

불자의 생각

사이버 포교사

거의 모든 네티즌 불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명이 동참한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사이버 포교사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3명(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4명(4.6%)에 불과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49명(57.0%)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출, 22명(25.6%)이 종단이 시험 후 자격증 발급, 15명(17.4%)이 자율 활동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응답자 95%가 "필요하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꽃꽂이회 화정(和正)의 회원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합창단 불음(佛音)이 한마음으로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왜 하나구요? 그냥, 국악이 좋아서요" 어린이 사물놀이패 정봉(正峯)의 상쇠 지향희 양이 판소리 독창을 하고 있다.



◇상인 사물놀이패 '국봉(國峯)' 통돌 공연. 신명나게 경기 웃다리 장단을 선보이고 있다.

'덩더쿵' '얼쑤'… "법당이 문화공연장 됐어요"

화성사 7개 신도동아리 문화예술 축제의 현장

가을을 지나면서 신사마다 문화행사가 풍성히 열렸다. 음악회, 강연회, 전시회, 사생대회 등 사찰에서 열린 각종 문화행사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연장이요 전시관이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사찰의 새롭게 변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사찰중에서 신도들이 지발적으로 7개의 문화 동아리를 활발히 운영하면서 봄 가을로 발표회까지 열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결코 유명하다고 할 수 없는 작은 사찰 성남 화성사. 그러나 거기엔 새 시대의 문화코드가 가을 들녘에 핀 구절초처럼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3일 2000여 신도들의 동참속에 다채롭게 열린 화성사 '문화예술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동글게 둘러앉은 화성사 신도들이 다도회 '선향(禪香)'이 우려낸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초등생서 70대 할머니까지 매년 봄·가을 '끼' 발표회

풍물패 등장…곳곳 환호성 차담 나누니 분위기 더 다정

'신행·문화 포교' 일거양득…가족간 얘깃거리도 늘어

"도심사찰은 쌍방향의 문화복지도량 돼야"

성남 화성사 주지 시용스님



"그 재, 심 봉사, 맹인 잔치하러 황성 올라가는 길에 있는디 … 얼쑤!"

구성지게 풀어놓는 심청가 한 대목, 손끝으로 뿌려지는 발림, 제법이다. 고수의 추임새가 흥을 돋운다. 어린이 사물놀이패 상쇠 향희(13·남한산초6)의 판소리 공연, 웅장한 법당을 압도한다.

합창단 불음(佛音), 다도회 선향(禪香), 꽃꽂이회 화정(和正), 사물놀이패 국봉(國峯)과 정봉(正峯), 사진동아리 소명(昭明), 그리고 고전무용단 백조(白鳥). 언뜻 들으면 전문 문화예술 공연단의 이름만 같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부터 화성사 신도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문화 동아리들. 초등학생부터 일흔 살이 넘은 어르신까지, 전체 회원만 200여명이 넘는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번, 많게는 매일 모여 춤사위와 사물놀이, 노랫소리 등을 맞춰 보았다.

드디어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발군의 실력을 뽐내는 축제 날 3일. 다도 시연에는 엄마들이 나서고, 사물놀이 공연에 아들·딸들이, 아빠들은 사진 작품을 내놓았다. 온 가족이 공연을 하고 관람도 하는 문화예술 향연. '까르르' 웃어대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법당을 훈훈한 사랑방으로 바꿔놓는다.

사실 합창단이나 꽃꽂이회 등 문화모임을 하나만이라도 갖는 있는 사찰조차 드문 현실에서 이처럼 문화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는 화성사가 주목을 받게 된 것.

화성사의 문화 동아리 활동은 신도들의 신행 패턴과 사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정기법회나 기도에만 치중했던 신도들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절에 오는 재미가 쏠쏠하고 신행생활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 것은 물론, 더욱 풍성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또 사찰 일에 소극적이었던 거사회 회원들까지도 사진, 사물놀이 등에 동참하는 가 하면, 아이들 또한 절을 '놀이터'로 여길 정도로 절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한다.

특히 컴퓨터에만 열중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던 아이들이 사물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에 눈뜨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된 점도 화성사 신도들 사이에서는 화제로 떠오르곤 한다.

공연 2시간 전, 법써부터 이들 동아리의 야단법석은 시작됐다. 연신 쏟아내는 사물놀이패의 풍과리와 징, 장구, 북소리 장단, 군고구마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주전부리하는 풍물패 아이들부터 시연에 쓰일 다구를 꼼꼼히 챙기는 한복차림의 보살들, 호트러질새라 꽃꽂이 작품을 조심스레 나르는 거사들까지. 공연에 신이 나 있다.

"처음에는 '아빠다리(가부좌)' 하고 법회를 보려면 지루했었거든요. 그런데 장구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먼저 절에 가자고 떼를 써요. 컴퓨터 게임도 좋지만 사물놀이가 더 좋아요. 봄아치는 휘모리장단이 재밌어요."

장구를 배운 지 5개월 됐다는 병혼(11·상원초4)이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후 2시, 다도회 선향의 육법공양팀이 공연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6명의 보살들이 꽃,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정대하고 부처님 전으로 사뿐히 걸어나간다. 발걸음이 한없이 경건하다. 매주 금요일이면 다도회원 20여명은 차향을 음미하며 말과 몸가짐을 다잡았다. 지난달에는 천태다도보존연구회가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주최한 다도발표회에서 들차회 시연회에도 동참했다.

"들떠 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요. 마음 공부하는데 이만한 것이 있을까요. 남편과의 말싸움도 줄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생겨서 무엇보다도 기뻐요." 이경희(47) 보살이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잠시 후 환호성이 터진다. 사물놀이패 국봉과 정봉의 공연. 국봉은 성인, 정봉은 어린이 풍물패다. 주지인 시용 스님이 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동아리다. 지난해 5월 이곳 화성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래,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사물놀이패다.

"덩더쿵 덩더쿵 쿵덕!" 가락을 맞춰본 지 몇 달이 안 됐어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장단을 읽어낸다. 내 소리 네 소리 할 것 없이 한데 어울려진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다.

"주지 스님께서 놀더라도 절에 와서 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절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신행 생활도 하니 일거양득이예요. 아들하고 함께 사물놀이도 배워서 행복해요. 지훈아 너도 그렇지?" 모자가 모두 꽹과리를 친다는 신미옥(44) 보살과 아들 김지훈 군(9·대화초2)이 마주 보며 얘기한다. 김금례(46), 지명관(10) 모자도 함께 장구를 친다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탠다.

공연이 끝나자 선향의 다도 시연회가 이어진다. "또르륵 또드륵!" 차향이 법당을 휘감는다.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 차분함이 더해진다. 잔뜩 들떠 있던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어진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신도들이 차담을 나눈다. 집안일부터 사찰일까지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다도회 지도선생 우숙희(46) 보살은 "다도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도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다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린이와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함께 공연하고 춤추며 우리 문화를 배워가는 화성사. 신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초겨울 날씨를 훈훈하게 녹이고 있었다.

성남=김철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곱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일주문



'私記의 유래…' 특강
월운 동국역경원장은 5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22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사기(私記)의 유래와 현상'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위빠사나 선원장에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4일 서울 인사동에 개원한 위빠싸나선원 원장에 추대됐다. (02)739-8992



축구대회 · 가족 장기자랑
성타 대구불교방송 사장은 16일 '제4회 대구불교방송사장기 축구대회 및 가족 장기자랑'을 (주)새한 경산공장 부설 축구장에서 가진다.



봉선사 거사림회 창립
일면 봉선사 주지는 3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선사 거사림회 창립법회'를 열었다.



아도화상 동상 제막식
법등 구미 도리사 주지는 18일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을 증명법사로 '아도화상 동상 제막식 및 1585등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존자암 대웅전 준공법회
법정 제주 서귀포시 존자암 주지는 3일 대웅전, 국성재각, 요사채 법정당 준공 법회를 봉행했다.



53선지식 초청 특별 법회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 학장은 '53선지식 초청 특별법문'에 13일 원성스님, 19일 심진스님을 초청 4층 대법당에서 법회를 연다.



서호노인복지회관 개관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4일 오후 2시 서호노인복지회관 개관식 및 축하공연을 복지관 3층 강당에서개최한다.



순직경찰관 천도위령재
성인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은 18일 '제12주기 순직경찰관 38인 천도위령재'를 갖는다. (011)356-2028



우리은행 불자회서 강의
법현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우리은행 불자회 초청으로 14일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불교의식'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다운 종교' 주제 특강
현각 前 영주 현정사 주지는 13일 오후 4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 주제로 특강을 한다. 02)2260-3114



우즈벡 방문 불교교류 논의
이만호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1~8일 청주지역 신행단체 대표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3기 경영관리자과정 개최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제3기 경영관리자과정을 개최한다.



부산불교대 총동문회장에
김철윤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장은 2일 부산불교교육대학 4층 교육관에서 9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가사문학 학술회의
임기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장은 8일 '한국 가사 문학의 주석과 그 정리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제22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졸업식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12일 사무실 내 연꽃 교육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졸업식을 가졌다.



한일찬불가 합창 발표회
김재일 동산불교대학장은 21~24일 일본 북해도 양원사에서 동산아미타합창단을 이끌고 한일 찬불가 합창 발표회에 참석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12년째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는 류은주 양

"2주에 한번 수혈로 연명해요"



2주에 한번은 꼭 수혈을 받아야 하는 류은주 양(오른쪽).

"남들은 몇 발작만 걸으면 되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서 혼자 못 할 때도 있어요."

22살 한창 나이인 류은주(건국대 축산가공과 4년) 양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부처님의 고향 인도 여행을 하고 싶고 건강하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여대생 류 양. 그런 류 양에게는 남들이 가진 것 딱 하나가 없다. 그것은 바로 건강.

류 양은 재생불량성 빈혈증으로 12년 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이 병은 우리 몸 속에서 피의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골수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며 2주에 한번씩 수혈을 받아야 한다.

류 양이 재생불량성 빈혈증에 걸린 것을 안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온몸에 돋은 반점 때문에 동네 병원을 갔다가 무서운 병에 걸린 줄 알게 됐다.

류 양을 12년 동안 치료한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됐다. 어머니 강호분씨가 미싱일을 하며 버는 돈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류 양 모녀가 사는 6평짜리 지하 연립주택도 이미 700만원 넘는 은행융자를 받은 상태다.

류 양에게는 또 다른 아픈 기억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에는 같은 병을 앓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류 양은 서로 아픔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같은 반이 된지 한 달만에 갑작스럽게 악화돼 세상을 떴다. 그 충격에 지금도 우울해 한다.

희망보다 절망이 생기기 때문에 류 양은 아프다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잘 하지 않는다. 잠을 자다 줄줄 흐르는 코피에 잠을 깬 적도 많았지만 이제 그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아파도 류 양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다.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류 양의 집 형편에 12년 넘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 모아다 준 헌혈증 때문이다. 빨리 건강해져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뿐이다.

"어릴 때 엄마랑 동물원에 가곤 했어요. 그게 가장 멀리 여행을 가본 기억이죠." 류 양은 동물들을 좋아한다. 건강해지면 수의사가 돼서 아픈 동물들을 고쳐주고 싶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강유신 기자

"3번이상 같은 절 주지직 안됩니다"

인사고과제 실시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주지 인사고과제는 불교계의 고질적 병폐인 정실인사를 타파하고 투명한 사찰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화사가 먼저 그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6일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사진)은 지난달 교구종회에서 확정된 말사주지 인사규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성스님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찰들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고과제는 재산관리, 가람수호, 신도교육, 포교활동 등 8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환산해 등급화하고, 이를 주지임명 기준안으로 삼도록 돼 있다.

"3번 이상 같은 절의 주지를 못하도록 교구종법에 명문화한 것도 공명정대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저 역시 단임으로 물러나겠다고 취임시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성스님은 주지 인사고과제 외에 교육, 복지, 포교를 교구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1년 예산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사찰에 대해서는 10%~29%까지 차등적으로 목적사업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3억원 이상의 사찰은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도 임기 내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일부 사찰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화사와 불교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결행한 일인 만큼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19회 성파시조문학상 신동익·서태수씨 수상





제19회 성파시조문학상에 신동익(한국시조시연협회 울산지회 이사, 사진 왼쪽)씨와 서태수(혜광고 교사) 씨 등 2인이 선정되어 8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1991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한 신동익씨는 〈조강지처〉 〈신불산 바람소리〉 등의 저서를 냈다. 서태수씨는 〈시조문학〉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으며 낙동강 연작시집 〈물길흘러 아리랑〉외에 〈시조시의 사적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제1회 한일 요가교류대회 열려
제1회 한 · 일 요가 교류대회가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회장 정강주) 주최로 2~3일 열렸다. 한국과 일본의 요가 수행자와 학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류공동체 생명사랑 나눔'(부제-아유르베다와 요가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호국연무사 교육관·요사채 낙성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혜원) 교육관과 요사채의 낙성식 및 기념법회가 12일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이광희 육군훈련소장 등 2천여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도영 스님, 진각종 대전교구형장 휴명 대정사 등이 훈련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덕사 금동대불 백만불전 기공
충북 단양군 도락산 광덕사(주지 혜인)는 2일 금동대불 백만불전 기공식을 가졌다. 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신축현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장(수덕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스님을 비롯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에 이어 경로잔치와 전국불자 노래자랑도 펼쳐졌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및 편입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11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종단 명칭 공모중)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중국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석사과정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1월 30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일반기업체 불자회 활동 침체

정체성·자기발전 모색해야

구태의연…직장인의 변화 요구 수용 못해
관심 유발 소모임 · '법회 다양화' 절실

경남 마산에 위치한 한일합섬 법우회, 83년 8월 창립, 한때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한일법우회는 19년의 역사에도 불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회원이 5분의 1 수준인 40여명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현직 회원은 절반 수준인 20여명에 불과하다. 회사가 직원을 대폭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법우회원도 크게 줄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 불자회와 위아중공업(옛 기아기공) 불자회, 창원의 효성중공업 불자회는 2~3년 사이 활동을 중단했다. LG전자 창원공장 불자회도 IMF 이후 회원 감소와 참여율 저조로 활동을 멈췄다. 92년 창립한 한주(옛 울산석유화학지원) 불자회는 회원이 25% 가량 감소,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 한국카프로락탐 불심회도 정기법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활동력이 약화됐다.

최근 공무원불자회가 창립 '붐'을 이룰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인데 반해, 직장직능불교의 태동을 이끌었던 일반 기업체 불자회는 회원감소, 참여율 저조 등으로 정기법회조차 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우종합기계 ·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석유화학, INI스틸 불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체 불자회들은 명맥을 이어가기에 급급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체 불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바쁘고 고된 업무로 사찰을 찾지 못하는 기업체불자들이 직장단체를 통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공업 법우회 정경도 부회장은 "성심껏 직장단체를 이끌어주는 지도법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교당이 지역별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입회원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스님과,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절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일합섬 한일법우회 최종식 前회장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 불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불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진데 반해 직장단체들은 구태의연한 활동을 지속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전회장은 "흥미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소모임 운영, 법회 형식의 다양화 등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서 직장내 종교활동을 유익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동일지역, 직종간 연대, 연합활동과 회사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직장단체간 교류는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직업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 등은 회원들의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용규 신도과장은 "사찰과 종단에서는 직장불자들의 신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직장불자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기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금강회, 창립 20주년 법회
고령화 등 당면문제 토론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4일 오후 4시20분 회사내 금강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증악스님(대구 보리사) 초청법회를 연다. 금강회는 이날 법회에서 회원 감소와 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82년 10월 창립된 금강회는 정초기도, 윷놀이법회, 차량안전기원법회 등 법회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성도절 철야정진법회,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특별기도기간, 우란분절 칠일기도 등 신행과 기도를 병행해오고 있다. 금강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여조폐창 금강회가 활동을 중단, 경산조폐창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윤종우 회장은 "성년을 맞이한 만큼 금강회가 보다 성숙한 신행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불자회는요

대구광역시청 유마회

유마회는 대구광역시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불자들의 모임입니다. 20여명의 뜻있는 선배들이 모여 1988년 8월 결성한 이래 14년동안 꾸준한 포교 신행활동을 펼쳐온 결과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직장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불자로서, 또 유마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6~98년에는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모임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의 응집력은 커지는 것 같아요. 신심이 깊은 회원들이 유마회 재건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강재형 현 회장(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과 박영홍 총무(총무과) 등 새로 구성된 임원을 중심으로 유마회 중흥에 나섰습니다. 신규회원 모집을 위해 부서마다 홍보문을 게시하고, 청내 전산망에 홍보글을 수시로 업데이트 했죠. 또 인사기록카드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힌 직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만나 유마회를 알려나갔습니다. 대구시 산하 8개구 · 군청 불자회 창립도 이끌어냈습니다. 대단한 열성이었어요.

이처럼 발로 뛰면서 증흥에 나선 결과 유마회는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 매월 정기법회와 년 2차례의 성지순례, 대구근교 사찰에서의 야외법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요. 또 매년 수련회와 수계법회를 열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차담법회, 무차선법회 등을 마련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담시간은 회원들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기도 하죠.

유마회는 무엇보다 불제자로서



◇대구시청 유마회원들이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입정에 들었다.

500여명 회원, 대구지역 대표신행회 자부
이타행 중시 · 생활속 불법 실현 서원

행을 중요시합니다. 회원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속의 불교를 실천하자는 원을 세웠지요. 모범적인 가장, 따뜻한 어머니, 자애로운 상사, 적극적인 직원이 되기 위해 회원들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볕이 불우이웃 후원과 방문,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지요.

재정적인 문제와 큰스님을 모시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불자들에게 사찰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마회 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과 큰 스승님 법문 들을 수 있는 불자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베풀줄 아는 불자가 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언미(청소과)

전북 · 울산 · 강원 · 인천지역 등

지회창립 위한 현황조사

전국경찰불교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전북 울산 인천 강원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회 창립을 위한 경찰 불교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경찰불교회는 3일 대전역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전국 지부 총무단회의에서 중앙임원 및 서울 경기 · 전남 · 경북 · 경남지방청 불교회 총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정비, 경찰불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지방경찰청 불교회에서 관할 경찰서의 경찰불교회 설립 유무, 정기법회 유무,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열리는 전국임원수련회에서 조직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을 통한 불교기본교육 강화와 중부 · 영남 · 호남 권역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정자립을 위해 지부와 지회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결의했다.

박봉영 기자



서대문구청 불자회 재창립

서대문구청 불자회(회장 김승억)는 10월 30일 홍은동 백련사에서 재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서대문구사암연합회장 지원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서대문구청 불자들은 매월 한차례 정기법회와 봄 가을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인 불자들 합동법회 봉행

금융인 불자들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법련사 주지스님 법문 등으로 진행되는 법회에 이어 북한산 등반을 통해 금융인 불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서울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거래소 불자회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직원신도회 성지순례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16~17일 강릉 등명낙가사, 오대산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등명낙가사에서 새벽예불과 법회를,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참배한다. 국회직원신도회는 성지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과 친목을 다질 계획이다.

전력인불자련 대의원 수련회

전력인불자연합회는 17일 영광 불갑사에서 대의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수련대회에서는 연합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 16일 입재하는 대의원들을 위해 사찰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단체장 동정



불교산악인련 총재 취임식

김정길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총재는 10월 27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린 창립5주년 기념법회에서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감사원 불자회 회장에

장광명 감사원 제6국장은 10월 25일 열린 감사원불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초발심자경문 강좌 개최

박우락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초발심자경문 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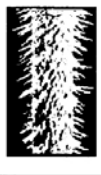


각연사·미애불 참배

강신철 경향신문 불자회장은 9일 괴산 각연사와 원풍리 마애2불병좌상을 찾아 순례법회를 열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체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깊은 영상 상태에 빠지거나 몽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목어

불교와 문명충돌



최근 러시아에서는 테러범들이 극장 관람객 수백명을 인질로 삼았으며, 이에 대응하는 당국이 치명적인 가스를 사용하므로써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테러, 인질극, 핵 등 섬뜩한 말이 신문지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고,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굳이 그 이유를 문명충돌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은 십자군전쟁 때의 종교대립과 같은 구도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탄의 분쟁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갈등이며, 미국과 이라크의 대립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다.

특히 러시아와 체첸의 갈등이 다시 크게 부각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또한 종교대립에 귀착시킬 수 있다. 요컨대 문명충돌은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이의 상호 불신으로 야기된 것이다. 이들이 떠받드는 신은 같은 절대유일신인데도 그 대리인 즉, 예언자의 해석 차이가 인류사적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도에게 예수는 최후의 예언자인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최후의 예언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유일한 예언자이다. 저마다 예언자의 절대유일성을 내세울 때 타(他)는 이단이자, 악마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절대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특히 원효대사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은 종교적 신념 차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일심(一心)에 근거를 두고 있다(十門和諍論). 종파 차이는 편견에 불과한 가설의 결과라는 것이다.

종교충돌의 양상은 수학의 입장에서는 공리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수학은 이미 "수학진리는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불교와 수학은 한결같이 진리(공리)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방편(가설)에 불과함을 알아차리고 있다. 너의 신과 나의 신 모두를 방편으로 여긴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수학은 공리를 설정하지 않은 카오스 이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현실세계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세계관에 입각하는 것이다.

인류문명사는 절대성을 부정함으로써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는데, 유독 국제역학은 낡은 세계관을 내세움으로써 온갖 비극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우바이를 천하다 말라'

성차별

여성부는 4일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녀의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차별금지기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거나 결혼시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남녀를 구별하는 여비서, 남기사 등 특정 성별을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최근 초등학교 남녀학생 성비가 100:108까지 악화된 것은 남녀 차별이 인간의 자유로운 탄생까지도 막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여자 아이를 임신한 겨우 낙태까지 한다는 것은 남녀 차별이 결국 생명 경시 풍조까지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법제도의 개혁이 모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남녀 차별이 해소될 것이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바이(저가 여신도)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은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여래의 처소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김씨, 이씨 등의 성은 없어지고 오직 사문 석가의 자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래중(衆)은 마치 큰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

불자 세상보기



성태용
건국대 교수
철학과

열명의 죄인을 놓치게 되더라도…

"광화문 네거리에 흉악범, 파렴치범들을 일렬로 세우고 대규모의 총살형을 집행하였다. 그 처참한 광경이 전국의 방송망을 타고 생중계되었다. 그러한 광경을 생생하게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범죄에 뒤따르는 잔혹한 처벌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대한민국 사회는 범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었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이 가상의 이야기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혹 사회의 범죄현상과 병리현상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낄 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농담으로라도 던져 보신 분은 없는지? 물론 이런 일은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논리적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하기 전에 약간 시각을 바꾸어 우리 목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어보자.

"강도를 붙잡으려던 시민이 강도로 오인되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상당수가 폭행 등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언론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든 가상의 이야기와 이 현실의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위의 문제에 대한 답과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은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얼핏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야기 같지만, 위에 두가지 사례는 우리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지녀오게 된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면 된다!"는 말이 대변하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일은 하면 안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서울지검의 한 수사관이 "솔직히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의 경우 손을 좀 대더라도 성과만 내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사회의 치안담당자들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그렇게 하여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그러한 잔혹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잔혹성과 인명을 경시하는 업의 씨앗을 심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심겨진 잔혹한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들을 빚어 낼 것인가? 그러기에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 개인, 또 우리 사회의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가 근원적으로 맑아질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이상적인 사회를 싹틔워 낼 우리들의 '마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선우도량은 1일 남원 실상사 화림원 강당에서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을 주제로 제6회 선우논강을 열었다. 고우스님(각화사 선원장)을 증명으로 초빙, 재연스님(실상사 화림원)이 발제한 이날 논강에는 중진스님과 선·강원의 스님 60여 명이 참석, 현 승가와 수행방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승가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풀어야할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제6회 선우논강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일시: 2546(2002)년 11월 1일(금) 장소: 지리산 실상사

◇1일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에서는 현 승가와 수행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승가의 역할을 일깨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박봉영 기자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선우논강 紙上중계

"누굴 계도하기는 커녕 오도 안했던가"

발제 재연스님(실상사 화림원 원감)



승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을 바르게 조망하는 안목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 추구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른 세계관과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며,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가? 누군가를 계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오도하거나, 최고, 최대, 제일주의의 선봉에 서서 경쟁과 분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에 눈감아 버린다. 자비는 경전에나 써있는 문자일 뿐이며, 보시는 오직 재가불자들이나 할 일이다. 비폭력을 말하면서 거칠기 짝이 없다. 하심을 말하면서 군림하고자 하며,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하면서도 하찮은 소임에 연연한다. 두타행을 말하면서 먹거리를 두고 투정한다. 무소유를 말하면서 더 갖고자 두리번거린다. 화쟁은 자기 문중에나 적용되는 고상한 말이다. 열린 공동체를 말하면서 귀는 굳게 닫혀있고, 파사현정을 말하면서 시비하지 말라고 훈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논하고, 어느 강백, 아무개 율사, 선사의 몇 대 법손이라며 제발 공경해달라고 애걸한다.

진리의 강은 언제부턴가 그 도도했던 흐름을 멈추고 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우리 승가는 고여있는 호수이기 보다는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이어야 한다. 묵은 물이 새 물일 수 있는 까닭은 철저한 자기 비판정신과 외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끊임없이 거듭나려는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직되지 않은 대승의 시각으로 고타마 붓다의 근본불교를 다시 보는 일이다.

집중위주의 명상 수행은 숱하게 많은 수행법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수행이란 특정한 견해의 틀을 벗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온갖 형태의 노력과, 사물의 실상에 부합하는 실천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깨달음을 향한 노력일 뿐 아니라,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고타마 붓다가 생각한 승가의 구현은 오직 연기법의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구원할 이 영원한 진리를 천착하고 실천하며, 시대에 어울리게 풀어내는 일이 우리 모든 불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다.

철저한 자기비판·외적변화 능동 수용해야
대승적 시각으로 붓다의 근본불교 다시 보자

토론 "부처님을 팔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 승가공동체는 무려 2,500여년간 유지되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법 때문에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승가에 떠도는 말 중에 '선지식은 멀리서 봐야 선지식이지, 가까이서 보면 선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후학들이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선지식이 없다는 말이다.

조계종은 '사기집단'이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니 세속의 눈으로 좋은 절을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려 한다. 승가가 법과 부처님을 팔아먹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인정하는 불제자가 없다. 고우스님(봉화 각화사)

○ 우리가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할 과제는 청정한 승가를 이루는 일이다. 이 시대의 한국승가는 개방성이 지나치다보니, 세속화되어 버렸다. 승가의 개방성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혜선스님(칠곡 송림사)

○ 한국승가는 상당부분 물질주의와 결탁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치 승려의 사유재산 축적이 허용되고 있는 듯한 사찰운영제도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방성의 명백한 곡해다. 세등스님(남양주 수동재)

○ 초기불교 수행법이든 대승불교 수행법이든 모든 수행법은 연기법이 두루 통한다. 초기불교 수행법과 대승불교 수행법 모두 지관(止觀)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지관이 없는 공부는 불교라 할 수 없다. 승가에서 노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무소유를 실천해 간다면 자급적인 사원경제의 운영은 물론 잉여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일종의 부채의식도 떨쳐버릴 수 있다. 홍선스님(김천 직지사)

현 상황 맞는 수행방편 개발 필요

○ 좌선도 수행의 한 방편이다. 하지만 좌선 자체가 깨달음일 수는 없다. 우리는 나를 바로 보는 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전을 1시간이라도 읽고 수행했으면 좋겠다. 보명스님(경주)

○ 현재 한국불교는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만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수행방편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간화선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불교의 현 상황과 맞는 수행방편들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설파스님(부산 범어사)

○…초기불교는 출가 위주의 수행과 교단을 구성함으로써 현재의 모순을 낳았다. 출·재가가 나뉘면서 이미 어긋난 것이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미 승가에도 깊이 박혀있음을 보여준다. 출·재가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광스님(문경 심원사)

○…우리는 승가가 위기라고 하면서 승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 승가가 위기라는 것은 승가 내부에서 먼저 인식해야 한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위치 : 경기가평	• 위치 : 서울
• 법당 : 12평	• 법당 : 15평	• 법당 : 45평
• 요사 : 27평	• 요사 : 40평	• 요사 : 50평
• 부지 : 250평	• 부지 : 2,000평	• 부지 : 129평
• 가액 : 6천	• 가액 : 13억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절을 맞기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실
비구니스님
연락바랍니다
▷ 조계종 스님

041)662-4696
017)260-6577

포교당안내

● 위치 : 일산 지하철역 100m
● 법당 150평, 요사 방 4개
● 도심포교당으로
● 최고의 위치, 최고의 시설
● 가액: 보증금 전세 1억8천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530-1925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초고요지
● 대지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1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독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랍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 위치 : 양산 물금	● 위치 : 부산 중심지
● 부지 : 약 만평(임야)	● 부지 : 300평	● 부지 : 420평
● 법당 : 20평	● 법당 : 18평	● 법당 : 18평
● 요사 : 30평	● 요사 : 54평	● 요사 : 25평
● 가액 : 3억 5천	● 가액 : 5억 1천	● 가액 : 15억(평당 350만)
※ 산중턱에 위치 차량진입가능	※ 뒤는 소나무로 쌓인 아산	※ 대단위아파트 입구에 있음
※ 광산신도시가 내려다 보임	※ 호포 지하철 종점에서 10분	※ 2차선 도로 집함 전망 양호
※ 양호한 자연석굴 있음	※ 신도시 예정지 부근	※ 복지시설 포교시설 부지 적지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 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안내

● 위치 : 충북옥천 옥광리
● 실평수 100평 사용평수 100평 힙 200평
● 법당 20평반 산신각 7평반 돌탱화
● 요사채 10평 1동, 11평 1동 탑,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비로자나불
● 인수품 약2천만원 동내 270호
● 교통편 정류장에서 5분거리
● 상수도 지하수 2가지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9405-8186
043)733-8186~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 대지 : 1500평, 법당 : 10평
● 산신각 : 3평, 요사채 1 - 10평
요사채 2 - 30평(지하포함),
현대식건물
● 가액 : 3억

011)376-3049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심한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소재
(지하철역100m)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억 5천(융자가능)
오래된 역사 도심 포교사찰임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법당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역사깊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절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정양면
서리 지리산 칠성봉 자락
● 평수 : 산 2000평(돌배재배1000평)
전 : 1000평(고사리재배지)
● 대지 : 200평 주택 35평(1동)
● 축사 50평(1동)
● 특징 : 농장으로 사용가
● 가액 : 모두 9500만원

011)9550-7088

사찰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 목조 새건축 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 2동 252-1
● 평수 : 40평, 법당, 방1, 부엌,
도시가스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75만원 주차장
시설비 : 2500만원
합 3500만원(절충가)

011)298-203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업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포교당) 안내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호계)	● 위 치 : 부산광역시 소재(아하사 입구)
● 건 평 : 40평(2층, 방, 주방)	● 건 평 : 40평(2층, 방, 주방)
● 보증금 : 500만원, 월 5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월45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특 징 : 호계중심가(시장)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특 징 : 최고급 자재로 시설한 아주 좋은 포교당입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포교당안내

● 위치 : 중랑구 상봉2동 동부시장 옆
● 평수 : 4층 약 80평, 옥상사용 전부
큰방7개 약사여래부처님 300불 봉안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02)437-5365
436-4720
018)293-7075

토굴안내

● 소백산 토굴 무료로 쓰실분
연락바랍니다
● 약사불, 인등 법당등, 불기
인연있는분 연락바랍니다

011)748-7604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르벧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6)557-0471
031)257-6622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평수 : 2층 건물에 2층 40평
● 구조 : 법당, 상담실, 공양간,
● 요사방 2개, 욕실 2개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시설비 약간

016)294-5264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찰 정보 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군	● 위치 충남 연기군
● 법당 15평	● 법당 20평
● 요사채 50평	● 요사채 50평
● 건평 300평	● 건평 종증땅(500평 사용)
● 시내에서 5분거리	● 금강 강변 위치(건물 등기 필)
● 가액 1억	● 가액 4800만원

※ 사찰, 암자, 포교당, 인수할 분 매매하실 분 성심이 도와 드립니다
※ 조용한 사찰에서 가족처럼 같이 보내실 분(기도, 요양, 휴양, 기타 등) 상담 하실 분 성심이 도와드립니다

서울 02)432-5529 충남 041)864-9143 핸드폰 011)99454-9062

사찰안내

● 위치 충무일원, 버스종점 도보로 3분
● 임야 5000평, 대지 700평
● 기타부지 400평 주차장 무한정
● 법당 20평 힘성각 10평 산신각 1동
● 요사체2동 50평
● 계곡청정 산세수려 70년된 사찰임
납골당 유효
● 가액 2억 3천만원

017-855-9551
055)637-1201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도봉구 방하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 P 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 시 설 삼존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 급 스님해외빌령

02)955-6411
011)289-0476

사찰(급)안내

● 위치 심천포 앞바다가 걸리는 환한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약 3000평 준농림지 중
● 법당 27평, 요사채 약 70평(스라브)
● 주지실 12평, 삼성각 16평(목조)
● 가액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람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대지 : 100평,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30만원
● 모두일체 인수인계

011)9233-190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합천 소재 금도변 ● 임지 대지 50평
● 전평 법당 27평 기와 단청함 ● 입지 양호
● 주지실 및 요사채 9평 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27평(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산신각 및 용왕당 천연자연수
● 차량내 차량진입 가능함에 사찰 및 관련 자원봉 그목으로 신비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요사 전동 증축가능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2억5천만원 감정가 1억 4천만원에 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남 부근
● 대지 : 600평
● 요사채 : 110평
● 대웅전 : 25평
● 가액 : 14억

● 위치 : 충남온양
● 대지 : 650평
● 요사채 : 70평
● 대웅전 : 40평
● 가액 : 2억 4천

● 위치 : 경북 예천 군청 옆
● 대지 : 100평
● 요사채 : 15평
● 대웅전 : 13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1억 1천

011)9820-0112, 041)554-0112 기와공장 박대리

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김해 회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홍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055)336-5691

포교당안내

● 위치 : 마산시 중심지역
5층건물중 3층 45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방2개, 응접실 주방, 화장실, 샤워장
● 가액 보증금 7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충주 토굴터 대지 106평 1590만원

055)241-5359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안동대부근
동악골
● 평수 : 13100평
● 가액 : 1억5천(가격절충)

018)711-5294
054)854-5294

사찰안내

● 위 치 서울 시내
● 대 지 170평
● 법 당 30평
● 요 사 9평
● 가 액 9억
● 위 치 수원근교
● 대 지 300평 도지
● 법 당 15평
● 요 사 2층 45평
● 가 액 3억 전세 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찰 (부지) 안내

● 진주 사천시 사천운동장에서
차로 5분거리
굴법당 포함 약600평 경치좋음
일금 3억 2천만원
● 진주 사천시 2000평 중 종교부지 500평
허가됨 일금 평당 4만원
● 마산시 진동 도로변 절뒤편은
암석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경남 고성 부지 500평 대웅전
(단청 및 목조 완성) 도로변, 아파트 옆
일금 1억 9천만원
● 경주시 감포읍 75평 건물 2동
스님기도처 및 쉬는 곳으로 안성마춤
일금 4천 만원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통합병원 앞
산자락에 무허가촌 약 120평, 9평 법당
콘테이너 1개 일금 4500만원

※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인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양도 · 양수 전문 011-836-2502 / 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옥산
● 대지 120평 법당, 요사채,
● 부처님 다섯분 모셔져 있음
● 내부수리 완료, 10년된 사찰,
뒤에 텃밭있음,
조용한 시골동네 입구
● 가액: 4300만원

019)9756-6961

사찰터안내

● 위치: 전남 화순 도곡온천지역
● 자연녹지 1830평
● 평당 75000원
● 광주대에서 10분거리 도로 접

0502)502-3535
011)611-857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아파트 15평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불기 등 부대시설 일체포함
● 보증금 : 1300만원

011)815-0354
053)567-3633

사찰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실평수 60평)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6억 5천만원

011)9073-156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부근
● 건물 45평(쑥뜸방 운영 중)
● 방 2개, 욕실완비, 교통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7)429-0501
042)221-450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합양군 안의면 부근
●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입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사찰 및 별장 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 옆 원묵계리
● 전: 557평(쾌적한 청정지역)
● 차 진입, 전기해결
사찰이나 별장으로 적합
● 가액: 평당 9만원

017)635-3111
061)432-3122

사찰터 최상급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
● 대지: 662평
(건축허가 바로 신축됨)
● 가액: 6억 6천만원

011)805-5934
011)502-4583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하일리
● 대지 : 80평, 전: 100평
● 건물 : 30평(현대식)
● 차량 30대분 주차장 확보,
원두막 두곳
● 특징 : 암벽 굴 법당
● 가액 : 8천만원

02)2636-6378
011)9944-6378

포교당안내

● 위치 : 북구 주례1동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조 3층 건물의 2층 35평
산불 및 지장보살 산신 용왕불 모심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1000만원 월 45만원

051)327-0477
016)594-6959

포교당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전통 한옥 5칸
● 접집, 고가집
● 대지 78평, 건평 65평
● 큰방 3개, 별채 방3개, 전체수리
● 가액 1억2천7백(융자가능)
●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또는 보살님 답사요망

063)287-848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 건물: 3층 건물중 2층(40평)
● 석가모니불, 소불108불,
지장, 신중탱화
● 가액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
시설비(권리금) 1천700만원

053)636-9306 보광사
011)9598-419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전철역 부근
● 건물: 4층 70평 및 옥상사용
● 시설 완벽 현재 포교당 운영중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7)847-0408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 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 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련 정각회 거사회 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임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등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영장산 극락도량 **성 보 사**
사찰이전 개산법회
200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7-149
031)753-3360
주지 영인스님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영장산 극락도량 성보사 개산 법회
2002년 11월 14일(음 10월10일)오전10시
성남 수정구 태평2동 3307-149
02)3673-3886 / 011-732-6933
주지 영인 합장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산전리 **무릉산 일도사**
2002년 11월 16일(음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자비정사) 02)475-8600 / 부산 051)518-8614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대웅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하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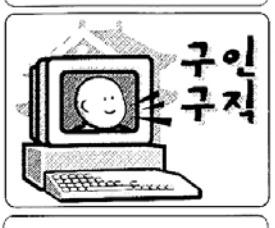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원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봉황산 미륵암
(영등철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시민선방 개원 및 동안거 입재
1)입재일 : 11월 19일(음 10/15), 해제일 2003년 2월 15일
2)대 상 : 일반 불자 및 스님, 행자, 절에 살면서 수행하실 분, 직장인도 가능
3)위 치 : 홍은동 백련산 자락(홍제역 3번 출구에서 10번 마을버스 종점)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 02)395-1222



영 가 천 도
영가천도 많이 필요없습니다 양명 정토사로 오세요
http://myhome.naver.com/jto3390
경기도 양평군 [illegible]
031)771-0227

참신한 불자님으로
기사님 모십니다
051)542-46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공양주 모십니다
▷ 전북 부안 변산반도
063)583-7281
063)583-7284

부전스님 구합니다
▷ 조계종 스님
055)552-51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산 영도 복천사
051)416-3121
011-9678-23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공양주 보살님 구합 (충주)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비구니스님 1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실 분 구합니다
043)855-7127
011-711-7127

공양주 하실분이나
조용한곳에서 기도하실 스님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459-328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경주 골굴사
054)744-1689
011-763-1690

깊은산에서
1000일 기도 하실
기도법사님 모십니다
011-696-8500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017)260-3310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고고학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정성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정릉
02)914-6187

북경관광 및 한방체험 방문단 모집
기간 6박 7일 금액 149만원 세일 모집하실분 환영 / 수당지급
게이트관광 02)465-2577



사람을 찾습니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 56세 키 :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017-653-1077/011-9723-1043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직 원 모 집
불교성지순례전문 (주)실크로드 여행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조 건: 여행을 좋아하며 신심있는 불자 남 0명, 여 0명
(주)실크로드 여행사 02)720-96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맞겨 주십시오.
011)9859-7425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명학역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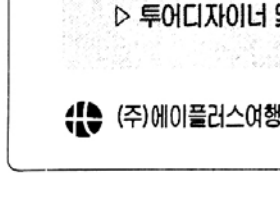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즉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절수행 강좌 / 청견스님
문의 02)722-1050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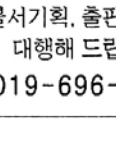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갤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 40석 연중개방
02)738-5586/5568

탈 종 공 고
속명 임상근 법명 도관 승적번호 [illegible]
사찰명 대한사 서원 경북구 미아6동 1267-17호
상기 승려는 귀종의 증풍과 종지가 맞지 않아 이이 수행할 수 없어 탈종자라 제증합니다
2002년 1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낙화 (민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납 골 함



납골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직수입된
최고의 명품 납골함입니다.
하이조 코리아(Heiso Korea)
http://www.heiso.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1 가톤프라자 5F
TEL 031)975-6109 / FAX 031)975-6104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오래된 해소 천식에
효과좋은 토종약초 있습니다
▷ 약사여래포교원
043)645-7604
011-748-7604
011-485-7604

지리산 약초 엑기스
금수암 두래원
지리산에 자생하는 토종약초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보혈, 보양, 보기에 효능이 높은 약초를
엄선하여 진액을 추출하였습니다.
드셔 보시면 그 효능을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박스 60봉/ 100ml(1개월분)를 기준으로 포장하였습니다.
특별소비자가격: 200,000원
한국사찰음식주식회사
주문전화 031)975-6100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함장
011)703-9130

한국목탄연구소
기존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325-0300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재차,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A+TOUR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교성지순례
▷ 국/내외 여행
▷ 할인항공권/여권/비자
▷ 카나다 유학/어학연수/영어캠프
▷ 투어디자이너 및 영업사원모집
(주)에이플러스여행사 02)735-8844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5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 보환
TEL: 031)575-2532
FAX: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연지플라워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青雲易學院
02)723-7449

성수노스님, 폐교 인수 '해동선원' 설립

근성있는 새끼사자 키울것

17일 원효대사상 점안과 함께 개원



◇성수 노스님.

"지금 절은 죽은 땅이야. 중은 고질병이 들었어. 새 땅에 새 인재를 길러야 해."

20세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미 정진의 힘을 얻어 효봉, 구산, 인곡, 청담,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수좌. 세수 80의 노구에도 매일 새벽 2시반에 일어나 예불 및 참선하는 일과를 한번도 거르지 않는 경남 합양의 황대선원 조실 성수(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이 최근 경남 산청 5천여평의 폐교에 전문 선도량을 열고 '근성있는 새끼 사자' 양성에 나섰다.

8년전 함양 황석산 아래 시민선원을 개원, 인재불사의 원력을 직접 실천해 온 성수 스님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매촌초등학교를 인수, 17일 오전 10시 원효대사상(像) 점안식을 갖고 '해동선원(海東禪源)'을 개원한다. 시골 폐교가 선원으로 탈바꿈 한 것은 금강선원(주지 혜거스님)이 2000년 7월 강원도 홍천에 시민선원 '선문장'을 연 데이어 두 번 째다.



◇폐교를 보수해 17일 개원하는 산청 해동선원은 성수 노스님의 인재양성원력으로 세워졌다.사진은 17일 원효대사상이 모셔질 해동선원 의 법당모습.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합쳐 마무리 보수 및 개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동선원은 본관건물의 중앙 왼편은 선방과 법당으르 꾸미고 나머지는 방사로 개조해 현재 10여명이 수행정진 중이다. 교실과 복도를 하나로 터 한결 넓어진 내부에는 푹신한 바닥재를 깔고 창문에는 커텐을 달았으며 벽도 칠을 하는 등 아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스 스님은 지난 1월경 인근의 다른 지역에 선원터를 찾아보려 방문했다가 이곳을 발견, 단번에 낙점하고 지난 3월부터 선원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학교 인수과정에서 성수 스님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람 만드는 공장을 하나 하겠다"고 하니, 교육청이나 인근주민들은 별다른 반대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순조로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인재가 많이 나는 형상의 풍수라 참선공부하는 선원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하는 성수 스님은 "앞으로 의지있고 용기있는 선객들을 많이 받아 전문선방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동선원의 운영은 황대선원처럼 시민선원 형식으로 승속의 구분없이 참선공부가 진행된다. 공간이 더 마련되는 대로 참가자들의 근기에 맞게 방사를 나눠 비슷한 근기를 가진 선객들이 서로를 스승삼아 정진해 나가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스님은 "시절인연이 닿는 근기있는 사람들이 이곳 선원을 찾아오기를 바란다"며 일부러 사람들을 모으려 개원식을 따로 갖지는 않을 계획이다.

스님은 또 "해동선원에 스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상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참선수련을 지도해 줄 스님 세 분 정도를 모셔서 본격적인 참선공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 스님이 주석하는 황대선원에는 해제철임에도 불구하고 91세의 반야행 보살을 비롯 평균연령 80세에 달하는 30여 재가자들이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이와 관련 "요즘은 늙은 할머니 보살들이 내 스승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예불을 보려고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두고 꾀를 부릴수는 없지" 라며 여럿이 모여 정진하는 대중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즘 선방이 많고 선객들이 많아도 정작 선이 무어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성수 스님은 성철 스님의 멱살을 잡고 가르침을 청한 일화를 들려 주며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산청=박원구기자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발전협의회, 대선후보자들에 건의서

경주를 국무총리 산하의 문화특별시로 지정하자는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다.

경주발전협의회(회장 황윤기)는 4일 성타(性陀) 불국사 회주스님, 백상승 경주시장, 이진구 시의회 의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18명 등이 연대서명한 '경주 문화특별시 승격 건의서'를 각 정당 16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경주발전협의회는 건의서에서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개 지구를 비롯 29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인 경주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도굴과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지정과 함께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고도보존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각국은 문화재 관리로 인해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조화롭게 해결해 오고 있는 추세"라며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지금 시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경주발전협의회는 밝혔다.

경주발전협의회 황윤기 회장은 "경주문화특별시 지정이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순회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구기자

부산불교자비원 19주년

미룡사서 기념행사 열어

11월 6일, 영도 미룡사 법당에서는 19년 동안 한결같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봉사를 펼쳐온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의 창립 19주년 기념행사가 조촐하게 열렸다.

1983년 창립된 부산불교자비원은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선), 육바라밀회(회장 오수복), 육화신행회(회장 최순희)의 조직을 토대로 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 치매센터 봉사, 수재민돕기, 인도불가촉천민돕기, 북한동포돕기, 조선족 연수 개최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 따뜻한 자비의 온기를 불어넣어왔다. 특히 부산불교자비원은 시민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정각스님의 앞서가는 복지이념과 실천 정신을 고스란히 사회에 회향하는 심부름을 해왔다.

천미희기자



◇광양시는 7일 옥룡사지에서 도선국사 법구 이운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주용직 광주지사장

도선국사법구 다시 제자리 봉안

부도탑·탑비 복원 옥룡사지서 점안

신라 도선국사의 법구(석관)가 발굴 6년 만에 다시 옥룡사지에 봉안됐다.

광양시는 도선국사와 제자 통진대사의 부도탑과 탑비를 복원, 7일 옥룡사지에서 점안식을 가졌다. 옥룡사지는 도선국사가 입적할 때까지 35년동안 수도한 도량으로, 광양시가 주관해 발굴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행사는 도선국사 법구를 순천대박물관에서 옥룡사지로 이운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우리가락 한마당 잔치, 출토유물 전시회, 봉안제막식, 원광대 양은용 교수(동양종교학과)의 도선국사 비보사상의 실체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동아대 발굴팀 영암사지 조사

통일신라 가람배치의 전형

합천 황매산 영암사지(사적 제131호)를 발굴한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단장 심봉근) 발굴팀은 10월 30일 "영암사지는 현재 사찰의 초석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등 통일신라시대의 완벽한 가람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사찰 변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굴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암사는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조계종(8세기경)·천태종(11세기)사찰로 변모하면서 증개축을 거듭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보다 3배 정도 더 큰 당시 전국 5대 사찰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 금당지와 회랑지가 동서 대칭의 정방형인데 반해 이번에 발굴된 하단부의 건축물은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된 점도 확인했다. 박원구기자



◇19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이 2일 개막됐다. 사진 왼쪽부터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대구불교방송사장 성타스님,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경주전시

불국사 협찬, 19일까지 아트선재미술관서

천년 불교미술문화의 고향인 경주에서 근현대 작가들의 불교사상 작품전이 뜨거운 관심속에 19일까지 열리고 있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이 주최하고 불국사(주지 종상)의 협찬으로 아트선재미술관에서 2일 개막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전'이 그것.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김영종 동국대부총장, 김무생 위덕대대학원장, 김태중 경주문화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2일 개막식은 불국사 어머니 어린이 합창단의 은은한 찬불가 속에서 시작됐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은 개막인사를 통해 "서울전시에 이어 첫 지방 순회전시로 천년고도 불교도시 경주에서 전시되게 된 그 자체로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은 "많은 문화행사가 큰 도시에만 집중된 현실에서 이번 전시는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큰 몫을 할 뿐만 아니라 포교 교육차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축사했다. 경주=박원구기자

'선예술의 재조명' 주제

14일 한중일 학술대회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속에 녹아 있는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선예술의 재조명'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14일 부산일보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와 전통문화의 핵심에 깊이 뿌리내린 선사상(禪思想)의 본질과 표현법을 규명하는 자리로 (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와 한국전통예술학회 주최로 개최된다.

'선예술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홍윤식 회장의 기조연설 〈선예술의 재조명〉에 이어 전전혜학 일본 문화공로자의 〈아름다움의 마음〉이라는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천미희기자

광주·장흥교도소 재소자

선각종, 찬불가·독경 대회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6일 광주, 장흥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찬불가 및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진셜(선각종 총무국장), 자공(천봉사), 진운(불설정사), 진덕(송학사), 선주(천불암), 진화(수지암), 선정(지선암) 스님과 재가불자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대회에서는 재소자 30여명이 출연해 저마다 틈틈이 배운 실력을 발휘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항상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참회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선각종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독경과 찬불가 강습을 실시해 재소자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99년부터 이 대회를 열어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선각종은 6일 광주 교도소에서 재소자 찬불가와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김갑일 총무(가운데)와 용천사 신도들이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새벽기도 20년…사중일 도맡아

서울 용천사 관음회 김갑임 총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지극정성으로 참회기도를 올립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벗고 매일 매순간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피나는 연습이지요. 그러다보면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용천사 관음회 김갑임 총무(46세, 자비안). 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참회야말로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김 총무는 20여년째 새벽기도를 올리고 있다.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라기 보다 기도를 통해 청정한 마음과 수행으로 삼아가기 위함이다.

김 총무의 정성을 지켜본 조실 심월스님은 3년전 관음회 총무직을 권했다.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신행의 폭을 넓혀나가게 하려는 심월스님의 배려였다. 절에 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당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김 총무는 사중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에도 사중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관음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사찰안내와 법당청소, 공양 준비 등 바쁜 하루를 보냈고, 법회가 없는 날에도 기도시간 외에는 공양간과 법당을 오가며 일거리를 찾았다.

군법당·장애어린이 후원 등 활동 확대

김 총무의 정성을 지켜본 조실 심월스님은 3년전 관음회 총무직을 권했다.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신행의 폭을 넓혀나가게 하려는 심월스님의 배려였다. 절에 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당에서 기도하며 보냈던 김 총무는 사중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에도 사중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관음회 총무직을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사찰안내와 법당청소, 공양 준비 등 바쁜 하루를 보냈고, 법회가 없는 날에도 기도시간 외에는 공양간과 법당을 오가며 일거리를 찾았다.

김 총무가 절에 다니는 동안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남편 최은식씨였다. 오히려 불전금을 챙겨주거나 차로 절까지 데려다 주는 정성을 보였다. 김 총무의 신심에 감복한 남편은 용천사 신도가 되어 있다. 군대에 간 아들과 딸, 시부모까지 불자가 됐다. 매년 남해 보리암을 찾아 철야정진에 가족이 함께 동참하며 독실한 불자가정을 이뤄가고 있다.

현재 사중일에만 참여하고 있는 관음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김 총무는 10여명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회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시설이나 군법당 후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에서다.

사실 김 총무는 2년전부터 장애어린이를 후원해오고 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지만, 친구로부터 그 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무작정 후원을 시작했었다. 2년째 후원해오면서 얻은 기쁨은 후원한 마음에 비해 너무나 컸다. 관음회 활동을 절 밖으로 돌려보겠다는 힌트도 여기에서 얻은 것이다.

김 총무는 사회에 나가 봉사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살지 않았나 후회될 때가 많아요.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부처님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미약한 힘이나마 그들에게 보태면서 살아갈 거예요."

박봉영 기자

추천의 말

심월스님 용천사 조실



우리 절은 지장기도를 올리는 도량입니다. 신도 중에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관음회 김갑임 총무 만한 신도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김 총무는 20년째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고 참석하는 열성불자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친 김 총무에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과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참회기도를 올립니다." 말은 쉽지만, 참 대단한 불자 아닌가요? 김 총무 같이 이웃을 생각하고 바른 법으로 이끄는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진보 간직한 '버려진 묵정밭'

(珍寶)



충주 목계나루 청룡사 터

찬서리 몰아치니 남한강 물곱이도 물소리가 깊어진다. 옛사람 서성이던 탄금대 언덕엔 가얏고 소리도 끊긴지 오래인데, 목계나루 억새풀들은 저 혼자 어깨춤이다. 기러기들 'ㅅ' 자로 'ㄱ' 자로 북천(北天)을 향해 노 저어 가는 청계산 머리, 텅 빈 계곡 어디쯤에 옛 도량이 숨어있는지 사름겨운 낮달은 해종일 늙은 느티나무 둘레를 맴돌고 형형색색의 잎새들은 적멸의 무게를 안고 시린 대지 위에 화엄성중을 모자이크 한다.

원주 섬강 자락에서부터 충주 탄금대 합수머리까지 남한강 1백리 강변 길엔 질 좋은 수석(壽石)만큼이나 세월의 무늬 아로새겨진 옛 절터들이 널려있다. '농무(農舞)의 시인' 신경림 시인의 시처럼 '청룡 흑룡 흡어져 비 개인 나루' 목계나루를 깃점으로 19번 도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소태면 오랑골에 청룡사 터를 만나게 되고, 다시 섬강 기슭 문막을 향해 다가서면 덕은리 고삿길을 넘어 정산리 거돈사터와 부론 법천사터를 만나게 된다.

지난 여름 불두화 만발했던 법천사지 지광국사 부도비는 지금쯤 금잔디에 발목을 묻었을 것이고, 황량한 거돈사 터 정산초등학교 교정에 누운 외짝 당간지주는 겨울잠을 청하기 위해 모로 누운 팔베개를 고침 것이다. 그 푼이라. 갈참나무 옹이보다 더 깊이 청계산 기슭에 푸리내린 청룡사 터 보각국사 정혜원융탑은 볼 탄 절터에 그을음이 무성하고 늙은 느티나무조차 천명을 다해 식정이로 부서져 내려도 좀처럼 거동을 않는다. 유정이든 무정이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뿌리가 내리는 법이다.

길머리를 다시 달천 쪽으로 돌리면 강변 넓은 들 가운데 우뚝 솟은 신라인의 향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앙탑으로 널리 알려진 탑평리 7층대탑이요, 거기서 서북 10리쯤 용전리 입석마을에 이르면 비각 안에 자연석 그대로 비문을 새긴 고구려 장수왕비와도 조우하게 된다. 이 비석은 1천5백여년 동안 잊혀졌다가 1979년 남한 유일의 고구려 비석으로 확인되어 역사의 대접을 받게된 고구려인의 숨결이다.


◇충주 목계나루 청룡사터.큰 소나무사이로 정혜원융탑과 부도비, 사자석등이 보인다.

국보 정혜원융탑등 문화재 숨은듯 감춘듯

금당터가 어딘지 주의않으면 그냥 지나쳐

중원 유역은 삼국시대 이래 내륙 수운(水運)의 대동맥이자 군사 요충지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고, 이어 백제의 영토였다가 장수왕의 남하로 고구려의 깃발이 꽂혔었고, 6세기 후반부터는 진흥왕의 한강유역 확보에 따라 신라의 영토가 되는 등 환란이 많았던 곳이다. 역사의 물결이 거칠었던 만큼 이 일대에만 4점의 국보급 유물들이 있다. 탑평리 7층대탑(국보 제6호), 입석마을 장수왕비(국보 제 205호), 그리고 부론 법천사 터 지광국사 부도비(국보 제 59호)와 이번 찾아가는 오랑골 청계산 기슭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국보 제 197호)이 그것이다.


◇청룡사터를 둘러보고 있는 필자.

법천 거돈 흥법사 터가 이미 세인들의 주목을 받은 폐사지라면 소태면 청계산자락 청룡사지는 버려진 묵정밭이나 다름없다. 마른 풀섶이 뒤덮힌 사지(寺址)의 사적지 지정은 물론, 국보와 보물급 석물들조차도 마땅한 주인이 없어 어둠침침한 산그늘을 가사인 양 걸치고 있을 뿐이다.


◇보각국사 혼수 환암스님 부도에 새겨져 있는 팔부신중. 조선 초기 석조미술을 대표하는 수작.

〈잊혀진 가람 탐험〉의 길 길이 바빠 그냥 지나쳐버린 청룡사터를 다시 찾은 것은 무슨 미련 같은 것이 청룡사 터에 남아있기도 하고, 목계교 건너 강변횟집에 참매자조림이 그리웍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찬바람이 불면 살이 야들여져 비로소 제 맛이 난다는 그 음식이다.

여느 때처럼 강변횟집에서 참매자조림으로 점심을 먹고 강변길을 10여분 정도 달려 오랑골에 들어서자 예년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든 탓인지 길섶의 산국山菊)들은 벌써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민가 울타리의 수세미 넝쿨은 힘없이 늘어져 있다. 골짜기 초입의 제일 먼저 만나는 청룡사 '위전비'(1692)는 여전히 반갑고 연이어 항아리 모양, 남가리 모양 소담하게 엮인 '적운당' 부도도 암회색 미소 그대로다.

능선 길 산행의 절정은 아무래도 보각국사 정혜원융탑과 부도비(보물658호), 사자석등(보물656호)을 참배하는 일이다. 산짐승이나 솔바람만이 오르내릴 이런 산길에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숨은 듯 감춘 듯 오순도순 모여있단 말인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문화재 애호' 현수막 글씨가 바람에 찢겨 눈에 거슬리지만 않아도, 깊은 산 속에 철책을 둘러 이만큼이라도 문화재를 지키려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진다.

숲 속 성보(聖寶)의 주인은 여말선초의 고승으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 건국을 지켜보았던 보각국사 혼수(混修) 환암(幻菴)스님(1320~1392)이다. 보각국사는 강화도 선원사, 순천 송광사의 주지를 역임하며 공민왕과 우왕의 국사로 국운이 다한 고려왕조와 민생들을 어루만지던 당대의 선지식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 역시 돈독한 신심으로 대사에게 귀의하여 대업 도모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대사가 청룡사에서 입멸하자 보각국사 시호를 내리고 사리탑 및 탑비를 세우게 했던 것이다.

팔각의 몸돌에 유난히 배가 부른 보각국사 부도는 각면의 신장상 조각과 반룡이 휘감긴 배흘림 부조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여 조선초기 석조미술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몇발짝 조용히 뒤로 물러선 탑비 역시 귀부도 이수도 없고, 덮개돌도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채 양끝 모서리를 접은 듯 처리한 것이 이채로우며, 사자 모양의 석등 또한 앙주 회암사 쌍사자 석등과 함께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그야말로 '청계진보(淸溪珍寶)'들이다.


◇새로 세워진 청룡사에 모셔진 금동불상 전형적인 조선불상의 모습을 하고있는데 최근 개금했다.

일부러 눈여겨 찾지 않는다면 빈 겉옷으로 내려가기 십상인 절터는 며느리풀, 새초, 칡넝쿨 등의 줄기가 한데 엉켜 마른 그물을 걸치고 있다. 풀그물들은 도대체 무엇을 낚으려는 것일까. 금당터가 어디인지 일주문이 어디인지 바람도 별도 관심이 없는데 무엇을 길어 올려 새 회상을 기약하려는 것일까. 그윽함인지 이끼인지 풀그물에 걸린 석축의 검버섯 무늬가 폐사지의 허망함을 말해준다. 그렇다. 이제 청룡사터 폐사에 얽힌 전설의 비밀을 밝힐 때가 되었다.

청룡사는 부속암자인 연회암(宴晦庵)에서 금강경주석서인 〈금강반야경소찬요조현록(보물 제720호)〉및 〈선종영가집〉 등 목판본을 출간하는 등 7백여년 동안 항화를 밝혀온 충주 일원의 대표적 거찰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 청룡사가 폐사가 된 것은 구한말 판서를 지낸 민대룡(閔大龍)이 소실의 무덤을 쓰기 위해 절의 스님을 사주하여 불을 지른 까닭이라고 한다. 민기 어려운 이 전설은 이번 답사 여행에서 절터 뒤쪽 능선에서 원민한 능(陵)에 버금가는 묵뫼(墓)하나를 발견하여 놀랍게도 사실임이 밝혀졌다. 늘 내 앞에서 답사 여행을 인도하는 눈밝은 고영배기자가 갈참나무 묘목과 다북솔 숲에서 용케도 그 무덤을 찾아낸 것이다.

청룡사 복원을 꿈꾸며 근년에 세워진 법화종 계열의 새 청룡사 지킴이인 김경애(46세) 보살의 말로는 10여년 전까지 이 무덤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으나, 다녀가고 나면 이상하게도 재앙이 닥쳐 지금은 찾아오는 발길이 없단다. 천년 성보를 망친데 대한 신장들의 분노일까. 묵뫼는 풀한포기 조차 제대로 가꾸지 못한채 솔잎 그늘 속에 쓸쓸히 야위어 가고 있었다. 사랑도 제대로된 사랑이라면 청룡사터 고용나무 열매처럼 단맛이 들어야 할터인데 속절없는 청룡사터 민씨일가의 사랑은 그 뒷맛이 몹시 씁쓸하다. 아무리 부처님의 영험과 선열의 숨결이 깃든 천년 고찰이라도 대물림이 잘못되면 청룡사터처럼 어제는 삼론종의 소유가 되고 오늘은 묵정밭이었다가 내일은 다시 법화종에 등기가 되는 천여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충주 상모면 미륵대원지

청룡사터 가는길

청룡사 터 답사는 교통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로 일죽IC나 호법IC에서 내려 장호원 38번 국도를 따라 30여분 가량 달리면 된다. 중앙대탑 못미쳐 목계교를 건너 19번 지방도로로 접어들면 곧바로 소태면 방향의 청룡사터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으로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제천, 엄정행 버스를 타면 되고, 충주시내에서는 원주행 시외버스에 승차하거나 소태,주치리, 구룡동 버스를 타고 엄정지서(목계)에서 내리면 된다. 현 청룡사(043-855-8856)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스님 · 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여시아문"할인
- 불교전문쇼핑몰"마하몰"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산문밖의 禪

박순호 교수
원광대 국어교육과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재현된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 박순호 교수 스스로 대표작으로 꼽는 이 공연은 그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민속예술 복원 40년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 대통령상

"여 여허~여허루 상사뒤~여 모손을 갈라 쥐고 거듭거듭 심어보세."

구성진 육자배기(판소리 제면조) 장단이 울려 퍼지면 어깨춤이 절로 난다. 힘든 모내기 일도 슬슬 넘어간다.

지난 10월 충주에서 열린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순창 '금과 들소리'를 재현한 김영조(80) 씨를 비롯한 80여명의 전북 대표들은, '대통령상'이 확정되자 참가자 모두 지도교수인 박순호 교수(60, 민속학자, 원광대 국어교육)를 얼싸안았다.

"아이구, 저번에 내가 실은 소리하고 연습 빠진 거 미안해. 그 동안 정말 고생했어."

107세 할머니의 노래 한 자락을 듣기 위해 며칠씩 집에 머물며 궂을 일을 했던 기억, 왼손 올리라고 하면 오른손 들던, 평균연령 70세의 '학생'들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떠올라 박 교수의 코끝도 찡해진다.

1978년 위도 띠뱃놀이, 82년 남원 심동굿놀이, 85년 익산 우도농악, 88년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일궈낸 박순호 교수. 박교수가 '우리 민속예술 찾기'에 나선지 40년이 흘렀다. 그는 휴일이나 방학 때면 카메라에 녹음기, 캠코더까지 짊어지고 산골 마을로 답사를 떠난다. 나이 지긋한 분들의 소리 한 자락, 이야기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채록해 두기 위해서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기약 없이 떠돌다 보면 '바로 이것'이다 싶은 농악이나 민요, 민속놀이를 발견하게 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노랫말이 뒤바뀌거나 중간 구절이 빠져 있는 경우 온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다시 부르고 수십 수백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랫말을 되살려내 공연 성격에 맞게 구성한다. 40분 정도로 구성된 공연물로 1주일에 2~3회씩 연습을 하고 대회가 가까워 오면 '합숙훈련'도 마다하지 않는다. 외부와의 연락마저 모두 끊고 연습에 매진하는 박 교수 팀이 역대 최다 수상을 일구어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가 말하는 '우승 노하우' 세 가지.

"농악이든 민속놀이든 우선 원형이 70% 이상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구'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두번째는 단일부락만으로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오고, 또 그들이 보존해 나가야 하는 문화 아닙니까. 쉽게 '공연'을 하려고 다른 지방 사람이나 학생들을 동원한다면 의의가 반감되겠지요. 세번째로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신명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연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민속예술 되살려야

하지만 수상보다 더 큰 문제는 발굴된 문화의 보존. 대통령상을 받고도 전수자가 죽고 나면 명맥이 끊겨 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 보존회를 결성해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후계자 양성에 힘쓰도록 한다. 그가 발굴한 위도 띠뱃놀이와 익산 우도농악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 만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 농요보다 가요가, 민속놀이보다 컴퓨터 게임에 더 익숙해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민속예술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 다녀보면 '손으로 모심고 호미로 논매본 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농요는 무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요의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이죠. 하지만 몇 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나 농요 속에는 우리네 역사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살려 전승시켜보자는 것이죠."

불교대 설립, 7년간 학장

어쩌면 소박해 보이고 한편으론 개인이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박 교수는 40여 년간 한뎃잠을 자고 마을의 궂은 일도 자청해 가며 우리 노래와 이야기를 모아왔다. "힘들 때면 의지가 되고 화가 날 때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자만심이 들면 고개 숙일 수 있게 해 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박 교수의 불교사랑 또한 남다르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이었던 박 교수는 지난 1997년 불교대학 설립에 앞장섰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학장으로서 불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봉서사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재현해 낸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1988)'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하는 틈틈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책으로 펴내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전국구비문화대계〉, 〈전북예술축제〉를 낸 것을 비롯해 2000여 권의 자료 중 102권을 영인본으로 펴냈다. 이 과정에서 판소리 열두 마당 중 구전이 끊겼던 '무숙이 타령' 사설을 발견해 주목 받기도 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다면 중간에 몇 번이고 그만뒀을 겁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글=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당찬 신세대…단편영화 '별주부전'

'방생' 소재 인간욕망 그려

비구니 스님이 장터에 간다면?

동국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학생들이 만드는 25분 짜리 단편 영화 '별주부전'은 '방생'이라는 소재적 특성 말고도 '특별한' 것이 있다고 시나리오와 공동 연출을 맡은 오지혜(26)씨는 강조했다.

"기존 단편 영화들은 종교를 다룰 때 너무 무겁고 엄숙하게만 접근한 것 같아요. 젊은 비구니 스님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유쾌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요."

줄거리는 대강 이렇다. 연화라는 젊은 비구니 스님은 방생 법회에 쓸 자라를 사서 장터를 빠져나오다가 꼬마의 황금잉어사탕을 부수게 된다. 돈이 없는 스님은 아바위판에 끼어들게 되고, 그 와중에 허리가 좋지 않은 장돌뱅이 김씨가 자라가 든 함지박을 안고 가 버린다. 자라가 꼭 필요한 스님과 김씨는 자라 경주를 벌여 주인을 가리게 되고…

장터라는 소재와 빠른 전개 탓에 "코믹 액션 느낌이 나는 드라마"다. 여기에는 23살 또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젊은 비구니 스님 연화의 모습도 한 몫 거든다. 스님은 장터에서 머리핀 가게를 기웃거리다 스스로 멋찍어 하기도 하고, 꼬마의 황금잉어사탕을 박살내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씨는 "불교적 소재만을 차용한 가벼운 영화가 절대 아님"을 강조한다.

"'자라'는 방생 법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보신을 위해서도 많이 찾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욕망이라고 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욕망을 쫓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평범하고 평등한 인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종교. 그런 것을 담고 싶어요." 영화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해 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 영화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영화가 완성되면 내년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외국의 국제영화제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소재로서 불교가 갖는 가능성이 큰데도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오씨는 "설득이나 감동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내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 계획



◇방생을 소재로 단편 영화를 찍고 있는 동국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별주부전' 제작팀.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훈정(촬영감독), 오지혜(시나리오), 조상범(감독)씨.
사진= 고영배 기자



릴레이 수행일기

박명숙
前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회장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화 내지 않기'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화났을 때 웃어주고 안아주기'이다. 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화를 밖으로 내지르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웃거나 안아주기까지 하려면 몇 단계 마음의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걸까. 이 화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걸까. 감정을 미분해 본다. 그래서 난 아이 키우는 것이 참 좋은 마음 공부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들 삼 형제를 키우고 있다. 한창 말썽을 피우는 여섯 살바기 큰 아들. 또래 아이들 보다 활동적이고 명랑한 그 애는 늘 다른 애들보다 수선스럽다. 그런 형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하는 행동마다 똑같이 따라하는 네 살 바기 둘째, 그리고 이제 일곱 달이 되어 가는 젖먹이 막내. 이 아이들과 오글오글 거리며 하루를 지내다 보면 언성 높아질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흔히 주변에서 말한다. 아들 형제 키우다보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고. 그럼 삼 형제 키우는 엄마는 조폭이 되나? – 그러나 난 오히려 삼 형제와의 인연에 감사드린다.

내가 막연히 4대 성인 중의 한 분으로만 알고 있던 부처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은 남편을 통해서였다.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 흘리듯이, 때로는 자세히 이야기 해주고는 했다. 늘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허덕거리며 살아온 나는, 마음을 바꾸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점차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인연 맺게 된 법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조차 모른 채 그저 허둥대기만 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쫓기는 사람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우물속 등나무에 매달린 채 꿀물을 받아먹고 위험을 망각한다는 '안수등등(岸樹井藤)'의 비유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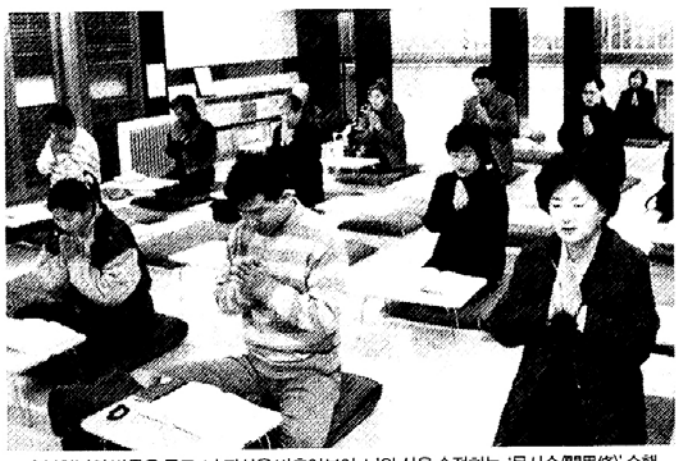
꿀 방울에 취해 자신의 위태로움을 잊는 중생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법륜스님 강연 듣고 나의 실상 발견
오늘에 충실한 삶이 불제자의 길

그 때부터 삶에 대해 보다 진지해 질수 있었다. 삶이 곧 수행이고 현재 발 딛고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부처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에서는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인 사고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험한 먹거리들과, 유해 화학물질의 만연, 점차 심해져 가는 터전의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모이고 있다. 비단 내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 뿐 아니라, 먼 나라, 이웃나라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보다 행복해 지기를 꿈꾸면서.

※다음 주 필자 노귀남 씨는 불교포럼 실행위원장(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해 참여불교운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을 비추어보아, 나의 삶을 수정하는 '문사수(聞思修)' 수행에서는 법회활동과 일상생활 모두가 정진의 과정이다. 5일 문사수법회 고양법당 회원들이 경전 법회를 마친 후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문사수법회의 '정토로 가는 길'

"'불교 어렵다' 생각 버리세요"
현실 속 주인 노릇하는 참된 삶 추구
1988년 시작, 1500여 회원 공동체 지향

"불경 가운데 화엄경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라고 말하지만, 초대 역경원장을 지낸 운허 스님은 화엄경을 읽으려면 세 살바기 아기의 마음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도심에 자리한 문사수법회(회주 한탑스님) 고양법당 이날 개강한 '화엄경으로 배우는 불교' 첫 시간에 김태영 법사는 "부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살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아듣도록 쉽게 법문했다"며 '경전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릴 것을 먼저 주문한다. 두 시간 내내 진행된 강의 역시 화엄경이 성립된 문화사적 배경과 깨달음의 보편성,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운동의 맥락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진행된다.

평일임에도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30~40대의 20여 불자들. 교사 강사,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배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이 단순히 '좋은 말씀'의 차원을 넘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받아들이고 경전 공부를 통해 바른 바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날 수강생 중 최고령인 이기원(81, 고양시 원당동) 씨는 "문사수법회의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허한 지식을 채우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참나를 구현하는 데 묘미가 있다"고 자랑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비추어보아(思), 나의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토에 이르는 길'이란 뜻을 가진 문사수법회(www.munsasu.org)의 회원들. 이처럼 법회에 참석해 '문사수(聞思修)'를 닦는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음을 느낀다.

문사수법회의 특징은 경전 공부와 나무아미타불' 염불정근을 중요시하지만 딱히 하나의 방편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대중법회, 공개강좌, 경전법회, 정기수련회, 상담 등을 통해 현실 속에서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참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결국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법을 나누는 이러한 법회활동 자체가 수행방편인 셈이다.

문사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중법회'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믿고 따를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다. 법우들과의 법담 속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진과 전법의 사명감을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문사수법회의 모태가 된 경전법회에서는 깊이 있는 경전 강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대입, 불법이 저절로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한다. 또한 지도법사와 갖는 일대일 '상담'은 생활 속 수행과정에서 현실과 부딪치는 문제를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참회와 정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신앙을 떠나 일상 자체가 견전해지지 않을 수 없다.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정기수련회를 통해서는 수행의 깊이를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다.

문사수법회의 운영 원칙은 회주 스님과 4명의 법사를 비롯해 회원 누구나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모든 불자들은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이자 법을 배우는 도반이기 때문이다. 청소에서 설거지까지 사소한 일도 남녀가 따로 없으며, '거사'나 '보살'이라는 일반화된 명칭 대신 모두 '법우(法友)'로 부르고 있다.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나 이웃들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988년 경전공부를 시작으로 법회를 연 문사수법회는 현재 1500여 회원들이 담양 정토사(정진원)를 비롯해 고양, 대구, 대전, 계룡, 이천법당 등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고양법당=(031)972-3581, 대전법당=(042)485-8111, 담양 정진원=(061)381-0108, 이천법당=(031)636-4418, 계룡법당=(042)841-3820, 대구법당=(017)341-382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끊임없이 자신 개혁하고
'진리에 부응하는 삶이 수행'

문사수법회 김태영 법사



"부처님께서는 중생 교화의 방편으로 설법을 택하셨어요. 불제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 경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사수법회의 여여 김태영(46) 상임법사는 "불교란 관념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원리"라며, 법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비춰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오로지 참선과 위빠사나처럼 특정한 수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경전이나 염불 참회 정근 등 다양한 방편들이 모두 소중한 수행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나 허위의식, 현실을 등진 신비주의적 미신 불교, 상업주의적 포교 등 불교 답지 않은 수행풍토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근본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불자의 수행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생각이다.

문사수법회의 법회의식과 경전강독이 대부분 한글로 진행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 그 시대의 언어로 설법했듯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리라.

"수행은 방법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참생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 자체"라는 김 법사는 "나부터 진리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수행 캘린더

■해운정사 '토요 용맹정진'=부산 해운정사(www.seon.or.kr)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일요일 새벽 3시 선원에서 '토요 용맹정진'을 실시한다.(051)746-4812

■일요 참선수련=서울 화계사 수선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 대적광전에서 일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화계사 선우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새벽 3시 국제선원 4층 법당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토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02)900-4326

■아나파나 호흡 특강=서울 위빠사나선원은 매주 월요일 오후 2~7시 김열권 법사의 '아나파나 호흡 특강'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인환 스님의 '인도철학 및 불교사'를, 매주 수요일 오후 3~7시 임승택 법사의 '위빠사나' 강좌를 연다. 선정(禪定) 기본호흡, 체조, 위빠사나 기초도 지도한다. (02)739-8992

■월정사 주말 수련회=강원도 진부 월정사는 매달 셋째 금~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주말수련회를 연다. (033)332-6664

■천태사교의 강의 및 철야정진=영산법화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화삼부경 강의(이영자 박사), 오후 3시30분 천태사교의 강의(지창규 박사)를 연다. 매월 둘 넷째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철야정진도 한다. (02)762-4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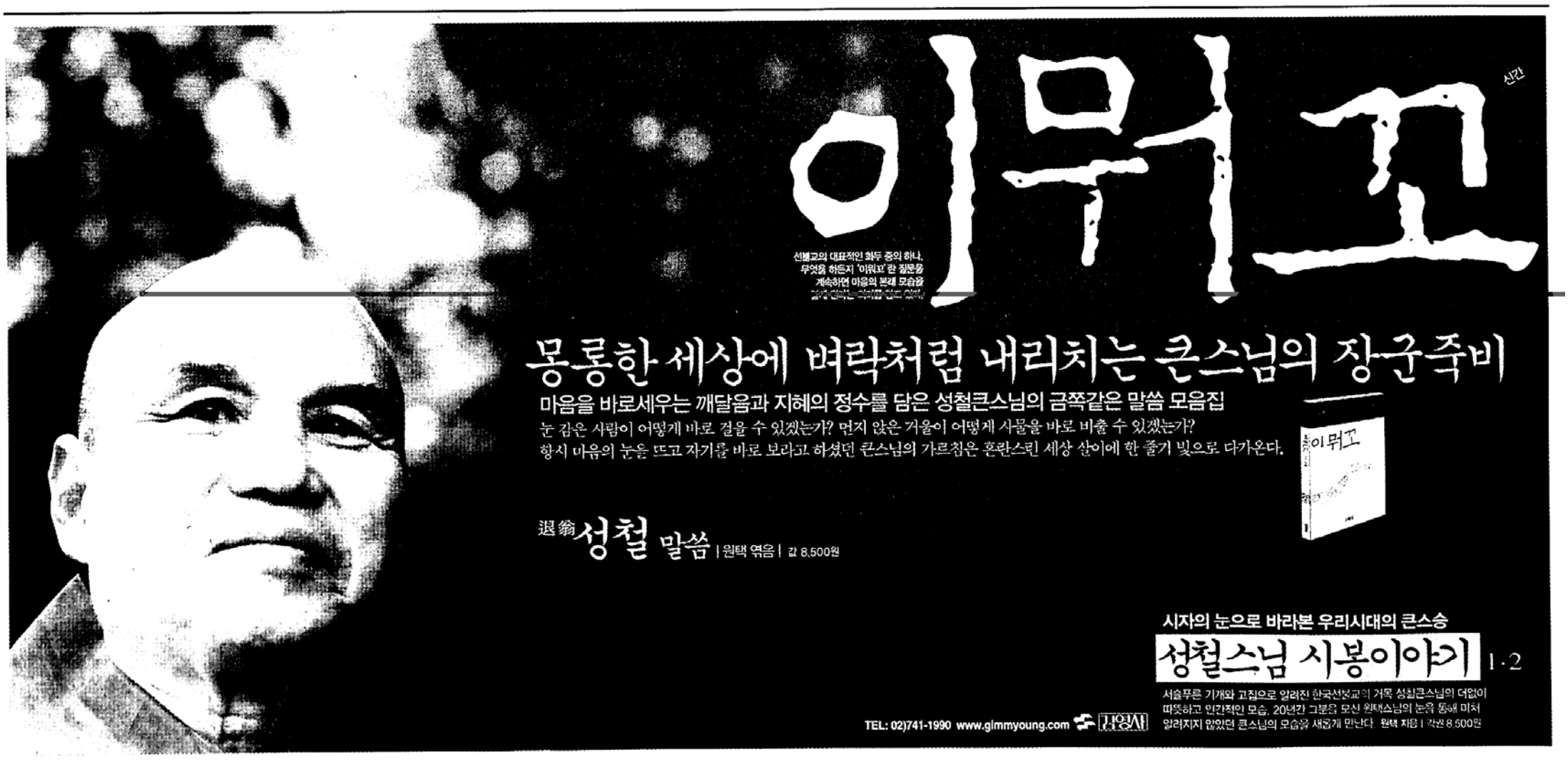
■동사섭법회=전북 장수 명상의 집(www.dongsasub.org)은 12월 23일 오후3시부터 28일 오후4시까지 충남 논산 삼동원에서 제174회 동사섭법회를 연다. 귀신사 회주 용타 스님이 지도한다. (063)351-5125

■화두선 교육=수선회(www.zen.or.kr)는 11월 20일 화두의 중요성, 27일 화두 참구법에 대해 교육한다. (02)732-5960

■위빠사나 정기수련=위빠사나 수행 가이드 카페(vipassana.buddhism.org)'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천안 호두마을에서 위빠사나 정기수련회를 연다. 호두마을 정원 상임지도법사가 지도. 참가신청 E-mail : metta4u@hanmail.net

■목요명상=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리빌딩 3층에서 '목요명상(위빠싸나 수행)'을 실시한다. 지도는 묘원 법사. (02)3462-4932

■대흥사 '열린 수련회'=대흥사는 매달 1·3째 금~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과정의 '열린 수련회'를 갖는다. (061)534-5502



바라밀현장

봉은사 선재마을의료회 **작은병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남에게 주고싶을뿐

선재마을 의료회 여호숙 간호사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돕는 거죠. 세상에 내 물건 남의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을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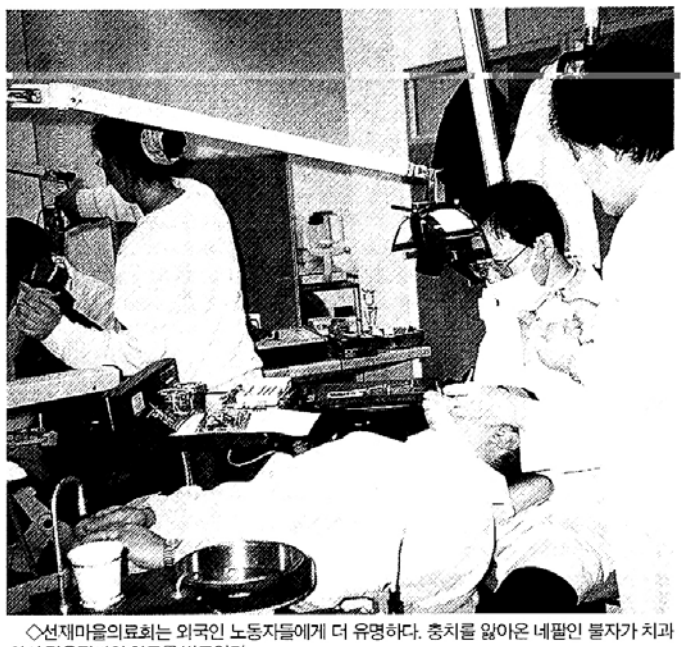
선재마을의료회 회원인 여호숙 간호사(38 · 강남 차병원). 여 씨는 선재마을의료회 봉사활동의 전방위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다. 간호사의 본업인 아픈 사람 돌보는 봉사부터 선재마을의료회 소식지 발간, 회원들간의 연락 및 친목 도모, 시청이나 봉은사를 상대로 한 업무 등. 선재마을의료회 일이라면 어김없이 여 간호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회원들이 여 간호사에게 지어준 이름도 '선재마을 감초'다.

봉사활동을 찾아다닐 정도로 타고난 봉사활동가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여 간호사. 그녀는 늘 불교계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쉽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할 때였는데 평생 절에 다니던 독실한 불자도 70~80%가 넘게 죽는 순간 개종을 한다고 하더군요. 불교계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 간호사는 어서 빨리 불교계가 봉사활동에 대해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할머니, 여기가 아프세요?" "응, 어깨부터 속이 깨소금 꺼워 하나도 먹지 못했어. 나이가 드니까 죽으려는지 말야." 가만히 청진기를 할머니의 배에 대고 상태를 살펴본다. 여기 저기 차가운 청진기가 닿자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몸을 뒤튼다. "할머니, 위에 염증이 생긴 모양이에요. 약 드시고 맛 좋은 음식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서울 봉은사. 지하식당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보통 사찰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열 평도 안 되는 곳에 십여 명의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복작거리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99년부터 서울역과 봉은사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해온 선재마을의료회가 올해부터는 봉은사 내에 '작은병원'을 차린 것이다. 내과, 치과, 안과, 소아과는 물론 한의과까지 갖추고 있어 일반



◇선재마을의료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유명하다. 충치를 앓아온 네팔인 불자가 치과의사 김유진씨의 치료를 받고있다.

세상을 진료실로 삼는 자비인술

진료비 무료…외국인 노동자에 인기

"내년엔 인도 다람살라에서 인술"봉사

병원에 뒤질 게 없다. 특히 진찰하고 약까지 받아가지만 진료비가 없다. 능력대로 부처님께 보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3일 오후. 11월 첫 번째 주 근무를 자청한 이정균(53), 치과의 김유진(47), 안과의 손경숙(48), 약사 이현숙(32) 씨 등 10여 회원들이 작은병원을 지키고 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한둘 아니죠.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 알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 아닐까요?" 안과 환자를 진료하던 손경숙 씨가 하는 말이다.

손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재마을의료회의 진료가 단순한 진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재마을의료회의 봉사는 바로 몸이 아픈 수많은 세간의 부처님들에게 모든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여긴다.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몰린다. 내년에 강제추방을 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요새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툰 한국말이지만 그들은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자리를 뜬다.

대기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를 부르러 밖으로 나갔던 여호숙(38) 간호사가 말한다. "여기 있는 물건 중 새 것이라고는 하나 없어요. 냉장고며, 난방기구들, 심지어 치과 진료기계, 안과 장비 등 하나 하나 여러 사람들이 내 놓은 것들이에요."

선재마을의료회원들은 내년에는 꼭 인도 다람살라에서 의료봉사를 해보자는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이 나신 땅을 찾아가 참배하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뵙고 고향 잃은 티베트인을 돕기 위해서다. 모두들 너무 바빠서 몇 년이 지나도 서로 얼굴을 제대로 모르고 지내기가 일쑤라는 회원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心 마음비추기

선정만이 참으로 놓는 길이다

방하착(放下着)은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놓아라"라는 우리 말도 방하착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말의 출전은 조사어록의 하나인 〈선문염송(禪門拈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흑치라는 수행자가 양손에 오동나무꽃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다. 이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흑치여, 놓아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흑치는 왼손의 꽃을 놓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흑치여, 놓아라"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흑치는 오른손의 꽃을 놓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놓으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은 양손의 꽃을 다 놓은 그 수행자를 향해 다시 한 번 "흑치여, 놓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에게는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양손의 꽃을 모두 다 놓았는데 다시 더 무엇을 놓으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흑치여, 네가 놓을 것은 꽃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너는 세 가지를 놓아야 하나니, 처음에는 육근을 놓고, 다음에는 육경을 놓으며, 마지막에는 육식을 놓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흑치는 곧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집착, 또는 탐진치를 놓는다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임이 분명하다. 바꿔 말해서 이것을 다 행할 수 있으면 수행이 완전히 익었다고 할 수 있다. 그처럼 중요하고도 깊은 수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놓는다는 이 수행을 완성하기는 극히 어렵다. 경계를 당하기 전에는 쉬울 것 같은 이 놓는 수행이 실제상황으로 닥쳐오게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놓아야 하는 경계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범부도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둘을 구별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나는 놓고 산다"느니, "그런 걸 왜 놓지 못하느냐?"느니 하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된다.

흑치와 같은 높은 근기를 갖지 못한 우리들의 경우 놓으려면 놓기 위한 수행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정수행이다. 선정이 깊어지면 "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굳이 "놓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경계가 놓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 수행만이 생각으로만 하는 수행을 넘어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명과 업을 청정케 해 줄 수 있다.

내가 오래전에 벽에 못을 박다가 실수로 엉치뼈를 다쳤을 때, 나는 수행이고 관찰이고 도무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깊은 선정을 이룬 수행자만이 그런 경계에서도 여여한 마음, 즉 놓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선정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수행자의 자세이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제 실천이다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더불어 사는 삶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우리는 선우'는 지난 해부터 '3% 결사 운동'을 벌여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결사 운동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물, 유산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운동. 이미 대부분의 회원들이 3%를 넘어 매월 5%이상의 보시를 생활화하고 있고, 회원의 5분의 1 정도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유동호 기획과장은 "신행에서 보시나 봉사를 강조하지만 막상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불자들이 많아 시작하게 됐다"며 "일 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깨어있는 시간의 일부를 남을 위해 씀으로써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보시행임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사회로 회향하는 이러한 보시행은 불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역시 따로 행사를 펼치지는 않지만 1% 회향 운동을 출범 초기부터 펼쳐오고 있다. 재가연대는 정기 소득과 유산의 1% 보시, 주간 · 월간 단위로 시간의 1% 봉사 활동 참여, 1% 남을 위해 기도하기 등 '나누는 삶을 위한 4대 방편'을 제시하고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천원으로 자비를 실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99년 출범한 전주 천천 클럽은 매달 1천 명이 1천 원씩 보시하는 운동을 3년 째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1천 원'이라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낸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부처님오신날 밝히는 연등도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 소망이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예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선우는 10년 전부터 장충공원에 '자비의 등'을 달아 보시금을 불우 이웃에게 회향해 오고 있으며, 조계사 역시 지난 해부터 '이웃을 위한 등'을 달고 있다.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불공은 많이 해도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올바른 신행은 나눔의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도 늘어날 시기이다. "온갖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의 큰 묘지(妙旨)를 구하는 까닭이다"(〈십지론〉)는 경전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볼 때다.

권형진 기자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적극적인 보시행이다. 성불원 바라밀회 유영서 회장은 매주 수요일 소찍새마을 원생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한다.

이웃 · 사회로 회향하는 보시행 확산

올바른 신행 나눔의 실천에서 시작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세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라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분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면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 · 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 (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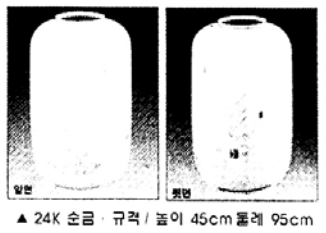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 부처님께서 열반하신후 몸체에서 남은 사리가 봉안된 순금 사리백자이며 순금으로 새겨진 천수경과 함께 모셔두면 불자님들의 모든 업장소멸과 함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자비로서 가정의 편안함과 온갖 재앙과 악업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으며 특히 도자기 안쪽에 새겨진 5개(재수부, 건강부, 소원성취부, 금전운부, 사업번영부)의 부적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며 소원성취를 이룰수 있는 영험한 천수경 도자기다



◆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안쪽 밑면에 봉안된 부처님의 사리를 불자님들께서 직접 친견함으로서 몇겹의 무명 속에서 헤메이던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와 부처님의 한량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안쪽에 봉안된 ▶ 부처님의 사리상 (舍利像)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작품 보급가 ▶ ~~W328,000~~ → 230,000원
※ 은행신용카드 사용시 6~12개월 분할

▲ 24K 순금 · 규격 / 높이 45cm 둘레 95cm

반야사 / 불교문화연구원
TEL 051)583-7774(代)

※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심을 기원드리기위해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작품을 충분히 확인, 검토후 한달(30일)이내 대금 지불이 가능합니다.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발간안내

혁신판을 「수정보완」하여 활인차원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오행가는 오행가대로, 오행을 모르는 분은 모르는대로 온 시간, 전화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만 보면 이렇게 자세히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시간에 몇명이 오든 각기 다르게 판단되도록 새로 제작한 설명비디오와 새로 고쳐쓴 부록에 자세히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값이 비싼것 같으나 이책 하나만 장만하면

활인천역자로서의 능력이 단번에 높아지고 그 효과에 의해 살림이 편안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지난 2년간 검증된 사실입니다. 기존 혁신판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절차에 의해 교환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더이상 교환해드리지 않습니다.


월장 亥 월건 寅 丙寅日 각 시간별 래정(來情)
공망 戌 亥
기력(氣力) 旺(기왕) 相(진세) 休(손퇴) 囚(무모)
해당지지 寅卯辰 巳午未 亥子丑 申酉戌
■ 본 월장 사용기간은 우수 日이 되는 時·分부터 (본책 권수 사용시기) 춘분 日이 되는 時·分 전(前)까지로 한다.
巳
기궁: 점시(占時)가 기궁 및 기궁상신(干上)과 충(沖)되면 신변동요와 이별사가 있는 사람이다.
■ 오늘은 갑자 旬中 셋 째 날이므로 귀인 역행(-) 일때는 8 일후 재정단하여 온 시간이 귀행순행(+)될 때 댁일하여 수법을 행하라.
시보 | 심이운성신살 | 정단正斷 시간 | 점천비극공사 시장재설망안 |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무슨 일로 왔는가) | 국수 局數 | 貴人順逆과 修法可否 |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 초전동정 動靜 | 초 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 支上 길흉속지 모망사 可·否 | 점자가 저지른일 남으로부터 당한 일 여 부 | 구사 (舊事) 근래사 반목사 |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여 부 | 점자의 이득치가 어 부 | 삼전 (三傳)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 중간 | 결과 | 귀신침범 여 부 (어떤 귀신인가) | 산소탈음덕 묘지상태 (누구 산소인가) | 빌미 부정 여부 점자의 (띠 별) | 귀신침해 산소탈 부정빌미 해소지침 | 家相 貧富 자손 吉凶 이사可否 | 이사 吉方 및 댁일 | 응기 일이 되는 일, 월 | 선인 ○ 보통인 △ 악인 × | 피해를 가해올 남녀 방위 | 사과삼전 요결(了訣) (이 말은 점자의 처세 판단이므로 세부적 成否는 뒷면 해당 국수에 준하라)
七殺 | 胎 재살 | 十 子 ①卯 | 부인 병 업무 | 온(전화)목적은, 관직·직업, 또는 남편의 일에 관련된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이다 | 제 ② 국 | + 수법효과여부 (○) | 지일課 이 사람은 지금 동료에 의해 일이 방해되 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의욕이 넘쳐나 의문과 의심이 없다 두가지 일은 안되고 의해 하지를 선택하여 야이 된다 이점으로 수법을 쓰라 친반생하극 친반극생 친생친생 친반생생극 처 재 소송 질병 시가 있다 친반생하극 친구와 동산을 팔고 정리하다 | 子 쥐 관심 남 편 심 | 이미 끝난 일이 재발하게 생겼네? 두가지 일로 기로에 섰군요? 남의 호언장담을 믿지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처성을 잘 드리세요 돈만 나가는 일이 되니 새로운 일은 중지하는 것이 좋겠어! →水귀, 음귀가 돈시에 발동이야! 도로귀·신의 부정이야! | 辛 丑 | 朱 문서사 | 손해실망 | 타 발동사 목전사 내사가 출외됨 | 반 복 사 | 올 일 | 손해人 병 오래감 (신부성) | 子 × 의 사 | 亥 × 어 른 사 | 戌 × 여 인 사 | 밤: 신불제사 도로 시 띤 | 외조모·子·낙태 / 외조모 夫 | 밤: 寅·申 巳·亥 丑·未 시 띠 | 寅 6 青 卯 주사 6 日 | 빈 빈 빈 편 午 酉 구설 凶 이사 | 午 酉 유 하 | 寅·卯 午 | × | 寅 여 자 | 이 국수자는, 내가 짐이 있을 때 서로 친일하라 검손하고 관대하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합조해 올 것이니 충족을 얻을 것이다 단 상대을 잘 공라야 한다 盧退叫測
混·상관 | 養 천살 | 一 丑 申② | 상 인 면 접 기 몸 | 온(전화)목적은, 박관·실직사, 또는 물명예사가 있다. 남편, 또는 자손시에 관련된다. | 제 ③ 국 | + 수법효과여부 (○) | 중심課 이 사람은 지금 이래에서 위풍 넘쳐는 역조의 싱이다 모망시는 신충후끔하게 된다 먼저 니서지 않고 되는 일에 손을해야 유리해 진다 노인에게는 푸릉하다 귀인이 역정하면 재난을 얼딥게 된다 이점을 알하고 수법을 쓰라 | 丑 소 상관 관 구 설 | 가정이 예의가 없고 편안치 못하네? 갈라지는 상이야!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지체되네? 마음이 서로 다르니 시기를 조심해야 되겠어!(행년이 卯이면 해가 중하다) →변사·자살귀이야! 신 부정이 들었어! 도로귀도 보이네? | 庚 子 | 蛇 리이사 | 패해불가 | 타 발동사 | 子 사 | 일어난 일 | 피해人 병 불 치 (신부정) | 丑 × 묘 시 사 | 亥 × 어 른 사 | 酉 ○ 음 사 사 | 밤: 신불제사 도로 시 띰 | 외조부 시위 / 외조모·子 낙태 | 밤: 子·午 卯·酉 寅·申 시 띠 | 寅 6 黃 辰 주사 6 日 | 빈 빈 편 부 未 귀이 凶 이사 | 未 육 하 | 寅·卯 辰 | ○ | 이 국수자는, 큰 혜택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곧 영광이 온다 유순하게 연행하고 포용력을 수지하라. 人化暗遭毒害
殺 比 지살 | 十 寅 ③巳 | 공 우 분 장 | 온(전화)목적은, 매사가 막히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의 손해, 여인사에 관련된다. | 제 ④ 국 | + 수법효과여부 (○) | 호시課 이 사람은 지금 시작은 크나 끝적는 적다 주인은 유리하고 심재가 유리하다 소사는 유리하고 재사는 불리하다 신수는 동적하고 주동이 유리하다 이치 씨싱이 갑력은 있으나 권국 개기 없으므로 호양이가 아닌 고양이인 신이다 적정은 사람싹이고 기쁨은 서북쪽이다 이 점으로 수법을 쓰라 | 亥 豬 관심 직 위 여 부 | 불륜이네? 삼각관계에 빠졌어! 한 여자에 두 남자가 붙어 있네? 그런데 마음이 거꾸로네? →변사귀가 들었어! →신의 부정이 탔어! | 庚 亥 | 貴 어른사 | 무력몰성 | 타 발동사 | 올 일 | 무력人 신 병 치 료 구 병 분 치 (신부정) | 亥 × 어 른 사 | 申 × 남 장 사 | 巳 ○ 모 위 사 | 밤: 신불제사 시 띰 | 부의 형제 처 / 부의 형제 子·낙태 | 밤: 辰·戌 丑·未 卯·酉 시 띠 | 卯 9 未 午 주사 9 日 | 빈 빈 빈 빈 申子 공 당 凶 금 전 | 申子 묘 하 | 辰·巳 午 | △ | 이 국수자는, 김먹지 말라 지금 놀라는 일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 일 뿐이니 해처 줄 점이 없다 작게 이루어 지는 일에 만족하라 손님은 재우지 말라 口舌信息 又疾病
裕 | 一 卯 ④午 | 원 재 관 사 | 문서 동신 | 온(전화)목적은, 남녀 물문하고 색정사에 관련된다 수상·존장사, 또는 후원사·사업사이다 내외 화합사가 있다 | 제 ⑤ 국 | + 수법효과여부 (○) | 중심課 이 사람은 지금 이래에서 위풍 넘쳐는 역조의 싱이다 모망사는 신충후끔하게 된다 먼저 니서지 않고 되는 일에 손을해야 유리해 진다 노인에게는 푸릉하다 귀인이 역정하면 재난을 얼딥게 된다 이점을 알하고 수법을 쓰라 | 子 쥐 관심 부 인 근 심 | 입을 다시 일으켜 세워볼 계획이 신데, 당장은 고생만 많고 이루지는 못하겠어! 男 남의 여자를 유혹해서 내것처럼 쓰고 있네? | 戊 后 여인사 | 午 어른사 | 寅 호랑사 | 타 발동사 | 올 일 | 무력人 신 병 치 료 구 병 분 치 | 戊 × 여 인 사 | 午 ○ 어 른 사 | 寅 ○ 호 랑 사 | 밤: 시 띰 | 봉우·형 제·자매 / 봉우 형 제 자매 | 밤: 寅·申·巳 亥·辰·戌 시 띠 寅 申 巳 亥 시 띠 | 酉 丑 子 빈 빈 빈 부 점 凶 금 전 | 유 하 | 辰·巳 午 | × | 申 남 범 | 이 국수자는, 큰 혜택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곧 영광이 온다 유순하게 연행하고 포용력을 수지하라 夢寐妖邪
冠 | 一 辰 ⑤未 | 분 서 작 오 상사 | 온(전화)목적은, 자손·박관·출모·분실, 또는 실직사이다. | 제 ⑥ 국 | + 수법효과여부 (○) | 지일課 이 사람은 지금 동료에 의해 일이 방해되 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의욕이 넘쳐나 의문과 의심이 없다 두가지 일은 안되고 의해 하지를 선택하여 야이 된다 이점으로 수법을 쓰라 친지반극생 친생친반생 친반생생극 처 재 소송 질병 시가 있다 친반생하극 친구와 동산을 팔고 정리하다 | 子 쥐 관심 부 인 근 심 | 옛 인연들이 끊어지네? 선택의 기로에 섰어! 공육간에 배신하게 생겼군! →물에서 자살한 귀신이 붙었네? →도로 귀신이 장난을 치네? | 庚 酉 | 貴 손장사 | 노력가능 | 아 발동사 | 올 일 | 이익人 병 치 료 (자살귀) | 子 × 기 술 직 | 未 × 술 사 사 | 寅 ○ 호 랑 사 | 낮 도 로 시 | | 낮 子·午 卯·酉 시 띠 | 寅 8 貴 未 주사 8 日 | 빈 빈 부 빈 丑 寅 안 정 귀 자 | 丑 寅 위 유 하 | 巳·午 未 | ○ | 이 국수자는, 내기 짐이 있을 때 서로 친일하라 검손하고 관대하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합조해 올 것이니 충족을 얻을 것이다 단 상대을 잘 공라야 한다 夫婦不和
月將 神 | 絲 명신 | 一 巳 辰 ⑥申 | 문 서 목 적 단 성 | 온(전화)목적은, 직·녹을 구하는 일이거나, 입신상의 일이다 상을 받는 일이 있거나 명예사가 있다. | 제 ⑦ 국 | + 수법효과여부 (○) | 반음課 이 사람은 지금 배반사를 겪고 없다 성신이 두가지로 돈으며며 득상은 가능하기 어렵다 간 사은 오려히 오래기지 않는다 지금 시성은 티인에게 의뢰하여 도모해야 조과가 있다 귀인 운역은 보아 이점으로 수법을 쓰라 | 寅 虎 인수 사 업 금 전 | 부부 모두 딴 마음이네? 일이 두 가지라서 딱 정허지지 못하고 있겠군!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예의를 지켜야만 좋게 될꺼야! | 壬 申 | 后 여인사 | 녹력가능 | 타 발동사 내사가 출외됨 | 신 사 | 일어난 일 | 이익人 병 치 료 | 寅 ○ 고 위 사 | 申 ○ 어 인 사 | 寅 ○ 고 위 사 | 낮 시 띰 | 묘 母 / 묘 母 | 낮 辰·戌 丑·未 시 띠 | 午 8 黃 午 주사 8 日 | 빈 빈 부 빈 寅·卯 안 정 귀 녀 | 午·未 申 | △ | 이 국수자는, 기세가 등등하다 시위를 벌이는 격이다 시기니 경쟁자가 나타난다 상대방에게 대앗기는 것이 있다 소망은 달성되나 재물과 신분향상은 소리에 비해 실속이 없을 것이다 難進退

※이 크기는 실물 크기로서 8절지 앞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子~巳시까지, 뒷면 午~亥시까지

♠위 책 본문 각 칸에 대한 보기설명 (번호순 ①~㊱)

①월장 : 공간과 시간이 부딛치기 때문입니다.(상단)
②기궁 : 내몸의 분신이 공격을 받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상단)
③사용시기 : 이 책 권수의 사용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상단)
④공망시보 : 전문가는 이곳만 봐도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⑤심이운성 : 육임은 그날의 일간이 정단요청자가 되는데 이 시간이 일간에서 보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부록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⑥정단시간 : 찾아온 시간, 전화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을 표시한 것이고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온 사람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시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번호는, 한꺼번에 여러사람이 왔을 때 번호를 고르게 하여 고른 번호가 써진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명을 볼 수 있습니다.
⑦점시천장 : 정단 시간마다 어떤 특별한 마음상태를 갖고있는가를 밝힌 것입니다.
⑧래정 :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했는가를 써 놓은 것입니다.
⑨국수 : 온시간에 의해 우주의 천기가 응집되어 정체성을 갖게 되는바 뒷면에 그것을 밝히고 묻게될 22가지 항목에 길흉성부를 따져 놓았습니다.
⑩◎수법가부 : 모든 수법(천도제·구병시식·굿·부적등)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아는 곳입니다.◎
⑪과체 : 온 사람의 총체적 정황을 써 놓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 수법을 행하는데 불안없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⑫초전동정 : 육임에서는 초전이 용신(用神)이고 사건의 발단을 아는 곳입니다. 여기에 써진 내용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⑬초사 : 문 열고 들어서는 사람, 시선이 부딛친 사람, 전화온 사람, 가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내쏘는 말입니다. 틀림 없습니다. 귀신역시 정확합니다. 사용해 보시면 너무신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⑭支上 : 모든 일의 되고 안되고의 결정과 무엇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⑮아타사 : 온사람이 스스로 저지른 일인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가를 써 놨습니다.
⑯신구사 : 온사람의 일이 오래된 일인가? 근래에 일어난 일인가? 반복되는 일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⑰미기사 :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⑱이해득실 : 이세상은 관계사회로서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정단자의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써 놓았고 무슨일로 그런결과가 되어 질 것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⑲◎ 또 병자가 온 경우 기도·수법으로 치료시킬 것인지 못고칠 질병인지 무슨 귀신이 침범해서 생긴 병인지를 밝혀 놨습니다.◎
⑳삼전 : 어떤 것을 묻든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좋고 나쁘고를 밝히고 무슨 일 때문에 좋고 나쁘게 된다는 것을 교시해 줄수 있습니다.
㉑귀신침범 :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써놓았습니다.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 집안에 반드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㉒산소탈 : 누구산소에서 지금 탈을 부리고 있는지도 밝혀집니다. 부록에는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
㉓빌미부정 : 온사람의 가장이나 가택이나 식구에게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띠별로 밝혔습니다. 부록에는 자세히 이 부분을 써 놓았습니다.
㉔귀신침해 해소지침 : 여기에 명기된 대로 수법을 쓰면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부록에 방법이 따로 써 있습니다.
㉕◎산 소 탈 : 어떻게 산소탈을 제거해 줄 것인가? 이를 밝힌 것입니다.
◎해소지침 : 부록에 참으로 묘하게 자세히 그 방법을 밝혀놓았습니다.
㉖가상빈부 : 온 사람이 우선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집안에 지금 무슨일이 벌어져 있는가를 써 놓았습니다.
㉗이사길방택일 : 가택이 나쁘면 어디로 이사시켜야 좋아질 것인가? 그 방위를 육임법칙에 의해 밝혀 놓았습니다. 이 방위로 이사하면 반드시 개운됩니다. 이사택일은 이사가는 방위와 육합이 되는 날을 쓰라는 것입니다.
㉘응기 : 묻는 일이 언제 될것인가 몇일 몇월에 될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될것입니다.
㉙선인악인 : 온사람 또는 정단자의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 보통인인지를 써 놓아 중요사에 응용되게 해놨습니다.
㉚가해자 : 어떤 흉사가 있을 때 어떤 곳에 사는 누가 해악을 끼쳐올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㉛운세 : 당면 운세에 대해 처신해야할 교시를 주는 법문이 될 것입니다. 아래줄의 한문은 간단명료한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뒷면에는 별도로 찾아온(전화)사람이 묻게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해 즉시 말해줄 수 있도록 아래 내용 모두에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모망사 공명사 구재사 구직사 시험사 결혼사 임신사 가정사 이사사 소송사 질병사 매매사 여행사 도난사 가출사 대인사 상면사 채용사 투자사 승부사 가격사 경작사 묘지사 기후사

주문안내
값 2,500,000(이백오십만)원 각종 신용카드 24개월 구입가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02-993-8680·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상좌-대승불교 본질적 차이 지역성 아닌 개인적 성향에

마성스님, 신앙형태 · 사상적 배경 등 고찰

1987년 한국에 소개된 위빠사나는 동남아 지역의 불교 수행 전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위해,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떠났고, 그들이 귀국한 90년대 이후 학술적 논의의 장도 만들었다. 하지만 남방 상좌불교의 수행 전통이나 신앙 형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분적이다. 스리랑카에서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온 마성 스님(마산 가야사 주지 · 사진)은 "심지어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상적 배경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상좌 불교와 대승불교의 특성 비교

상좌불교	대승불교
지혜를 통한 '이해' 강조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
분석적 방법→'점진적' 수행	직관적 방법→'급진적' 수행
'번뇌' 측면에서 인간 이해	'보리'의 측면에서 인간 이해
의례를 중요시 안 함	의례를 중요시 함

상좌불교=이해 중시…개인 · '지혜의 도'에 초점

대승불교=믿음 강조…대중 · '신앙의 도'에 비중

마성 스님의 논문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실천적 특성 비교'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신앙 형태와 사상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거의 최초의 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번 겨울에 나올 〈석림〉 36집에 실릴 예정이다. 〈석림〉은 동국대 석림회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펴내는 학술지다.

마성 스님의 논의는 현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상좌불교는 엄밀히 말해 부처님 생존시의 근본불교나 부파불교로 분열되기 이전의 초기불교와는 다른 형태지만 초기불교 전통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해와 믿음의 문제이다. 상좌불교는 '개인의 도'와 '지혜의 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대승불교는 '대중의 도'와 '신앙의 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

닦음과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좌불교는 닦음을 중요시해 '점진적 수행'(점수)을 강조하지만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대승불교는 '급진적 수행'(돈수)을 강조하는 것도 다르다. 상좌불교는 '지혜의 도'를 추구함에 있어 분석적 방법을 택하지만 선불교의 전통이 강한 대승불교는 직관적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입장도 상좌불교는 번뇌의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대승불교는 보리(지혜)의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려 한다. 이성에 토대를 둔 상좌불교가 의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비해 대승불교는 신앙 자체가 의례라 할 정도로 의례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와 대승불교는 지리적 구분이 아니며 지역적 구분은 이제 중요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상좌불교도 안에서도 '대중의 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대승불교도 중에서도 '개인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예컨대 선방에서 수행만 하는 스님들의 경우, 말로는 대승불교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좌불교도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상좌와 대승의 본질적 차이는 지역성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초기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상좌불교와 대승불교는 그 사상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학체계나 수행 체계, 신앙 형태가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체계불학, 독립적연구 필요

김성철 교수,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불교가 기독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대사회적 활동이 부족한 것은 이른바 체계불학과 실천불교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체계불학과 실천불교학의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소고'를 발표한 김성철(동국대) 교수는 '서구에서 도입된 인문학적 불교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불교신행의 현장에서 무차별하게 공급됨으로써 오히려 많은 불자들이 교리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불교학자의 역할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행지침 마련할 때 사회활동도 활발

김 교수가 정의한 체계불학이란 '현대의 문헌학적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두고 불전의 가르침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수미일관한 하나의 신행체계로 구성해 내는 불교학'이다.

김 교수는 "인문학적 불교 연구의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의 경우 정교한 문헌 분석에 토대를 둔 인문학적 불교 연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문학적 불교학을 통해 성취한 연구성과들을 선별 취합하여 체계불학을 구성함으로써 불자들에게 확고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제공할 경우 이에 토대를 둔 응용불교학적 연구와 대사회적 불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베트 불교의 〈보리도차제론〉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김 교수는 깨달음이란 무엇이고 불교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출가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보살도를 지향하는 대승불교의 '출가와 재가는 봉승한가', '불교신행의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불교학계가 해답을 낼 수 있을 때 사회적 실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성보' 4호 발간

거창 · 창녕 불상 보고서 등 담아

"지정과 비지정의 차이는 조사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거창 포교당(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삼장탱화, 창녕 포교당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등 올해 경상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성보 3점 역시 조계종 문화부의 조사 덕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 경우다. 특히 거창 포교당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40년 조성이라는 절대 연대와 봉안 사찰, 조성에 참여했던 화원(畵員)을 밝힐 수 있는 조성기가 함께 발견돼 17세기 중반 경상도 지역의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조사를 맡은 김창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설명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성보〉(연간) 제4호는 '거창 · 창녕 포교당의 불상과 불화' 조사 보고서와 '전남 고흥사 응기사 '자선당상' 복장불 조성구성' 보고서를 담았다.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 토론회(2001년 8월)와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02년 3월)의 발표문과 토론자료를 묶어 특집으로 꾸몄다.

장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7)

섬세한 장식의 부활

고려불화는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식성은 11세기보다는 12세기, 12세기보다는 13세기, 13세기보다는 14세기가 더 극성하였다. 이 현상만 두고보면 고려불화는 궁극적으로 섬세한 장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4세기에 절정을 이룬 장식성은 15세기, 즉 조선에 들어와서는 한풀 꺾여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18세기에 다시 고려불화를 능가할 정도의 장식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특히 의겸(義謙)이 제작한 불화들에서 섬세한 장식성이 다시 등장하였다. 왜 18세기에 와서 장식성이 부활한 것일까? 그 계기는 17세기에 불교를 중흥하려는 강렬한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게 그리고 강렬하게 표현하는 17세기 불화의 활력이 있었기에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디테일에 침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18세기 전반에 풍미한 장식성은 이 시기 불교계의 풍요로운 상황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년, 보물 1273호). 18세기 전반에 성행한 장식적인 불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18세기 들어 고려불화 장식 능가할 정도

의겸의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대표적

'낙겸은 '여년'화가인가? '18세기 전반에 일반 회화에서는 겸재(謙齋) 정선(鄭敾)이 대표적인 화가라면, 불화에서는 의겸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양겸(兩謙)이 이 시기 화단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가 금어로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곳은 1719년 고성 운흥사이다. 이후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실상사, 천은사 등 주로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신감(信鑑), 채인(彩仁), 환척(陟), 색민(色敏) 등 수십 명의 화승을 배출하여 이른바 의겸파(義謙派)라 불릴 만큼 한국불교회화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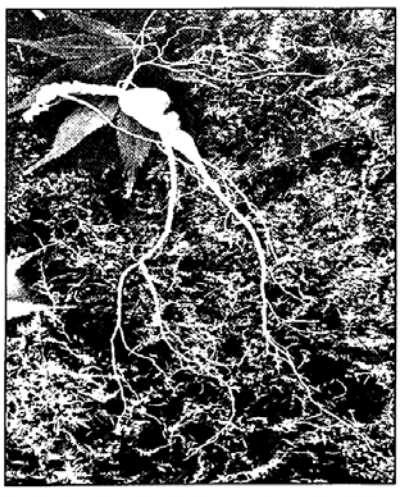
의겸이 1729년에 제작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석가불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권속들을 빽빽하게 배치하여 이미 구도에서부터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녹색조의 바탕에 주색이 생기를 띠고 있고 금색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화는 10가지도 안 되는 색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채롭게 보인다. 그 비밀은 금색선의 무늬에 있다. 같은 적색 바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금선 무늬를 넣느냐에 따라 색감은 달라진다. 색채는 10가지 이내라도 그 위에 들어가는 금선의 무늬에 따라 체감하는 색채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선의 무늬로 인하여 면이 딱딱하지 않고 색채 또한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 즉 색채와 색채가 서로 진동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 그림에 장식성과 동시에 활기를 부여하는 비결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불화의 화기에는 의겸을 호선(毫仙)이라 소개하고 있다. 굳이 호선의 뜻을 새기자면 '붓 신선' 쯤 되는데, 그의 명성이 이미 당대에 세상에 떨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선의 경지에서 노닐었다는 낙겸은 '18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장식성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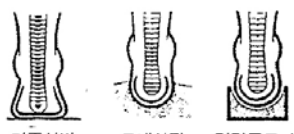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귄行"

귄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콜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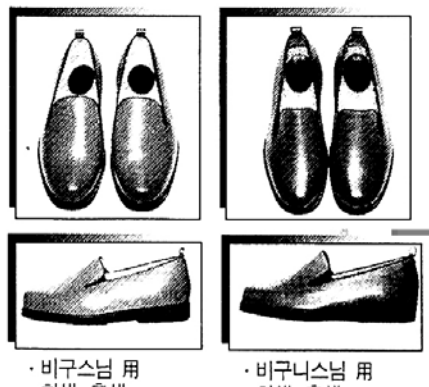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우료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귄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귄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에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742-0296. 742-0297
귄行대표 박동진 합장

책vs책

잘 쉬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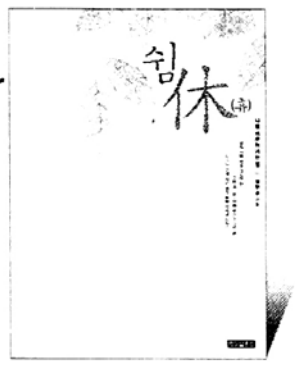
"정신없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자,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자. 위에 나열한 두 마디를 오늘은 몇 번이나 했던가? 바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다.

한자어로 바쁘다는 뜻을 지닌 단어는 망(忙)이다. 마음(心)과 죽음(亡). 이 두 글자의 조합이 '바쁨'이다. 마음을 죽인다는 뜻이다.

마음을 죽이고서, 몸은 살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니다. 마음을 살려야 몸도 살고, 몸을 살려야 마음도 산다.

〈쉼〉과 〈휴〉는 쉬면서는 일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휴식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신만의 휴식 법을 찾아 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맘껏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한다.



'쉼(休)'

맹한승 지음

마당넓은집 / 1만 2천원



'휴(休)'

웨인 밀러지음 / 박윤정 옮김

도솔 / 8천9백원

쉼 산림욕 등 다양한 현대인의 휴식전략 소개

휴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수행으로서의 '쉬기'

나를 비우러 길을 떠나자. 어디로? 쉬러.

〈쉼(休)〉은 최고의 휴식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전문 지식을 실생활에 맞게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한마디로 현대인의 휴식 전략 지침서이다.

삼림욕에서부터 허브 요법, 아로마테라피, 요가, 명상, 발 마사지, 음악감상, 여행, 동이학교, 목욕, 사우나, 해수찜, 스파, 생활속 휴식 공간, 수면, 티타임, 산책 등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또 참선 수행을 지도하는 전국의 대표적 시민선방과 위빠사나, 아뵈타, 단학수련 등 수행 단체들의 연락처도 수록했다.

여기에 '휴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 변화경영연구소 구본형 소장, 한국명상요가센터 위일석 원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 관광레저 칼럼니스트 고태규 씨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삶을 보는 태도와 휴식 전략을 들어보는 것도 흥미롭다.

50여컷의 흑백 사진을 담아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보는 책으로서의 기능도 추가했다.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두루 섭렵한 목사이자 명상전문가인 웨인 밀러씨가 쓴 책이다.

생산성과 능률만을 강조하고 노동의 대가를 휴식이 아닌 소비를 통해 보상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대인의 오랜 종교 전통인 안식일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저자는 안식일을 두 가지 뜻으로 사용했다. 하나는 특별한 수행법의 의미로, 다른 하나는 폭넓은 비유로서, 즉 잊혀진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으로 사용했다. 특정 종교의 전통을 고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최상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수행법으로서의 '안식'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독교를 포함해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등 종교적 신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안식을 위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굳이 종교에 얽매일 필요 없이 휴식에 대한 품격 있는 에세이. 생활속에서 휴식을 실천하기 위한 명상 가이드북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은자 기자

부파불교 핵심-대승불교 기초

'아미달마 구사론' 4권

권오민 역주

동국역경원 / 각 1만5천원



경상대학교 권오민 교수(인문학부)가 새로 역주한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전4권)이 동국역경원에서 나왔다.

〈아비달마구사론〉은 소승 제부파 중 설일체유부의 아비담마 논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논서이다. 4세기경 간다라인인 바수반두(世親으로 한역)가 지은 것으로, 중국의 현장이 651년에 번역했다. 게문만을 모은 〈아비달마구사론본송〉 1권(현장번역)이 있고, 이역으로 진제가 번역한(546) 〈아비달마구사석론〉 22권이 있다. 〈구사론〉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부파불교의 이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기초학으로서도 구사론의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아비달마구사론〉은 '계품(界品)'과 '근품(根品)'에서 제법의 본질과 작용을 밝힌 다음, '세간품(世間品)'과 '업품(業品)' '수면품(隨眠品)'에서 고(苦)의 실상과 그 원인과 조건이 되는 업과 번뇌를 밝히고, 다시 '현성품(賢聖品)'과 '지품(智品)' '정품(定品)'에서 고멸(苦滅)의 열반과 그 원인과 조건이 되는 지(智)와 선정(禪定)에 대해 논설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동심(童心)으로 바라본 성철스님

'천진한 부처 성철스님'

공광규 글 / 송광무 그림

북앤피플 / 8천5백원

3일은 성철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꼭 9년이 되는 날이었다. 성철스님은 생전에 가야산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엄격한 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다. 성철 스님은 탐진치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들을 천진한 부처라 일컬으며, 어른들에게 항상 어린이들을 부처로 모시라고 하였다.

〈천진한 부처 성철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어른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 동화의 형식을 차용해 성철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일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예쁜 그림까지 더해 만들었다. 자녀나 조카에게 선물하면 좋을 듯싶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86년부터 시인으로 활동해 온 공광규 씨가 글을 썼고, 친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삽화는 불화가 송광무 씨가 그렸다.

이은자 기자

새로나온 책

백가지 마음의 나침판



〈백가지 마음의 나침반〉은 〈백유경〉을 현대적인 문장으로 읽기 쉽게 편역한 것이다. 〈백유경〉은 백구비유경, 또는 백구비유집경, 백유집 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원래 백가지의 우화가 담겨 있었는데, 후대에 2가지가 소실되고 현존하는 경전에는 98가지 뿐이다. 이 책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책이다.(책만드는공장 刊, 7천5백원)

장자1



이 책은 수년간 강단에서 장자 연구에 매진한 안병주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전호근박사(전통문화연구회 연구원)와 함께 역주하여 출간한 것이다. 곽상을 비롯한 제가의 주석은 물론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역서와 중국 및 대만, 일본의 번역본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선별하여 역주에 실었다.(전통문화연구회 刊, 1만3천원)

섬진강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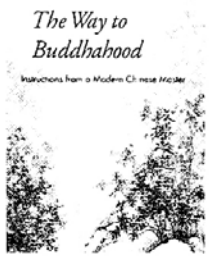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사인 오영희 씨 가시조집〈섬진강 소견〉을 냈다. 오씨는 지난해 '시조세계'에서 같은 제목의 시조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이 시조집에서 오씨는 고향인 하동 섬진강 유역에 대한 사랑과 한국석불문화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만난 우리 석불에 대한 찬탄, 그리고 인도 중국의 불교 성지를 여행하며 느낀 감정들을 노래했다.(뜰방 刊, 6천원)

해외불서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길: 대만 고승의 가르침(The Way to Buddhahood: Instruction from a Modern Chinese Master)〉은 대만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학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인순(印順) 대사가 불교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한 책. 인순 대사는 이 책에서 전반적인 불교사상을 다루는 한편, 용수(龍樹), 월칭(月稱), 쫑카파(Tsongkhapa)의 중관사상에 주목해 불교의 정수인 '깨달음'으로 향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순 대사는 이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자는 '인간불교(人間佛敎)' 사상을 통해 전통의 단절이 아닌, 현대 사회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 불교의 발전상도 제안하고 있다. 인순 대사는 다양한 불교전통의 장단점을 기술하며 수행상에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미국, 위스덤 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3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4	이뭐꼬	성철스님	김 영 사
5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6	생활속의 금강경	우룡스님	효 림
7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 문 서 원
8	미오지간	성 운 스님	불광출판사
9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 영 사
10	산으로 가는 마음	허 운 청	일 주 문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풍수 그 2천년의 신비가 벗겨진다!



우영재 지음
신국판 / 438쪽
정가 18,000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화제의 신간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이 글의 핵심인 「명산구조(PS구조)」 분석은 세상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풍수성립이래 지난 2천년 동안 신비스럽게만 여겨져 왔던 풍수의 핵심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사상 최초로 풍수의 핵심인 「地氣(땅기운)의 패턴 및 분포구조(=PS구조)」 발견 해부
■ 대권가문 및 몇몇 주요가문의 선영과 생가에 대한 땅기운 구조(PS구조) 분석을 통한 풍수의 신빙성 고찰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섭심부
신국판/양장본/우연 譯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컴퓨터土 활보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컴퓨터土 활보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삼풀이 대백과
신국판/정천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총기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김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군화천부경

아~ 君군火화唵엄嘛마 오셨네!



아!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니 누가 그 분을 알아 보겠습니까.
왜? 성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하고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이파면 죽나니" 그 분을 꼭 만나라고 하셨을 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참으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선(神仙)이 되어집니다.
갑신(甲申)년에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 오셔서 사람들과 합하여 신선의 몸이 되어 지상 낙원을 이룹니다.
하늘의 신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기 위하여 탕탕탕 세 글자의 주문을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다하여 연속 외워야 합니다.
탕탕탕은 하늘의 신이 감추어 놓으신 무기이며 신을 찾는 암호입니다.

"君火海印 蕩 蕩 蕩!"(군화해인 탕탕탕!)

쌍미륵 출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 경기도 파주에 전해져오는 쌍미륵불

석가사후 3000년뒤 쌍둥이 미륵이 오신다 했습니다.
(현재 불기 3029년)

· 2004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국이 됩니다.
· 2004년에 인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신선세계가 시작됩니다.

군화엄마는 .....!

● 군화엄마는 사람속에 계시는 부처님의 새 이름입니다.
● 미륵을 부르는 옴마니반메훔, 옴, 소울음, 훔치 모두 천지부모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 사람들이 기다리는 미륵, 정도령 그분 이름은 군화엄마 이십니다.

군화천부경 시중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전국 마음방 연락처 : 익삼 선등 011-9469-5443, 011-222-5206, 02)567-9493 방배 016-747-1440, 02)3487-6169
과천 011-9991-0450 군자 011-9797-9905 잠실 011-9797-7123 사당 011-275-8830 대전 042)625-3212 부산 051)503-8795
광주 062)376-9892 대구 053)755-9166 전주 063)232-2254 청주 043)272-4879 덕소 031)521-4933 안양 031)443-1440

9천년 세계 건축史의 나침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건축의 역사'
조너선 글랜시 지음 / 강주헌 옮김
시공사 / 2만 9천원

주요 건축물·양식·건축가 시대·지역별 구분 정리

"건축은 문명의 역사를 포괄하는 주제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조너선 글랜시는 이렇게 단언한다.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의 명예회원이자 '더 가디언(The Guardian)'지의 건축과 디자인 부분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가 9,000년 건축의 역사를 유려한 문체로 풀어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건축의 역사〉는 제목 그대로 400여 컷의 화려한 화보로 보는 건축의 역사이자, 한편의 건축 '오디세이아'이다. 주요 건축물과 건축양식, 그리고 건축가를 각 시대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이 명쾌하고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인도의 건축물에 대해 한번 들어보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들의 사원"인 보로부두르의 스투파(자바 섬, 8~9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이다. 이 사찰은 최고 수준의 건축, 조각, 그리고 조경 설계의 결합물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활화산과 우림이 어우러진 장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성스러운 산의 모습으로, 깨달음의 아홉단계를 지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영혼의 여행을 풀이라는 소재로 표현해 낸 것이기도 하다. 깨달음의 아홉 단계는 석재 단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맨 아래의 다섯 단은 직사각형 모양의 닫힌 회랑 형태이다. 다음 세 단은 명상에 잠긴 붓상을 감싸고 있는 72개의 종 모양 스투파로 에워싸인 열린 환형으로 지어졌다. 마지막 단은 눈과 영혼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앙의 스투파로, 그 안쪽에는 회랑 안에 모두 1,200개에 이르는 조각된 판들이 부처의 생애와 전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일렌드라 왕조(775~864년)가 통치하던 시절에 건설되었으며 850년경 최초의 설계에 따라 완공되었다. 그후 아래쪽 행렬용 단에 추가 공사가 한번 있었다."



◇아난다 사원(미얀마의 파간, 12세기)은 스투파 사원들의 특징을 결합한 건물로, 탑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조너선 글랜시는 이 책에서 건축가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최초의 건축물인 신전의 장려함에서부터 마하발리푸람에 있는 사원들의 우아함, 중세 고딕풍 성당의 야심 찬 모습,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20세기의 마천루(고층빌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능동적인 변신을 거듭해 온 예술로서의 건축을 펼쳐 보인다.

조너선 글랜시는 "건축은 영원과의 교감이며, 우주와의 화합이며, 인간의 야심을 3차원의 공간에 그려내는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이라면서, 불을 쫓는 나방처럼 자신이 추구해 온 건축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한다.

더불어 이 책에는 팔라디오, 르 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 건축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건축가들에게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해 간략하지만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용어설명을 실어 기본적인 건축용어에 대해 쉬운 설명을 곁들여 놓아, 건축에 대한 식견을 갖춘 애호가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의 지적 호기심도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역량 있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은자 기자 eeel@buddhapia.com

만화로 보는 세계종교이야기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이원복 글·그림
두산동아 / 1만원

'인류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쉽게 설명



〈신의 나라 인간 나라〉는 〈먼 나라 이웃나라〉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만화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온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이원복 교수가 들려주는 아주 명쾌한 세계 종교이야기다.

'세계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이 책은 이 교수의 재치있는 그림과 이야기를 비주얼한 시대감각에 맞게 옮겨 놓았다.

이 책은 종교를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한 장체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종교가 왜 탄생하였고, 인류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신화와 전설이 뒤섞인 시대인 고대의 종교에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과 변천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종교가 인류에게 어떤 희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 종교들의 교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 비교하여 균형잡힌 종교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인 '신화의 세계' 편은 세계 문명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를 현대 문명과 연관지어 재미있는 만화로 담을 예정이며, 마지막 제3권 '철학의 역사' 편은 세계 정신 문명의 큰 기둥인 철학의 역사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미래 과학·인간에 대한 지형도

'앞으로 50년'
존 브록만 엮음 / 이한음 옮김
생각의 나무 / 1만 7천5백원



전문가 서평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고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로마클럽에 의해 발표된 1972년만 해도 미래학의 청사진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1994년 발표된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도 로마클럽은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할 위기를 전망하면서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었다. 물, 에너지, 토양 등 주로 환경 문제에 국한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때의 미래학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경고를 보내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멈추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하라는, 일종의 적색 경보가 미래학의 기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50년〉(이한음 옮김, 생각의나무 펴냄)은 조금 다르다. 물리학, 생물학, 의학, 인공지능, 컴퓨터, 수학 등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자 25명이 각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나타날 성과를 예측한 글들을 한데 모은 이 책은 무엇보다도 도전적이고 과감하다. 앞으로 50년이라면 우리 당대에 그 예측의 적중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근(近)미래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그들은 현재의 책 속에 2050년의 낯선 신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곳에는 확신과 주저, 욕망과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 있으며 미래에 대한 눈먼 낙관주의와 수동적 무기력증은 겨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당뇨병, 알츠하이머, 대부분의 암, 불임 같은 만성 질병의 원인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따라서 이를 막을 백신이 등장한다(폴 이월드).

인간의 뇌와 정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누가 살인자나 아동학대자, 강간범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갖고 인류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조지프 레덱스).

아이를 임태하는 순간에 성별은 물론이요 신체적, 인격적, 정신적 특성까지 선택하고 뇌는 병든 부분을 통째 바꿀 수 있다. 인간은 더 이상 다윈의 진화론에 갇혀 있지 않으며 생명과 사물의 관찰자에서 그것들을 조작하는 존재로 발전한다(로드니 브룩스).

행복의 50%가 유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마하이 칙센트 미하이).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허혈성 심질환 다음으로 전세계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덩달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로버트 세폴스키).

학교나 사무실이 사라진다.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시간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의 빛살'로 대체돼 누구나, 어디에 있건 자신만의 실시간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은 거의 없어진다(데이비드 겔런터).

이들 예언 가운데 일부는 적중하고 또 일부는 빗나갈 것이다. 인조인간(이른바 '로보 사피엔스')으로의 인위적인 진화처럼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아직 무모한 가설에 불과한 것을 확신으로 포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첨단과학의 현주소와 그것의 미래에 대해 인문학적 관심을 품은 일반 독자로서야 그 시시콜콜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과학이 이제 단순히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뉴튼이나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인식론의 급격한 전환을 요구한다. 엮은이는 "최근까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발맞추어 빠르게 우리의 전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문화가 없었다"라며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출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을 공유한다. 양적 과학의 그늘에 가려 잊혀졌던 질적 과학으로의 관점 이동을 제안하는 브라이언 굿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런 엮은이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한다.

"(양적 과학이 질적 과학으로 변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상 암흑시대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씨앗이 이미 지구의 그늘 속에 놓여 있는 시대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가이아(대지의 여신)가 그 씨앗을 키우고 있는 시대로 보일 것이다."

미리 보는 미래, 흥미넘어 오늘을 돌아보게

미래의 객관적 현실을 미리 개괄해보는 동시에 그 가치론적 의미까지 따져보고 싶은 독자라면 충분히 흥미로운 읽을거리지만 군데군데 번역이 거칠거나 쉬 알아들기 힘든 전문적 대목이 불거져 나오곤 해 마냥 재미있게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치 조각보를 만들 듯, 이 책에 실린 편편의 에세이를 하나하나 꿰맞추다보면 과학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그 조각보의 미추를 판단하는 일은 전적으로 독자의 취향에 달려 있다. 예언의 실현은 사람에 따라 즐거울 수도 섬뜩할 수도 있다.

강철주/ 시사저널 편집위원

〈앞으로 50년〉은 인문교양과학서다. 최신 버전의 과학 트렌드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물리학자 리 스몰린, 영국 슈미허 대학 성불학 교수인 브라이언 굿윈, 인지신경학자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신경학과정 교수인 마크 하우저 등 25인 과학자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선도적인 과학자와 사상가들을 위한 웹사이트(www.edge.org)포럼 〈에지〉의 편집장 겸 발행인인 존 브록만이 엮었다.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대학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위탁 연수)
▶ 수련내용 : 인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참 가 금 : 학생(1일-2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0 (예금주) 설기준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장갑
▶ 시 설 : 선무도대학 본관과 요사채숙소는 신축건물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사워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석굴사찰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사찰 전통문화와 대자연속에서 불교의 선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과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학업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 선(명상과 선호흡수련)	14시	오후 수련(선무도 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무용, 다도)
7시	아침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	불교강의(초발심, 부모은중경)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수련 (선무도의 정적인 기공수련과 선체조)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선무도)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의 문무대왕수중릉 성지순례와 계곡의 얼음 골속에서냉수마찰 수련도 합니다.
-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을 정화하고 한문공부도 시킵니다.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규칙을 어길 경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 지도진: 스님, 사범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등), 다도 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홈페이지 www.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병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장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한국민족악기의 자존심 -

한울림 국악기

국내최초의 등록상표 "한울림"으로 국악기의 브랜드시대를 개척한 한울림은 서울과 부산에 직영전시장과 전국 10여개 도시에 한울림악기 전문 대리점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악기 전문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 생산현장 - 경기도 양평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는 한울림 양평공방연구원은 그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악기를 생산한다는 내용면에서도 그 최대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울림공방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품질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 타악기 PR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을 이는 악기와 고정음을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 장구(JANG-GU) • 북(DRUM)
• 징(CHING) • 꽹가리(Kkwaenggwari)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 가야금(KAYAGUM) • 아쟁 • 거문고 • 해금
• 개량 가야금(IMPROVEMENT KAYAGUM)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허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 대금/소금/단소(TAEGUM/SOGUM/TANSO)
• 개량대금/개량단소(IMPROVEMENT TAEGUM, TANSO)
• 태평소 • 피리



◆ 악 세 서 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 유아용 악기 CHILDREN' S INSTRUMENTS
◆ 음반/비디오/교재 CD-ROM/VIDEO

한울림국악기 제품문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5-16 TEL 02)521-3277 / FAX 02)521-3276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 3동 144-2 TEL 051)501-3191 / FAX 051)501-3192
양평공장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60 TEL 031)774-1007 / FAX 031)774-1006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승단은 좋은 벗의 둥지

좋은 벗의 집단은 다름 아닌 승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전법을 시작하여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승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상가의 구성원은 비구들 위주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의 전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거기에 비구니와 재가자들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부처님은 상가의 구성원을 모두 좋은 벗이라 불렀다. 좋은 벗은 한문으로는 선지식(善知識) 혹은 지식(知識)이라 부른다. 산스크리트어의 칼야나미타, 팔리어의 칼야니미트라의 번역어이다. 이것을 현대어로는 좋은 벗이라 부르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선지식, 혹은 지식이라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이나 지식이란 용어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안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벗의 집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는가를 알려주는 일단의 대화가 〈〈잡아함경〉〉27-15에 실려 있다.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대덕이시여, 제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좋은 벗을 지니고 있고, 좋은 둥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이 도(道)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난아, 사람들은 나를 좋은 벗[선지식]으로 삼아 늙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늙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병들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병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죽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아난아, 이것만을 생각해도 좋은 벗을 지니고, 좋은 벗의 둥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 도의 전부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절반이 바로 좋은 벗의 집단인 승가라 생각하고 있던 아난에게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 대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벗을 지니고, 좋은 벗의 둥지에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삼귀의를 통해서도 상가가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의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보배스러운 것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경전이 바로 〈〈증일아함경〉〉42의 수륜이나 〈〈증지부경전〉〉8-19의 파하라다이다. 여기에는 "(첫째) 네 가지 종성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법안에서 사문이 되면 그 전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시 다른 이름을 만든다. 마치 여러 개의 이름이 다른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 꼭 같은 한 맛이 되어 다른 이름이 없는 것과 같다 (둘째) 온갖 중생들이 수염과 머리 깎고 세 가지 법복을 가지고 집을 떠나 도를 배우고 무여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내 법에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마치 저 큰 바다에 여러 강이 들어와도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있다.

이상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각 다른 종성 즉 카스트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벗의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사문 석자(釋子:석가모니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과거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열심이 수행하고 법답게 실천하는가가 중요시 되었다. 그것을 많은 강을 받아들이되 더함도 덜함도 없이 한결같은 바다에 비유하고 있다. 둘째 카스트에 대한 부정은 계급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 교단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 계급모순의 타파는 직업에 대한 선택권과 평등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회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태어나면서 빈부귀천이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져 있었던 당시의 사회제도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직설적인 부정과 비판이다. 넷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은 열반이며, 열반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을 바다가 강을 받아들이되 차별하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인도적 전통에선 출신성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좋은 벗의 집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평등과 자유와 인간적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의 전초기지로 승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급모순으로 중만해 있었으며,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의 인도사회에서 그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치, 사회적인 대립과 투쟁을 감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비폭력과 자비심을 중시했던 부처님에겐 불가능한 일들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승가를 사회변화의 진원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좋은 벗의 집단이 불교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평등·자유·인간적 행복 중시
승가를 사회변화 '진원지'로

30년간 남북통일 염원



◇임진각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통일염원'이란 화두로 정진하고 있는 일선스님

가까이 일선스

초겨울 임진각에 서면 막막하다. 어디로 눈길을 주어야 할지. 자유로를 타고 시원스레 달려 왔지만 더 이상 달릴 자유가 없는 곳. 임진각에서 맞는 분단의 현실이란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이다.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최전방에서 오매불망 통일의 염원을 화두로 삼고 정진 해온 30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선스님이 절 이름조차 평화통일사라 명명한 이유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의 원력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원력을 가슴 가득 품고 임진각으로 걸어 온 것이 올해로 꼭 30년 전 일이다.

허름한 농가를 얻어 도량을 삼고 군부대를 드나들며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철조망 앞에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목탁 치고 절하며 기도했다. 지역 경찰서에서는 경승으로 활동하며 교화사업도 했다. 서부전선을 수행도량으로 30년을 한결 같이 살아 온 일선스님을 만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평화통일사 요사채에는 50여 컬레의 군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인근 부대 군인들이 법회를 보러 온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가득 군인들이 앉아 있고 한 쪽에서는 한 명씩 순서대로 노스님 앞에 나가 뭔가를 적는다.

'통일 발원 일인일자(一人一字) 사경(寫經)'이다. 한 사람이 법화경의 단 한 글자를 적으며 통일을 염원하고 다음 사람이 이어 적는 릴레이 사경이다. 앞사람에 이어 한 글자를 적고 옆에 '평화통일'이라 새겨진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다시 사경 동참자 인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경이 신기한 듯한 표정이지만 장병들은 서툰 붓글씨에 정성을 담았다.

이날 법회에 온 장병들은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맡은 '제1 건설단' 소속이다.

"여러분은 여러 지역에서 차출되어 왔지만 역사의 현장을 일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해. 나는 이곳에서 30년이 넘도록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꿈에서나마 통일되는 걸 보는 걸 보고싶어"

일선스님은 장병들에게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서서 쉬엄쉬엄 이어가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도 윤회의 한 과정에 있어. 꼭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만 윤회인 것은 아니지. 뭐든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앞과 뒤가 있잖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 말이야. 그 인과의 과정이 돌고 도는 게 바로 윤회야. 그리고 원력이란 말을 들어 보았을 거야.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원력인데 생각으로 원하기만 하고 행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원력은 이뤄질 수 없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원력이야.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이 바로 통일을 이루는 길이란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 여러분이 공사를 하는 길에는 그런 염원이 가득하게 맺혀야해. 그래야 통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 이 늙은 스님의 당부야."

일선 스님은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공사현장에 나갔다. 요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나간다. 통일의 길을 닦는데 구경만 할 수 없었던 것. 스님은 장병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무사고 기원 기도를 한다. 지뢰로 인한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스님은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까지라도 이 공사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는 스님은 어디까지든 따라 가고 싶다.

일선스님은 어찌서 통일을 화두로 삼았을까?

'이루겠다'는 생각·노력이 원력
실천 뒤따르지 않으면 허사

"자비야. 끊어진 땅을 잇는 것보다 큰 자비가 어디 있겠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한 맺힌 눈물을 펑펑 쏟아 내는 걸 봤겠지? 그 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나?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고 끊어진 나라가 이어져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자비지. 바로 그 한 생각을 일으키고 홀몸으로 임진각까지 걸어 온 거야.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난 반드시 통일을 보고 죽을 작정이야. 반드시 내 눈으로 통일을 보겠다는 일념이지."

> 끊어진 땅 잇는 것보다
> 더 큰 자비는 없어
> 꼭 하나되는 것 보고
> 열반에 들고 싶어

하나로 돌아가는 것. 일선스님의 통일염원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도 없다. 오직 끊어진 것을 이어 원래의 모습, 본래의 그 하나로 돌아가길 바라는 일념일 뿐이다. 그래서 서부전선 전체가 도량이고 수많은 장병들이 도반이다.

"불성이 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더럽히면 우주전체가 더러워지는 법. 우리가 지닌 불성을 맑게 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이란 것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든.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들은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가는거야. 하지만 산에서만 도를 구하기보다 속세에서 삶의 고통을 나누며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도 불성을 추구하는 도리일수 있지. 나라의 분단과 거기서 유발되는 민족적 슬픔,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 주는 공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통일이 되어야 민족이 편안해지고, 편할때 도를 얻는일도 용이하게 아니겠어?"

처음 임진각에 왔을 때는 허름한 농가를 빌려서 도량을 삼았다. 3년 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 때 가까이 모셨던 고암 스님이 찾아 왔다. 당시 조계종 종정이었다. 큰스

아직도 구도(求道)하십니까?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고통과 죽음을 초탈한 3일간의 체험

부처님 당시 '미이가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테크닉(방편)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이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약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선망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확실하고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수련과정

本 性 (3일)	無心, 無我, 無分別智, 업장소멸, 최의식소멸
無碍法界 (2일)	不空, 寂滅,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마음의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無上覺 (2일)	거듭남의 비밀, 삶의 기쁨

총마음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임주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혈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불교의식(범음 · 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화두 정진

뵌 큰스님

님 (평화통일사 회주)



◇1975년 고암스님이 조계종 종정당시 5관짜리 동종 마련해주며 기도를 격려했다.

의 방문은 너무나 뜻밖이었는데 정작 놀란 것은 고암님이 준비해 온 종이였다. 다섯 관 짜리 작은 종이었다. 메걸 치면서 기도 하게나." 종정스님이 친히 종을 들고 문해 기도를 격려하니 힘이 절로 솟았다. 그 종을 밤나에 달아 놓고 새벽과 저녁마다 두드리며 통일염원 기를 했다. 어느 날 고암 스님을 다시 만났을 때 "종은 잘는가?"란 질문을 받았다. "예, 그런데 종이 너무 작아 다섯 관 짜리를 밤나무에 달아 놓고 치자니 남들 보기 망해서… 고암 스님은 말을 잘랐다. "아닐세. 종이 크고 좋은 것은 아니지. 작은 종이라도 자네의 원력을 담서 일심으로 치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진동을 한다네. 지런히 정진하게. 내가 여유가 되면 삼천리 강산의 통을 위해 삼천 관 짜리 대범종을 하나 조성해 줄 테니 지런히 정진하게." 그러나 고암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못하고 원적에 들었다.



◇평화통일사는 파주 · 문산지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도량이다. 일선스님이 군불자들에게 1인1자 법화경 사경을 지도하고 있다.

일선스님은?

어린 시절 일본 아이들이 괴롭혀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어느 날 동네에 나타난 일본 순사들이 미워서 흙을 던졌다가 실컷 맞기도 했다. 1932년 경북 달성에서 태어나 46년 달성군 유가사로 출가했으니 세속에서의 추억이란 것은 별 것이 없다. 절 집에 들어와서 해방과 6.25를 겪었다. 6.25 이후에는 대구에서 넝마주의 아이들을 모아 자활운동을 하기도 했다.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정진하며 일타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1972년 임진각에 짐을 풀고 통일염원 기도와 법화경 일인일자 사경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4년에 성자 이차돈 선양회를 조직해 현창사업을 전개했다. 파주 경승실장과 불고연합회장 등의 소임도 지냈으며 서부전선 군불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고암, 일타스님 각별한 인연

서부전선 군포교 활동 전념

일타스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형제의 인연을 맺었던 일타스님은 늘 일선스님에게 '통일보살'이라 불렀다. 전방 부대를 다니면서 포교를 하고 수행일념의 초점을 통일에 맞추고 있는 일선스님이야 말로 통일보살이라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이런 편지를 보내 왔다.

"나는 일선당을 동생으로 삼은 지가 오래 되었다.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법담을 나누며 그 용심을 볼 때 보살행이 분명하다. 서부전선에서 25년이나 걸망을 내려놓고서, 군 관 민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와 전법과 서면포교를 함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피를 뽑고 뼈를 갈아 법화경을 사경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인일자의 사경기도를 권하며 법풍대양(法風大揚) 하니 이는 필시 보살의 행이다…"

만날 때마다 "보살" "통일보살"이라며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던 일타 스님은 "내 자네에게 큰 말을 한 마리 선물해야겠어. 큰 말을 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포교하고 정진하도록 말이야"라고 했었다. 물론 말은 차량을 뜻하는 것. 하지만 일타 스님 역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적했다.

"두 분 큰스님이 나에게는 참으로 많은 힘을 주셨지. 그렇게 도탑게 격려 해 주신 힘으로 지금껏 이 도량을 지키는지 몰라. 나는 제1종 생활보호대상자야. 다달이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포교에 보태지."

스님에게 있어 가난은 친근한 도반이다. 절 짓는 불사에 속가의 문중 돈을 끌어다 썼다. 한 집안에 스님 한명이 나면 9대가 복받는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일요일을 맞아 절에 찾아오는 장병들에게 떡 한 접시와 라면 한 그릇밖에 내놓을게 없는 것은 늘 미안하고 가슴아픈 일이다.

일선스님은 불교는 산중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 산중에서 불교를 구하는 것은 토끼 머리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단언한다. 불교는 세간이 있다는 것이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뒤엉켜 있는 이 세간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곳이므로 세간에서 불교를 구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소를 찾아 길을 들이고 마침내 소로부터 자유로워 진 다음에는 저자거리에 들어 중생과 함께 어울려 그 법향을 전하는 것이 '심우도'의 가르침이듯.

일선스님은 바로 통일이라는 이름의 소를 찾고 있다.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소의 엉덩이짝을 30년이 넘도록 찾고 있다.

"소를 찾아 길들이겠다는 염원이 금생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와서라도 그 소를 찾아야지. 나도 통일의 소를 찾는 일에 혼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어. 물론 금생에 통일을 보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데 난 그 소망이 이뤄지리라고 믿어."

그래서일까? 수년 전 정주영씨가 소 떼를 몰고 북으로 향했을 때, 통일로에서 목탁을 치며 하염없이 염불을 하던 일선 스님의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글=임연태 기자 ytim@buddhap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덕신스님

늘 단정한 두루마기차림에 행전을 차고 투명한 안경을 쓴, 언뜻 보면 비구니스님으로 착각 할 수도 있는 모습이 덕신스님의 첫 인상이다. 몸가짐이나 말소리가 차분하고 그 품성이 고요해서 일생을 계율에 의지해 사는 율사스님과 다름이 없다.

흔히들 덕신스님은 본사가 조계사라고 말하곤 한다.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조계사에서 그 모습을 감추지 않는 까닭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1번지'라고 한다. 그만큼 종단의 행정이나 교육, 포교, 사회, 문화의 모든 일이 조계사에 위치한 총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해 조계사 자체가 갖는 상징성에 기인한 별명인 것이다.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늘 번잡함이 끊이지 않고, 일과 사람이 얽혀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한 곳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덕신스님이 10여년 세월동안 터잡은 것은 일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산사를 품고 산다. '입산(入山)'이라는 말이 출가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이유가 출가의 목적지인 절이 산에 있는 까닭이



고, 산은 대다수 스님들의 첫 출발지인 동시에 언제나 수행의 근본자리며 마침내 생을 마감해야 할 출가자의 고향인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덕신스님과 자리를 하다보면 스님도 마음속에 산을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사무실과 방에 늘 차를 준비해 놓고 산에 사는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차를 즐겨 마시고, 때때로 대화의 틈틈이 산승의 향기를 짙게 풍기곤 한다.

조계종의 포교국장을 시작으로 문화, 사회 등의 소임을 줄곧 맡아오다가 지금은 총무원 총무국장의 소임을 보는 스님은 일면 행정승일 수 있다. 출가 승려의 입장에서나 종단사정에 관심깊은 불자의 시각에서도 스님들의 긴 행정직 소임이나 도시생활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덕신스님은 스님을 아끼고 존경하는 출 재가의 주변인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스님이 수행의 인연을 더 깊이 맺어서 훌륭한 도인이 되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법맥을 잇는 우리 불교의 큰 동량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혹 도시생활에 발목을 잡혀 큰 뜻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덕신스님이 조계사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도시생활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종단의 특수포교 분야에서 그 역할이 지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포교를 선도하는 '원심회'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을 맡고 있는 '풍경소리'는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심의 힘이 그 든든한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강원도, 충청도 등 원근을 가리지 않는 교도소 법회활동과 청년회, 대학생 등 청년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각별하다. 이같은 법회와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덕신스님을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다. 스님은 이미 보통 스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관심을 아끼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스님들을 모아 포교와 전법의 인연을 만들어가곤 한다. 진지하고 쉼없는 스님의 보살행에 주변의 선후배 도반스님들도 가히 작은 동참을 사양할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느 덧 포교의 일선에 서게 된다.

조계종의 총무국장으로 종단 및 불교계의 주요 행사에 진행과 사회를 맡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덕신스님은 늘 수수하고 소탈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행사를 진행할 때는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허

긴 행정 소임에도 산승의 향기 가득

'원심회' · '풍경소리' 버팀목 구실

용을 않아 늘 단정하고 깔끔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실수가 없다. 일을 준비함에 혹 토론이나 논쟁이 있어도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정리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뿐, 쉬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덕신스님은 언제나 바쁜 일정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개인사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종단의 주어진 일속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의 불자들과 신행모임의 법회와 행사를 돕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스님은 보살심을 가진 공인으로 살아가는 한 전형을 보여준다.

근래에 생긴 덕신스님의 카페에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는 스님의 흑백사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출가스님의 은은한 수행상과 정진의 일념이 스님의 이미지를 담백하게 전달한다. 이곳은 덕신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잔잔한 삶의 인연을 담담하게 나누는 곳이다. 스님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따로 홍보를 한 일도 없는데 알음알음 가입한 회원이 짧은 기간에 이미 백명을 넘기고 있다. 법당에서 현장에서 나누지 못한 스님과의 교감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때로 스님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투정도 하면서 젊은 네티즌들이 스님과 불법의 인연을 곱들여 나가는 열린 법당이며 도량인 것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新構!!!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ㅁ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미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ㅁ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 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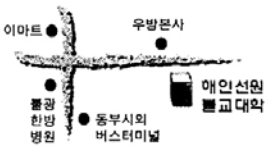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안 평 불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 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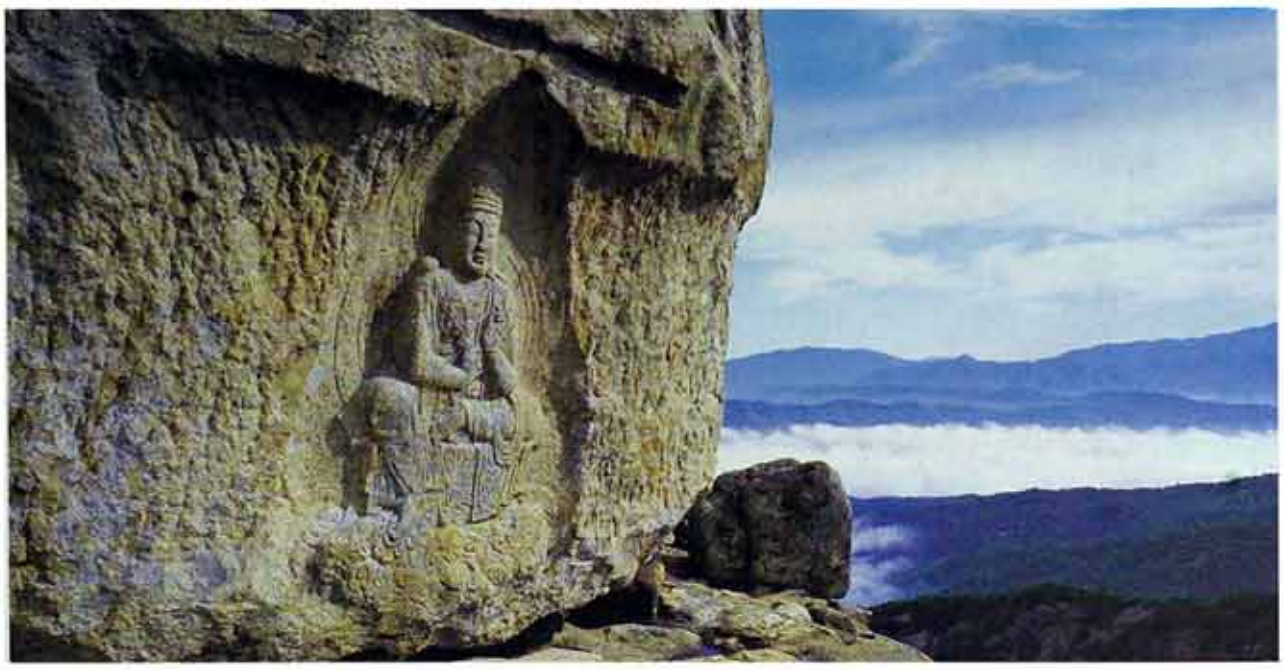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안정헌씨의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좌상'(보물 제199호) 마애보살상이 산허리에 걸린 구름을 뒤로 한 채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

한국 세계문화유산 한곳에

신라문화원 전시관 개관 '안장헌 사진전'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한자리에 모인다. 신라문화원 전시관 개관기념으로 30일까지 열리는 '안장헌 사진전'에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0번 전시회에서는 '종묘', '창덕궁',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남산', '팔만대장경 판전', '수원 화성',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지구' 등 7곳에서 촬영한 35점이 벽에 걸린다. 이중 '석굴암 본존불'은 안장헌씨(56)가 81년부터 10여차례나 오르내리며 건져 낸 안씨의 대표작이다.

안장헌씨는 "딱딱한 화강암에 불심과 생명력을 불어넣은 석굴암은 가히 세계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표현해도 과찬이 아니다"며 "본존불은 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우러러 볼 때가 가장 거룩해 보인다"고 말한다. 또 안씨는 "석굴암에 조각된 불보살님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화강암의 조형물들 속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정성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주남산 등 7곳 35점 전시

현장감 묻어나는 사진미학 구현

불국사 경내 구품연지가 있던 자리에 있는 '석조루'도 오랫동안 눈길을 잡아두는 작품이다. 올해 8월말 태풍이 몰려왔을때 찍은 이 작품은 물보라가 튀는 것까지 생생하게 담아 생동감이 넘쳐난다. 이외에도 팔만대장경 판전과 창덕궁, 수원 화성의 결과 속을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살감(?)할 수 있다. 또 고인돌(적석묘)은 남방식과 북방식을 비교 감상하면 흥미로울 것 같다. 이번에 전시회를 연 안장헌씨는 1973년부터 우리문화유산을 테마로 작업을 해 왔으며, 사진집으로는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禪)의 세계'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개관한 신라문화원 전시관은 지하 50평 규모로 전지크기(60㎝×60㎝) 40여점을 전시할 수 있다.

김주일기자

'목아 박찬수 전승전' 30일까지

박찬수 전승보존회 작가 26명 참여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은 목(木) 조각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木彫匠)이다. 박씨의 아호 목아(木芽)는 '잘린 나무에 눈을 틔운다'는 뜻. 수준 높은 불교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절을 찾았을 뿐 아니라 故 이기영 박사에게 불교 교리를 배우기도 했다. 이렇게 목조각의 길에 들어선 지 올해로 어언 40년째다.

박찬수 관장을 중심으로 전통 목조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박찬수 전승보존회가 30일까지 여주 목아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목아 박찬수 전승전'을 연다. 이 전시회에는 박찬수 관장을 비롯해 이진형, 양봉철, 우백원, 정운복 등 26명의 목조각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중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박찬수 관장이 비자나무에 조각한 '아미타좌상'이다. 우선 빨갛게 채색된 세겹의 연화대가 돋보인다. 그 위에 봉안된 아미타좌상은 금박을 입혀 가까이 가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목불상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다.

정운복씨의 '석가모니 고행상'도 흥미롭다. 눈이 움푹 파이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행을 한 석가모니의 모습을 조각했다. 나뭇결과 조화를 이룬 갈비뼈는 고행의 강도를 느끼게 해 준다. 금불상처럼 보이는 이진형씨의 '경책관음', 얼핏보면 빼어난 미인이 사유하고 있는 듯 보이는 양봉철씨의 '미륵반가사유상',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김기식씨의 '석가모니삼존불감', 나뭇결의 자연스러움을 잘 살린 김순호씨의 '11면 성관음' 등도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이다. 이진형(박찬수 전승보존회 운영위원장)씨는 "예술혼과 장인정신이 녹아 있는 하나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며 목조각의 아름다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석가모니 고행상 눈길…나뭇결·갈비뼈 조화



◇박찬수씨가 비자나무에 조각한 '아미타좌상'



◇빼어난 영상미 때문에 국제 영화제에서 잇달은 초청을 받고 있는 영화 '동승'에서 주인공 동자승 '도념'이 물을 나르고 있다.

내년 3월 개봉 앞둔 '동승'

해외영화제 초청 잇달아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동승'의 해외 영화제 초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지난달까지 상하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10여개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은 바 있는 영화 '동승'은 이번달 하와이 국제 영화제와 브라티스라바 국제 영화제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예테보리, 2월에는 아노네, 3월부터는 티뷰론, 파리, 트레블링 국제영화제와 타오스 토킹 픽쳐 페스티벌, 릴할드 필름페스티벌 등에 초청을 받아 놓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경중 감독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결국 불교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 사찰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배경으로 결쳐져 해외영화제 관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다"고 잇달은 해외 영화제 초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일기자



◇오명숙씨의 '나한' 사진.

오명숙씨 '나한 사진전'

'나한(羅漢)'은 소승불교에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생사를 초월한 최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성자를 말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고로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작가 오명숙씨의 '나한 사진전'은 나한전에 모셔진 여러형태의 '나한'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십대나한,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등 다양한 모습의 나한이 사진으로 세상에 나왔다. (053)427-5190

휴대전화로 찬불가 듣는다

정율스님 2집음반, 통화연결음 서비스

성악가 정율스님의 찬불가를 휴대 전화기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제공업체 스타링은 4일부터 정율스님의 2집음반 '노래로 하는 기도'의 전 수록곡이 휴대 전화기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원하면 모든 휴대전화기에서 이동통신사의 인식번호 없이 700-7788, 700-7979로 접속해 통화연결음 가입인증 신청을 거쳐 종교음악 코너에 들어가 음악을 다운 받으면 된다. 이때 약 30~40초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된 음악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정율스님은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다른 종교음악은 종류가 다양한데 유독 불교음악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포교 차원에서 결심하게 됐다"며 "특히 2집 앨범은 모두 내가 작사 작곡한 것이라 저작권에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해 2집을 서비스 음반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율스님의 두 번째 앨범에는 '아미타불 정근송', '광명진언 기도송', '약찬게송' 등 8곡이 수록돼 있다.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시고!
신도 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시방세계가 불국정토를 이루옵길 발원하옵니다.
무릉산 일도사에서는 신도님들의 크신 원력으로 극락보전 상량식과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일본 신도님들의 정성과 한국 신도님들의 정성과 한국신도님들의 원력으로 복지도량을 위한 1차 45평 극락보전 상량식과 12m 산신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신도님들의 가정에 명안하심과 소원 성취를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 아 래 -

◆일 시 :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음력 10월 12일)
◆시 간 : 오전 10 : 00 상량식, 점안법회
오후 12 : 00 국악공연
◆장 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진리 무릉산 일도사
◆연락처 : 영덕 일도사 054)733-8786
서울 자비정사 02)475-8600
부산 팔성관광 051)518-8614
부산 자철표 011)833-0383
당일 서울 조계사 앞 06:00 출발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무릉산 일도사(세계 불교 박물관) 합장

협찬 법당건축 전문 峰榮 建設 어용구 018-404-4926

※ 법회참여시 주지 친필 달마도 증정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단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사슬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환자회개 됨에지며 몸질 영양에서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괴롭힘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감사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한의사) 박동관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방글라데시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랑가마티에 한국절 지어요"

한국불교·방글라 친선연합회 주관

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자리 잡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방글라데시 돕기 바자회'가 열렸다. 식당 주방 일을 잠시 마무고 바지회장을 찾은 이복자(47)씨. 앞치마를 두른 채 물건을 고르던 이 씨가 두툼한 외투를 집어 든다. 이리저리 옷을 흔들어보고 입어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오천 원만 주세요"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른 값을 치른다.



◇6일 서울 종로구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열린 '방글라데시 돕기바자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임민수 기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외투 하나 사려고 왔다는 이 씨는 "좋은 옷을 싸게 사서 좋고, 작은 돈이나마 불사에 보탰으니 더욱 뜻 깊지 않냐"고 말한다.

20~30명의 손님들이 마당 빨랫줄부터 거실까지 가득 찬 옷과 신발, 생활용품들을 고르는 사이 2층 회의실에서는 강의 준비가 한창이다. 조인숙 건축사(다리건축사무소 소장)의 '우리 건축-문화유산 바로 알기' 강좌가 시작하기 때문이다.

11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2시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창덕궁과 후원', '불국사-불국토의 재현과 장엄', '불교건축의 백미-부석사 무량수전의 건축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료 1만원도 기금 마련에 보태진다.

이번 바자회와 문화강좌는 한국불교 방글라데시 친선연합회(회장 고연희, 이하 친선연합회)가 내전과 이슬람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방글라데시 랑가마티에 한국식 사찰을 짓는 기금을 마련을 위해 연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88년 회교국가로 공식 선포된 이후 전인구의 85%이상이 무슬림화 되었고, 1%가 안 되는 불교도 백만여 명이 정부의 암묵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산악지대인 랑가마티에 거주하는 차크마족은 정부의 탄압과 높은 인구밀도, 반복되는 수해와 가뭄, 질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11월 한달간 수요일마다 바자·문화강좌
주말엔 셔츠 등 팔아 재원 마련

친선연합회는 이곳에 강원과 선 센터, 자선병원, 학교와 도서관 등을 갖춘 한국식 사찰을 짓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창립한 친선연합회의 회원은 현재 70여 명. 그동안 기금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 20일에는 '영어로 배우는 불교미술 강의'와 바자회를 진행했다. 영국 캔사스대학 박사과정의 루이스 모리슨씨와 국제포교사 이수정씨가 한국의 탱화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대해 강의했고, 방글라데시 옷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마련했다. 11월 한 달간은 매주 수요일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바자회와 문화강좌를 열고 주말이면 일보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인사동에서 셔츠류 등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고연희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슬람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방글라데시 불자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며 "방글라데시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찰을 짓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방글라데시 친선연합회는 회원을 항시 모집하고 있으며, 바자회에 쓰일 헌옷을 모으고 있다. 기증할 물건은 연등국제불교회관으로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02) 735-5347 후원계좌: 우리은행 118-011600-02-003(예금주 권녕순)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건강단신

퇴행성 질환 무료강좌 개최

고려대 구로병원은 11월 둘째 주를 '퇴행성 질환주간'으로 지정, 14일까지 구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구로구 보건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여성과 노인들에게 흔한 퇴행성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이 소개된다. (02)818-6405~6

난치성 질병 의료비 지원

인천 서구보건소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등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032)560-4551

'폐경 후 행복한 삶' 강좌

대한폐경학회는 11월 한 달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폐경 후 행복한 삶을 위하여'를 주제로 무료 건강 강좌를 연다. 대한폐경학회 전문의들이 폐경기 증후군에 대한 정보 및 호르몬 요법 논란에 대해 설명한다. 080-001-4567

월말까지 성인병 교육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는 이 달 말까지 성인병 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일 보건소 2층에서 고혈압교실과 당뇨교실로 나눠 진행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혈압교실은 20일까지, 당뇨교실은 21일부터 말일까지 열린다. (031)828-4561



◇15부터 열리는 '워킹우먼 리빙페어'에서 선보일 '여성 D.I.Y. 전시마당' 출품작들.

주부창업·재테크 정보 제공

제1회 워킹우먼 리빙페어 15일부터 코엑스서

아줌마들의 축제 '2002 제1회 워킹우먼 리빙 페어'가 15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린다.

(사)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가 주관하고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단순히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도 '워킹우먼'임을 선포하고, 가사노동을 줄이는 생활용품과 편의용품 전시와 주부들의 취미나 동아리 활동을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아이디어 생활용품과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관은 '효율적인 가사노동', '프로우먼의 자기관리', '저금리시대 재테크', '생산적인 여가활용', '가족돌보기'의 5개관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가사노동관'에는 반조리 식품, 배달식 아침식사, 가사편의 전자제품, 홈 클리닝 대행사 등을 소개하고 '프로우먼의 자기관리관'에서는 건강식품, 다기능성 화장품, 여성을 위한 이동통신, 이미지 코디 등

D.I.Y. 전시마당선 직접 제작과정 보여줘

을, '가족돌보기관'에는 완구 대여, 노인 건강용품, 노인시설 등이 소개된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와 실버산업을 소개, 실버 시대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부스도 준비돼있다. 행사기간 동안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관리, 시테크, 이미지 메이킹 등의 교육도 진행된다.

1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여성 D.I.Y 전시마당'은 손뜨개, 퀼트, 십자수, 공예품, DIY 가구 등 여성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53개의 부스에 32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16일에는 여성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당한 문화와 제도를 바꿔보자는 의지를 담은 '바꿔! 바꿔! 가요제'가 열리고 창업지원센터가 '무료 창업상담'과 '재테크상담' 코너를 마련한다.

동아리 활동을 꿈꿔온 여성이라면 아줌마들의 동아리 축제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복싱 에어로빅, 현대무용,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등 아줌마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직접 엿볼 수 있다.

홈페이지(www.zooma.co.kr/work)에서 참가업체와 전시품목, 부스안내도 등을 볼 수 있다. (02)318-2760/ 756-0972.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두부 채소 볶음밥



밥 4공기, 두부 1모, 표고버섯 4장, 당근 50g, 감자 1개, 피망 1개, 오이 1/2개, 애호박 1/2개, 진간장, 소금, 식용류, 양념장(집간장 5큰술, 청·홍고추 1개씩, 통깨 2큰술, 참기름 2큰술)

1. 두부는 으깨어 면보에 꼭 짠 후 맨 프라이팬에 펴서 노릇하게 볶는다. 양이 반으로 줄 만큼 볶아지면 불을 줄이고 진간장을 조금씩 부으며 좀 더 볶는다. 당근, 감자, 피망, 애호박, 불린 표고버섯은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오이는 돌려 깎아 같은 크기로 썬다.

2. 식용류를 살짝 두른 팬에 색이 푸르고 연한 것부터 각각 따로 볶는다. 호박, 오이, 피망, 당근, 감자, 표고버섯 순으로 볶으면 된다. 완두콩을 넣을 경우엔 감자와 함께 볶는다. 대부분 채소는 센불에서 잠깐 볶는데 감자는 약한불에서 오래 볶아야 한다.

3. 팬에 감자와 표고버섯, 밥을 넣고 볶다가 나머지 채소와 두부를 넣고 섞는다. 양념장과 함께 낸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19일~24일 사찰김치엑스포

서울무역전시장서 깻잎김치 등 30종, 무료시식도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02 김치엑스포, 한국전통사찰김치축제'를 연다.

이번 전시기간에는 가죽김치, 깻잎김치, 갓김치, 쓈바귀김치, 고들빼기김치, 도라지김치, 죽순김치, 우엉김치, 연근물김치, 취나물김치, 백김치 등 담백한 사찰약용 김치 30여 가지가 선보인다. 행사에 참가하면 모든 김치를 무료시식할 수 있다.

또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계절별로 살펴본 전통사찰김치',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약용 및 건강식으로써의 전통사찰김치'를 주제로 한 무료공개 강좌가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에서 열린다.

(02)355-5961 김주일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연 인-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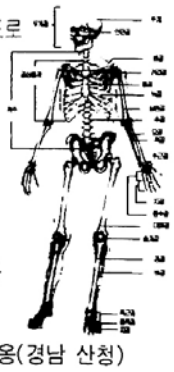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위치 안내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천상의 만남
영혼결혼
[중매에서 결혼식, 천도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 가족협회는 뜻하지 않는 사고나 병환, 자살 등으로 세상을 떠난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서 영혼결혼식이라도 해드리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국내 처음으로 영혼결혼 전문 예식장을 갖추고 지금까지 약 300쌍을 주선하여 전국의 부모님들의 격려와 성원속에 2002년도 마지막 영혼 결혼식을 올릴 남, 여 영가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직업은 농부에서 의사, 박사까지 나이는 10대에서 80대까지 가능하며 국가 유공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절차는 나이, 학력, 직업, 집안, 사주궁합 등을 고려한 후 양가 집안 부모 형제들이 영가의 사진과 호적등본 1매를 가지고 직접 맞선을 보게 한 후 혼사 여부를 결정하게 하므로 호응이 대단합니다.
접수신청 02)835-9797
한국가족협회
인터넷 www.hankukfamily.co.to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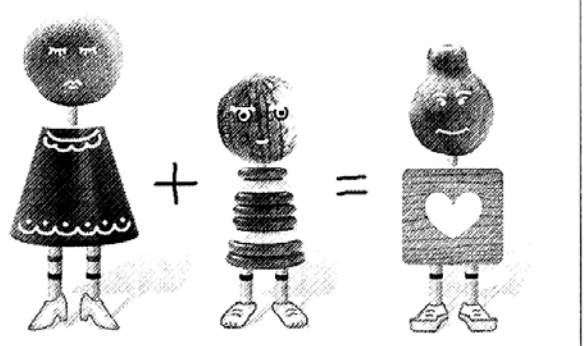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자녀와 성격차이 이렇게 해결해요

MBTI로 푸는 심리궁합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김모 씨. 조용한 성격에 매사에 신중한 김 씨는 호기심 많고 감정이 풍부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딸의 모습이 여간 마뜩찮은 게 아니다. 산만할 뿐 아니라 과제 해결 능력도 떨어져 보이기만 하다. 속제도 하지 않고 TV와 인터넷 오락에 빠져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기관을 찾은 모녀는 성격유형검사인 MBTI를 통해 서로가 정반대의 성격 유형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인 김씨는 '내향형', '현실감각형', '합리적 · 논리적', '목표 계획 추진형' (ISTJ)인 반면 딸은 '외향형', '미래 직관형', '관계 지향적', '자율 개발 수용적 유형' (ESFP)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김씨는 딸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체 자신과 같은 행동양식만을 요구했고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주눅이 들었다.

상담을 맡은 자양사회복지관 송문용 상담원은 "부모가 자녀의 성격은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METI 검사를 통해 '왜 서로가 다른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아이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심리학자 융(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리그스와 그의 딸 이자벨 마이어스, 그리고 손자인 피터 마이어스가 3대에 걸쳐 연구 개발한,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유형 모델이다. 이 검사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인식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판단기능)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성향은 4가지의 척도에 따라 나뉘게 된다.

◆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Extraversion(외향)-Introversion(내향).

◆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Sencing(감각)-iNtuition(직관).

◆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따라: Thinking(사고)-Feeling(감정).

◆ 삶의 방식, 행동양식에 따라: Judging(판단)-Perceiving(인식)

이 8가지의 성향 중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를 조합해 16가지 성격유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MBTI 검사를 통해 아들이 소심하게 보여서 늘 걱정이었던 외향형의 부모는 내향형인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소란스러워서 과잉행동이 아닐까 의심하던 부모는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외향형 아들의 활동성이 부담스러웠던 것임을 알게 된다. '왜 엄마는 요리에 관심이 없고 가정에 소홀하냐'고 잔소리를 하던 자녀 역시 부모의 성향을 이해하게 된다.

4가지 선호지표 조합-16개 성격유형 도출

서로 다른 성향발견, 대화와 이해 출발점

아이들 개성 · 성격 존중하는 법 배워야

하지만 검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간의 집단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바라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화 방식도 변화시켜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와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듯 MBTI 검사는 성격유형에 따른 개인의 성향을 알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부모와 가족, 친구, 동료 서로간의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갈등의 처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검사는 심리상담소나 복지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훈련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도 움 말 = 한 국 M B T I 연 구 소 (www.mbti.co.kr), 한국심리검사연구소(www.kpti.com)

어수령 기자

행복한 소식

◆베이비시터 무료교육=부천 시니어클럽이 베이비시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만 5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30명을 선착순 신청 받는다. 교육은 26~29일 매일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 수료 후 취업 알선도 해준다.(032)684-4108

◆중풍교실=경희대의료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시 40분,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 오후 3시 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중풍교실을 연다. 중풍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과 재활요법에 대해 강의한다.(02)958-9128

◆이 · 미용 서비스와 한글교실=부산 개금복지관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한글교실'을 연다. 또한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무료 이 · 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051)893-5034

◆요리강좌=옥수종합복지관은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다양한 중국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장면, 마파두부, 짬뽕, 깐쇼새우, 달걀탕 등을 배워본다. 수강료는 월 2만원.(02)2282-1100

◆내면의 소리 듣기 특강=서울 능인복지관은 1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내면의 소리 듣기' 강좌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참가비는 2만원. (02)571-2988

단골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일초를 다투는 출근길. 전철 한 대만 놓치면 여지없이 지각을 할 상황. 그래도 신문은 사지 않을 수 없다. 한 시간씩이나 멍청히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럴 때 '단골'의 위력이 빛을 발한다. 가판대에 앉은 사람과 눈만 맞춰도 늘 보는 신문을 재빨리 건내주기 때문이다. 신문 사느라 허겁지겁하는 일 없이 날렵하게 전철 안으로 골인. 다음날 여유 있는 출근길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도 기분 좋은 웃음으로 출근길을 즐겁게 해 준다.

느긋한 토요일 오후 퇴근 길. 낙엽 밟는 소리를 느끼는 순간 문득 진한 커피향이 코끝을 맴돈다. 자연스럽게 발길은 늘 가는 커피숍으로 향한다. 마침 늘 앉던 자리도 비어있다. 사람 좋은 주인과 눈인사를 나누고 나면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늘 마시던 커피를 갖다 준다. 굳이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하지 않아도 그는 내 마음을 안다. 아주 고마워한다는 걸.

단골. 말 없이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어찌 즐겁지 않은가.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짓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야속한 시어머니

결혼 한지 3년이 되었다고 하는 30대 초반의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생머리를 뒤로 묶고 테가 굵은 안경을 쓰고 있는 부인은 언뜻 보기에도 매사에 분명하고 조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부인은 뭔가를 탐색하듯 방을 둘러보고, 제 얼굴을 살피고 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벽촌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전교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인은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에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늙은 부모님이 자신을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부인은 부모님을 졸라서 한 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마련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마련한 방법이 빚이었기 때문에 부인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거액에 해당하는 빚을 늙은 부모님에게 지워 놓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인 생각은 서울에만 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지워드린 빚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와보니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여의치 않았고 학교 공부를 따라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불안 속에서 한 학기를 보내야 했고 여름방학을 맞아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 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혼자 힘으로 서울 바닥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결국 명문여대를 1학기 다닌 것을 끝으로 자신의 학창생활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부인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좌절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지워드린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부인은 그 후 개인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보니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시어머니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과 비교해 특별히 더 잘산다고도 할 수 없는 시댁 형편인데도 시어머니는 늘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러 모아서 칼국수, 부침, 수제비등을 해 먹으면서 태평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점심 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고, 버스 값을 아끼기 위해 한 정거장을 걸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집에 계신 시어머니는 태평스럽게 매일 동네 사람들한테 점심을 해 먹이고 있으니 너무도 속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길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젠 야속하다 못해 주책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한참 더 얘기하고 난 부인은 아이 교육도 있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라도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와 부딪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서로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무슨 가게를 하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밑천이 없기 때문에 물건 값이 많이 투자되는 가게는 할 수 없고 김밥집을 할까 했는데, 요 근래에 김밥집이 새로 생겨서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과 같이 부동산중개소 같은 걸 해보시지 그러세요. 동네 길흉사를 도맡아 처리하시는 어머님이라면 동네일은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환하게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격시험은 부인이 보시고요."

제가 부인을 쳐다보며 웃자, 부인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건 값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으니 특별히 손해 볼일도 없고, 달동네긴 하지만 고객도 이미 확보돼 있는 셈이고요."

부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야속하고 주책으로만 보이던 시어머니가 고마운 시어머니로 며느리 가슴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지기를 빌었습니다.

化緣 (02)704-3577

집안형편 나몰라라…태평스럽기만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曉史塾」 제 4기 강의 안내

◆ 강의시작 : 2002년 12월 6일(금요일) 오후 5시 부터 매주 4시간씩
◆ 등록마감 : 2002년 11월 30일까지
◆ 등록비용 : 일백오십만원(카드결제 가능 : 효사육임강의록 교재 포함)
◆ 기 간 : 3개월 13주 52시간

정통 육임강의 제4기를 모집합니다.
3개월 공부를 마치면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 육임학회에서 시행하는 「육임고시」를 치른 후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회원으로 영입된 후 정통 육임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육임은,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전단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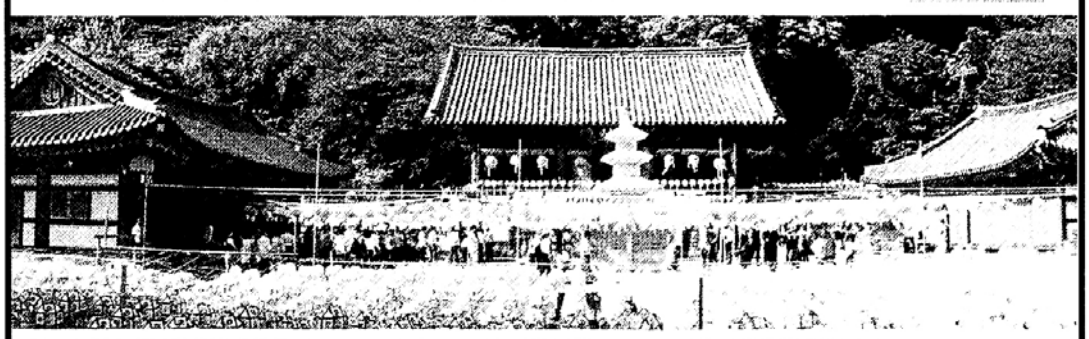
육임학당 강주 효 사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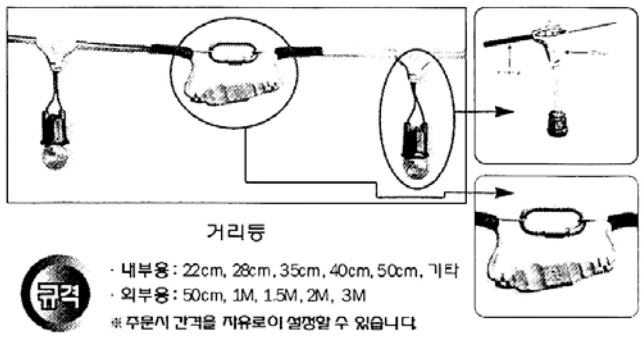
직통 02 - 996 -3335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삼 보 전 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상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내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야 오고 가는 것 통신할 수 있어

이번에 포항 지역의 여러분과 더불어 이곳 비치호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애들 쓴 것 같고, 모두 한마음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안식을 마쳤습니다. 점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진정한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큰스님네들께서 점안식을 하실 때 귀를 뚫고 눈을 뚫어서 모든 중생들이 오게 되면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해서 이롭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모든 일체를 다 갖춘 장엄하신 부처님께서 점안을 하셨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면과 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점안을 하시면 '사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예전에 돌부처라도 그렇고 점안식을 한 부처님은 끝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말과 말로 전달을 해서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그저 만들어 놓은 걸 사다 놓고선 점안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불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하면은 절대로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의 50%만 갖고 산다면 정신세계의 50%가 걸려서 여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맥만 있고 정맥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 거고 정맥만 있고 동맥이 없다면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살수가 없죠. 안에서도 그렇듯이 바깥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서로 말로 통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거저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서 잘 행해야 됩니다.

자기 몸은 나무와 같고 영원한 자기 뿌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만이 자기를 살립니다. 그래서 딴 나무를 아무리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분과 에너지를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뿌리만이 흡수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시주를 하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였다 하더라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양무제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 모두가 이 도리를 알고 행해야 나한테 공덕이 있고 이득이 있고, 나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타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자만별로 각자 모두, 여러분이 뿌리가 있듯이, 또 풀 한 포기라도 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뿌리만이 제 나무를 위해서 모든 흡수를 해서 살립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죠.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수화풍을 먹고살고 지수화풍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거죠.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내 몸 안에 지금,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생명이, 모습과 의식이 있습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성 · 유전성 · 업보성 · 세균성 또는 생사 윤회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도 애고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입력이 돼가지고 현실에 그 입력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항상, 네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뿌리에다가 놓고,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하구 거기다 직접 직결해서 놔야: 거기서 통신이 돼서 두뇌로 올라가서 두뇌에서 대뇌를 통하고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은 그 통신이 되는 대로 작용을 해줍니다. 작용을 해주면, 작용을 해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이기 때문에 다스리라는 소립니다.

다스린다는 게 별난 게 아닙니다. 좋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맺고,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생긴 거다, 누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림 · 최주현

나로 인해서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고 내 뿌리에 모든 것을. 헌 물이 나오면 새 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돌려놓는 방법을, 그래서 한 구녕으로 넣고 한 구녕에서 나온다, 이런 말 있죠. 내면 한 구녕에다 넣고 한 구녕에서 베풀어진다. 넣고 꺼내는 건 한 구녕이지 두 구녕도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포항의 여러분한테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여기는 아직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담겨질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담겨질 것입니다. 큰 거를 아무리 쥐봤던들 그릇 위로 모두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것은, 산과 들과 물이 있고 허공에는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따로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산도 그렇고 들에도 우리가 한발 딛고 다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에서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감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몸에서 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뿌리에 합류화시켜서 모든 것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몸을 위해서 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소인에 불과하죠. 대의적으로 우리가 근본에서 자아내서 즉 샘물을 퍼 써야지 묵은 물에서 퍼 쓴다면 그거는 썩은 물을 먹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그 기를 빼지 못해서 그냥 병이 나는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물이 들고나고 해서 기를 조절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근본 자리에서 나고 드는 것을 자유자재권(自由自在權)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가 떨어지면 기를 넣고 자기 마음대로죠. 컴컴하면 스위치 올려서 전기 불을 켜고 들어가듯이, 또는 켜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끄고 들어가듯이 자유자재권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풀 한 포기라도 전체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거를 전체 합해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와 수분을 흡수시켜서 나무 위로 올려보낸다 이 소립니다. 나무 위로 올려보내면은 나무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무들은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또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전달을 하고 이어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산천초목은 어떠한 풀 한 포기라도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또 우리는 그네들한테 이익을 조달합니다. 대변과 오줌 같은 것을 다 줍니다. 자동적으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준다 안 준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공기를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우리한테 또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벌어먹는 것만 알지 그 벌어먹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고 어떤 것을 대치해야만이 모든 걸 타파해 나갈 수 있는지 원천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불(佛)은 모든 일체 생명을 말합니다. 교(敎)는 말로 전달이 되고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 전부 조달이 되는 것을 교라고 그립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라 해도 불교 안에 있지 불교는 어떠한 사람이, 사람의 개별적인 어떠한 이름이 아닙니다. 천체적인 진리를 이름해서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은 볼바퀴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 볼바퀴가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근본적인 뿌리 그 자체가 볼바퀴니까 모든 걸 볼바퀴에다가, 즉 말하자면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 세균성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다시 환원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와 배추가 있으니까 그냥 넣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천차만별의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듯이, 여직껏은 요리를 해보지 못해서 맛있게 먹지를 못했지마는 인제는 알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법을 다 여기 스님들한테도 물어봐서 관(觀)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 자기 뿌리에서 비롯 나온 곳에 되놓고 다스려야

누구에게나 불바퀴 있으니 일체를 맡기고 관하세요

그런데 물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까? 물에서도 여러 생명체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까? 그 모든 모습의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다. 우린 뭐 주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 대변과 소변, 또는 정신력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럼으로써 바다에서는 반 이상 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태양력과 태양열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람이 일고 태풍이 붑니다. 그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밑에서 사는 고기들도 다 살기 위해서 마음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까지 다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래서 물을 환원을 시켜야 살 수 있는 거죠. 태양열과 공기와 모든 것이 다 서로 살기 위해서요.

그거는 어떠한 관계상 그렇게 되나?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달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들과, 아니 벌레, 곤충들은 촉각이 아주 잘 열려서 금방금방 대치를 하고, 앞으로 내다보고 그러는 것은 대치를 하고, 사는 방침을 세워야 하니까 그렇게 됐지만 인간은 촉각이 발달이 된 게 아니고 내다보고 우리가 가는 그런 느낌과, 즉 말하자면은 여섯 가지의 대치를 해서 감각 · 촉각 · 시각 등 여섯 가지를 다 합해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깊게, 이거 말로 하려면 어렵지만 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촉각보다도 더 총 합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뿌리를 믿는 데서 조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다 알고 앞날도 현재 요 시간 넘어서 거기서는 스스로서 알게 하고 스스로서 가게하고 스스로서 완화시킵니다. 그러니 몸과 정신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 생각을 해내지 못한다면 목석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몸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교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무슨 불교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모셔놓은 부처님의 형상을 나를 떠나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모두가 있는 거니까 나부터 알아라, 나의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놔야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해야 뭐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로부터다, 내 주처는 나한테 있다, 나의 뿌리는 나한테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들과 물과 산, 허공의 생명까지도 모두, 즉 말하자면 고기 잡는 거 뭐죠? 그물! 한 손으로 그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손으로 그물을 들어서 그물 드는 게 하나로 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도 대치하는 것은 스스로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서 손 없는 손이 발 없는 발이, 즉 말하자면 내 마음의 주장자가 하늘을 받치고 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이나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를 믿고, 상대의 뿌리와 이름을 찾고, 다른 나무의 이름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들이니 뭐가 전달이 되고 뭐가 이익이 있고 뭐가 공덕이 되겠습니까?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모두 뭉쳐서 서로 너나가 없이 해주는 그런, 아픔도 둘이 아니게 서로가 알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시주를 했는데도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이게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복덕은 우리 사는 데에 아주 기간이 짧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덕하고 공덕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복덕은 잠시 잠깐 그저 불 반짝 켜주다가 꺼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세세생생입니다.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의 밝음을… 언제라도 꺼진다 켜진다 이런 것이 아닌 밝음의 세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돼야지 복덕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면의 자기 자성을 믿는데, 자성의 뿌리로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혼자 먹는 건가? 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나, 일한 것도 혼자 했나? 언제든지 말은 좋게 하죠. '내가 죽도록 애를 쓰고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참 내! 아니 혼자 벌은 게 어디 있어요? 수십만 명의 생명들, 의식들, 모습들이 한데 작용을 해줘서 자기 몸 하나가 움죽거려서 벌은 거지 혼자 벌은 게 어디 있어요?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벌은 게 어디 있고, 혼자 듣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만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걸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들 좀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건덕지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세워서 '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으면 업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반야심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 팔만대장경을 축소해서 한데 합쳐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글자 풀이로 해서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어떤 경을 막론해 놓고 달달달 외우면 무슨 공덕이 들어올 줄 알고 그냥 아침저녁 염불을 하지 않나, 절을 하지 않나, 별거를 다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시일내의 복이지 세세생생 벗어나는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생을 사는 게 한 철 왔다가 가는 겁니다. 마음은 영원하지만 모습은 한 철입니다. 마음의 차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리를 벗어나서 알고 본다면 살고 죽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질문자1: 스님의 법문을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인연, 또는 죄업이 전부 다 젖어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문제와 그 다음은….

▲스님: 먹는 것도 퍼 넣으면 체하지 않아요? 따지고 본다면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분담이니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랬으면 업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업 붙을 자리도 없고 애고 붙을 자리도 없고 병고 붙을 자리도 없는데 여러분의 관습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사를 가는 데 손이 있다지?' 하는 요 생각부터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무슨 공장을 해야 할 텐데 고사를 지내야 된다더라.' 하는 요 습관, 또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하는 그 습, 착! 이 모두가 여러분 머리 속에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던가요?

이 허공은 탁 터졌어요. 지붕도 없고 상하 사방이 툭 터졌어요.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지금 마음으로 집을 갔다 올래도 갔다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서 저 달나라, 태양, 다른 혹성에 한 찰나에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음이에요.

한 옆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가고 옴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심성 안에 천안, 이 보이지 않는 눈은 가서 천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끌어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습 때문이고 그 어리석은 의심 때문이고 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나가는 게 이러니까 이러해야지.' 이것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몸 안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의 의식들이 들어 있다, 그것이 쉴 사이 없이 좋은 거 할 때는 좋은 것이 나오고 언짢게 한 거는 언짢게 나오고 수시로 나오는데 나오는 그 구녕에 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습니까? 일체를 다 거기다 넣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네가 한 것이니 네가 해결해야지.'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다시 놓으라는 소립니다. 놓고 굴림을 알아라. '고가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애고가 없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되돌려 놓으면 입력돼서 술술 나오

☞ 26면으로 계속

공심의 도리 알고 행해야 공덕 있어

☞ 25면에서 계속

모두가 나로부터이니 나부터 알라

던 게 다시 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된 것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질문자1: 사람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 · 닭 · 소, 이와 같은 동물도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에 사람으로 한 번씩 되었는지 또 다시 죽어서 앞으로 사람이 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그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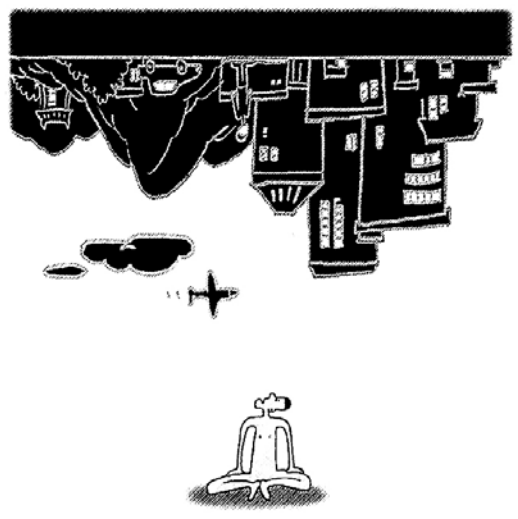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렇게 하십시다. (대중 웃음) 허허허. 물이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악과 선을 다 거기다 놔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습이 주어지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주어지니까, 현실의 미래가 현실로 다시 오니까 그 모습을 가져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에 든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은 모습을 만약에 독사로 가지고 나왔다 하면, 독사로 태어나면은 독사의 습이 그냥 배서 당최 인도 환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독사로 수없는 나날을 돈다, 개구리로도 되고, 오간지옥이다 한다면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사는 벌레 있죠? 그러니까 국내 밥내도 못 맡는 그런 곤충이 된다, 이건 오간지옥의 골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순간순간 바뀌집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도 내가 잘하면 잘한 게 오고 못하면 못한 게 금방금방 옵니다. 그건 에누리가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잠깐잠깐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서 회사도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는 그 도리가,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 걸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질문자1: :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요?

▲스님: 실제입니다! 아니, 실지지 실지 아닌 걸 어떻게… 방편입니까, 그게? 정말 실지입니다! 정말 에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알아보면은 자기 뿌리와 현재 자(子)가, 즉 말하자면 전자에 살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父)와 현재 자기 자(子)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1: 부처의 구원은 육체가 멸한 후의 그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지, 즉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아버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살이를 하시죠? 만약에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가방을 싸 짊어지고 나갔다 한다면 아버지가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다간 부러지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잘 해서 오게끔 만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싸 짊어지고 나간 놈이 나가서 행동을 해보고 '아, 이건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본인이 알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러짐이 없이 다시 돌아서 들어오게끔 살리시는 겁니다, 건지시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바가 없느니라." 한 것이 뭐냐? 가는 거를 잡지말고 오는 거를 마다하지 마라. 가는 거를 그대로 둬야 막다른 골목인 줄 알고 다시 되돌아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왜?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잘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하는 사람도 항상 잘하기만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나간다면 이익 하도록, 남과 나가 이익 하도록만 이 끌고 간다면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 할 바가 없느니라." 한 것은 우리 단시일 내에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를 비유해 볼 때 그거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겠다, 고것뿐이 아니죠. 요거는 요렇게 하겠다고 그냥 악착같이 들 때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내버져둬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보면은 또 싸 짊어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구선 들어오게 되는 이치가 많죠. 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 달아나가는 그 마음 자체, 막 들이댐비고 화내고 그럴 때고 때를 말하며, 인연 없는 중생을 어찌할 바가 없다고 하나 끝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인제는 고렇게 잘못하던 아이들도 잘할 수 있다. 앞으로 그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인연에 따라서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느긋이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질문자2: 스님 법문을 이곳 포항에서 들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 생겨서 더욱 고맙구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공부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저놈들도 자기 씨앗이 있겠지.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걸 보면 저 애들도 자기 씨앗은 있지만 내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씨앗이 잘 트도록 물과 거름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그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는 물과 거름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이 불이 여기 세 군데 들어왔지? 우리 여럿이 다 같이 앉았는데 밝게 앉았죠?

▲대중: 예.

▲스님: 그런데 전력은 똑같아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응? 씨앗은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자가발전소는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불을 켜고 안 켜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 있지? 그러니까 마음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전달이 될 수 있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아, 조놈들 저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말로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앗이 커지고 싹이 커지지.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 가지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은 항상 그 씨에 수분을 주고 흙을 골라주고 해서 그 싹을 틔어주는 거라고, 싹을 틔어주고 고 다음엔 그 싹이 길러지는 거를 말하지. 그러니까 잘해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는 우리가 한 스위치만 이렇게 올려도 불이 전체가 들어와서 밝게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스위치는 그렇게 모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님이 고것쯤이야 연결이 안 되겠소? 허허허.

▲질문자3: 집사람이 일주일 전만 해도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여기 포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하하하. 그것 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조달이 돼 가지고 안에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는 데는, 병원에서도 전체 연결을 시켜서 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병고가 나왔는지, 병고는 똑같지마는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계의 50%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 물질계의 50%만 알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게 많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 나처럼 못난 사람을 볼 때는 너무도 가슴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어려요. 이것이 내가 못난 건지 잘난 건지는 모르지마는 인간 삶이 돌아가는 본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노릇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는 자나깨나 쉴 사이가 없고, 자나깨나 정신력이 항상 그대로라야 되겠죠. 천차만별로 들고나는데 말입니다. 새 물이 들어왔다 헌 물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새 물로 갈고 이렇게 연방연방 대치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시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사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준 사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영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만금을 갖다줬어도 나는 한푼도 받은 사이 없습니다.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돈 갖다 준 예 있습니까? 물건을 가져왔는데 물건 사러 갔으면 물건 사 왔으니까 돈 준 사이가 없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돈 받은 사이가 없죠. 준 사이도 없고 받은 사이도 없어요. 요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조사께서 말입니다. 누가 천도를 시키러 오니까 재비를 가져온 걸 가지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방을 못 얻어서 거리로 나앉아서 모두 옹기종기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쥐 가지고 방을 얻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갔다가 못 사고 그냥 왔는데 아, 천도를 안 시켜 주느냐고 자꾸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도를 안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로 돈 가져가라 한 거죠. 나도 그래 본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하하하.

오늘도 그런 뜻에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정성과 결단이 아즈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룬 그 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내가 감사할 건 없지만 말이에요. (합장하시며) 하하하.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여래가 되셔서, 하하하, 질문하실 분도 없으신가 봅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를 참작하셔서 병고도 애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그렇게 수십 억의 모습과 생명과 의식이 있고,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거기서 한 거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기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지난 호 길을 묻는 이에게는 질문과 대행스님의 답변이 실렸으나 편집상의 실수로 법형제법회 안내문이 게재되었기에 정정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승 복 법 복 안 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 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 름 섬 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황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않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통간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불교 이래서 좋다

오경미 대우종합기계 사원

"엄마 품 같은 푸근함 안겨줘"



어린시절 독실한 불자이신 할머니와 어머니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는 사찰 탱화에 나타난 신중, 사천왕 등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절에 가기 싫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PC통신 나우누리 부처님마을과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통신 동호회라는 신세대적인 모임은 어른이된 저에게 불교를 다시 알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스님과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한달에 한번 법회를 통해 부처님 말씀도 배우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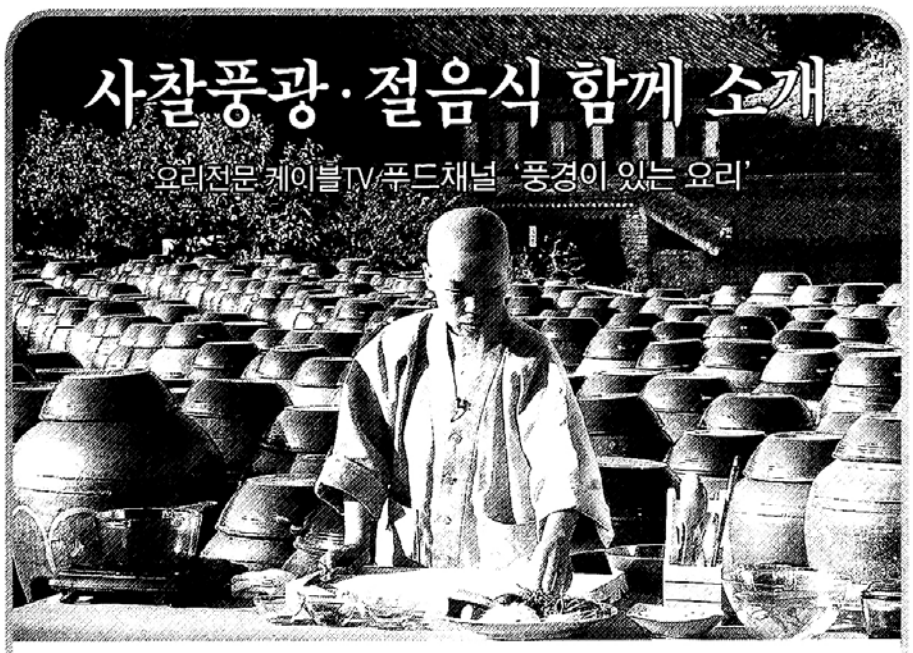
저는 인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가상공간에서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난 것은 정말 대단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PC통신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만난 법우들은 얼굴도 모르고 만났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왜 좋냐고 묻는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것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마음맞는 법우들과 서울 인근 사찰을 참배하곤 하는데 그냥 마음이 푸근합니다. 엄마 품 같다고나 할까요.

최근에는 바쁜 회사 업무나 기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법당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마음이 어지럽거나 힘들때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편안해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절 입구에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천왕도 정다워 보입니다.

사찰풍광·절음식 함께 소개

요리전문 케이블TV 푸드채널 '풍경이 있는 요리'



◇서운암의 5천여개에 달하는 된장 항아리 앞에서 버섯덮밥과 무청된장무침을 만드는 홍승스님.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요리프로그램은 맛이 없다. 야외에서 아름다운 사찰 풍광과 함께 사찰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음식을 맛있게 소개한다.

불교인터넷TV에서 제작하고 요리전문 케이블TV 푸드채널에서 매일 오후 7시30분에 방송하는 '풍경이 있는 요리'는 전국 각지의 사찰들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음식 포교를 펼치고 있다.

진행자 홍승스님은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것은 전문 요리사가 하면 되는 일"이라며 "사찰음식 조리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찰 이모저모를 동시에 알리는 사찰문화포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힌다.

스님의 이런 생각은 제작팀의 포부와 일치한다. 쉽고 부담없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문화 코드를 사찰음식으로 잡은 것. '풍경이 있는 요리'가 "사찰문화 전달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제작진은 확언한다.

영암 망월사에서 2회, 월정사에서 2회분이 방송됐고, 18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통도사 산내암자 서운암에서 촬영한 버섯덮밥이 전파를 탄다.

스님 및 제작팀 야외촬영 고수

만든 배경에 불교정신 담아

문화소개·비법전수 프로그램 다양화

촬영 현장에는 고충도 많다. 망월사 편의 경우 한창 더운 8월에 제작됐다. 때문에 땡볕에서 요리 촬영을 하다보니 스님의 정수리가 까맣게 타기도 했다. 요즘은 추위로 곱은 손을 불어가며 촬영한다. 서운암 촬영 때는 바람 때문에 두 세시간씩 바람이 자기를 기다려 촬영했고 월정사에서는 몰려드는 벌떼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움이 많지만 야외촬영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겠다는 것이 스님과 제작진의 생각이다. 단순한 스튜디오 촬영으로는 사찰문화와 음식이 만들어진 배경, 그 이면에 깃들어 있는 불교 정신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인터넷TV의 임동민 대표는 "사찰음식은 단순하게 건강 보신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까지도 바꾸는 가능성을 가진 수행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공공채널에서 정기적으로 사찰을 보여주고 스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것이 힘든데 사찰음식을 매개로 일반인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사찰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스님과 제작진이 한목소리로 내는 의견이다. 스님과 제작팀은 단순하게 사찰문화소개와 요리법 소개가 아닌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복원하고 요리비법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으로 한층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푸드채널에서 '풍경이 있는 요리'가 시작된지 한달 남짓. 시청자들의 호응으로 13주 계약으로 시작했던 작업이 늘어나 계속 시청자들을 찾아갈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정석·유정씨,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16일 하오 한글회관서 시상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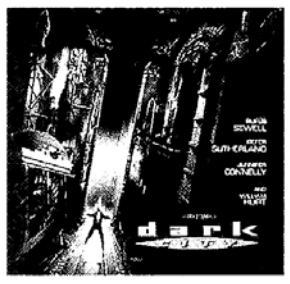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는 이정석(48·전남 해남군 송지중학교 교사·사진 왼쪽)씨와 유정(58·한국동요보급회장)씨를 '제20회 한국불교아동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정석씨는 '암자로 놀러 온 새' 외 12편, 유정씨는 '내가 좋아하는 건' 외 8편이 각각 수상작품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4시 한글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21회 전국어린이 글짓기 작품 공모 입상자 131명과 제6회 불교청소년자원봉사 대상 수상자 시상식도 함께 갖는다.

김두식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 다크시티



밤 12시가 되면 거대한 도시는 한 순간 정지되고,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수면 상태로 빠져든다. 초고층 빌딩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엇갈리는 순간, 방금 전까지 잠에 빠졌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인다. 이 찰나의 순간, 이방인들은 인간의 기억을 빼돌린다.

1998년 개봉된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다크시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대한 물음이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니는 기억들, 그 속에서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조작에 불과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마저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영화는 결말을 향해 치닫는다.

부처님께서는 〈전유경〉에서 이 거짓의 기억들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가 영원하다거나 무상하다는 소견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영원하든 무상하든 사람에게 생노병사와 근심걱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찾는 것이야 말로 수행인 동시에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음울한 세기말적 스타일로 SF매니아들을 사로잡은 '다크시티'가 결말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독특하다. 과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방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 머독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

강지연 기자

담배를 끊읍시다

흡연과 신장기능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기능이 나빠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남성 신장기능 3배 손상

혈압·혈당 높을수록 두드러져

호주 플레이턴에 위치한 모나시 대학의 이서 브리칸디 박사가 25세 이상 남녀 1만1천247명을 대상으로 흡연습관과 신장 건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의학전문지 '신장질환 저널' 10월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브리간티 박사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남자는 신장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인 뇨단백 수치가 높고 담배를 피운 기간이 길수록 신장 손상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흡연과 신장손상 사이에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라미타 청소년 세미나 개최

불자 청소년 개신교보다 상담수 적어

파라미타는 2일 명성여고 시청각실에서 '나를 찾아서(불교 상담을 통한 청소년 인성계발 방안모색)'을 주제로 11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성여중 김재욱 수학교사가 '불교상담의 정의와 방법(경전으로 보는 청소년기)', 명성여중 이병철 사회교사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동대부고 엄정식 수학교사가 '청소년 문제 불교상담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동대부고 엄정식 교사는 이날 발표에서 10월 한달간 서울지역 5개 중·고교 청소년 10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신교 청소년들의 48.9%가 목사를 찾아 상담을 하지만 불자 청소년의 경우 86.2%가 스님과 상담을 한 적이 없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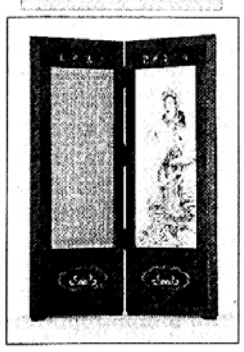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지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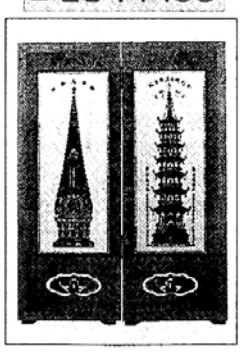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 음 병 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산허리에 탑을 쌓듯 전각을 앉힌 파계사. 알맞은 공간 활용으로 안정감과 상등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

◇파계사의 금당인 원통전 어간 문 아래의 꽃은양. 소박함과 화려함을 함께 담을 줄 아는 비범한 명법을 느낄 수 있다.



앙상한 모습 드러내니 가을 바람만 가득하지

건물마다 독립성 지니면서도 일체감

현응스님-영조임금 '주고받기'로 상생

여느 사찰과 달리 파계사(把溪寺)는 그 이름의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계곡(溪)을 잡는다(把)'는 뜻일 텐데, 그래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력인즉, 파계사의 좌우에는 9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것들은 9마리의 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9마리 용이 한꺼번에 나와 세상을 어지럽힐까 봐 그것을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터의 기운이 세면 센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살려서 쓸 줄 아는 절터 잡기의 지혜입니다.

파계사의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진동루(鎭洞樓)를 거쳐야 합니다. 우뚝 선 신장처럼 위엄 넘치는 모습인데, 이 누각의 이름 또한 '골짜기의 지기를 누른다(鎭洞)'는 뜻이니, 기가 세긴 센 곳인 모양입니다. 딸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보태면, 가야산의 호랑이로 불린 성철 스님도 1960년대에 파계사의 산내 암자인 '성전암'에서 외부와 인연을 끊고 득력하였다 합니다.

진동루를 돌아오르면 좌우로 설선당과 적묵당을 두고 원통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파계사의 금당인 원통전 곁으로는 기영각, 산령각, 응향각이 둘러싸듯 앉아 있습니다. 더 뒤로는 담장을 8나 두르고 꽁숭 키를 높인 미타전이 웅창한 수림을 뱃삼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상승감을 잃지 않고,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일체감을 얻는 가람 배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사찰 건축의 미학입니다.

파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1936년에 세워진 사적비를 근거로 신라 애장왕 5년(804)에 심지(心地) 왕사가 창건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흥미진진한 지난 날을 말해 주는 얘기는 중창조인 현응(玄應) 스님과 숙종 그리고 영조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적기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유년(1693) 시월 초닷새 밤에 숙종은 한 스님이 대궐로 들어오다 자취를 감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상서로운 빛이 대궐을 비추자 그 빛이 솟아나는 곳을 찾으니 영원 스님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숙종이 스님에게 원자(元子)를 얻을 수 있도록 백일 기도를 부탁하여 한 생명이 태어났고, 스님에게 현응(玄應)이라는 호를 내리고 내탕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보다 좀더 구체적인데, 그때 농산(聾山) 스님과 함께 기도를 올렸고 그 스님이 환생하여 숙종의 원자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어쨌거나 그 아이가 훗날 영조가 됩니다.

설화적 성격이 짙은 이러한 얘기는 상당 부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임이 1979년에 원통전의 관음봉상(보물 992호) 복장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영조가 원당으로 삼는다는 발원문과 친히 입었던 어의(御衣)가 관음보살상의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숙종과 영조의 재위시는 불교 탄압이 극심했고 치열한 당파 싸움이 벌어지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현응 스님과 영조는 절묘한 '주고받기'를 시도합니다. 스님은 영조의 어의를 모심으로써 유생들의 힘포를 막고(절 앞의 '하마비'가 그것을 증명한다) 영조는 상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다 알다시피 영조는 강력한 탕평책을 구사함으로써 빛나는 업적을 남긴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83살이나 살며 가장 긴 재위 기간(42년)을 누렸습니다.

봄리한 지형을 슬기롭게 쓸 줄 아는 안목과 정치적 탄압을 절묘한 춘수로 극복한 파계사의 지난 역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내력을 알고 보니 원통전의 관음보살님은 그저 금물 입고 앉은 나무 조각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조형적으로도 현대의 불모들이 즐겨 모작할 정도로 빼어났습니다. 가시는 걸음이 있으시면 꼭 눈맞춤 하십시오.

사람은 두터운 옷을 껴입고, 나무는 옷을 벗는 계절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절에 가면

팔공산 파계사



팔공산의 얼굴 고송스님

"날 보지말고 자네 데리고 온 놈을 봐"

"어디서들 오셨나. 이 늙은 몸뚱아리 뵈서 뭘 하려고 날 보지 말고 이곳까지 자네를 데리고 온 놈을 봐."

세수 아흔 일곱, 조계종 원로 스님 중 최고령이신 고송(古松) 스님.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파계사에서 우람한 한 그루 소나무를 만났다.

잃어버린 가을을 찾습니다.'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채 물들지 않은 나뭇잎들도 이른 추위에 놀라 아직 푸른 몸통이를 황급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형편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라 등딱같이 두꺼운 옷으로 몸 숨기기 바쁩니다.

자연이 어찌 시속을 따르겠습니까만, 중간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만 치닫는 세간의 모습을 닮는 것 같아 씁쓰레합니다. 내뱉고 나니 망발이 돼 버렸습니다. 인간사의 뒤틀림을 자연에 빗댈 수는 없겠지요. 옛 어른의 말씀을 회초리 삼아 봅니다.

한 스님이 운문(雲門, 864~949)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앙상한 모습 드러내니 가을 바람만 가득하지(體露金風)"

'체로금풍(體露金風)!' 가을 바람에 잎 떨군 나무의 적나라한 몸통.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이름입니다.

가을걷이 끝난 들판을 느긋하게 밀어내며 파계사로 향합니다. 팔공산 서쪽 자락을 헤치니 곧장 파계사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신상품

稀 희담석 潭石

"스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간직한 생명의 돌 – 희담석"

희담석의 유익한 생체 에너지 파장에 의한 세포 활성화 능력을 갖춘 희담석 돌침대 및 돌보료가 출시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원기가 회복되고 지병이 호전되었다는 놀라운 체험 사례가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1인용 고급형 보료 4,000,000원
1인용 보급형 보료 2,800,000원

* 스님을 돌보료 및 다양한 디자인의 희담석 돌침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희담석 돌침대 체험사례〉

두 아이의 엄마인데, 체중이 37kg에 불과하며 매일 아침 죽으로 연명하는 처지로서 지난 3년간 설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희담석 돌보료)에서 수면을 취한 후부터 덩어리 변을 보기 시작했고, 희담석 돌보료에서 자고 난 다음날은 눈에 띄게 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문순 (여/36세, 노원구 상계동)

직업상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심한 어깨 통증을 느끼곤 했으며, 그럴 때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데 (희담석 돌침대)에서 생활한 후 이상하게도 어깨는 이피도 일을 계속할래는 별 지장이 없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은 아주 힘들게 일을 했을 때다소 통증을 느끼지만 (희담석 돌침대)에서 자고 난 다음날은 늘 거뜬하다. 김봉수 (남/55세, 송파구 마천동)

산후통으로 인해 남씨가 굳기만 하면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렸었다. 좋다는 한약도 많이 먹었으나 억을 때 그때뿐 다시금 아렸는데 (희담석 돌침대)에서 자고부터는 통증이 사라졌다. 박연숙 (여/41세, 서초구 서초동)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열꽃이 솟고 팔꿈치 팟부분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던 지병때문에 지난 10년간 좋다는 원적외선 치료기, 각종 매트 등을 사용해 봤으나 일시적인 효과뿐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희담석 돌침대)를 알게 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온 몸이 푸근하고 편안했다. 보름 정도 지고 나니 10년 동안 느껴오던 그러한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사용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 통증을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용섭 (여/66세, 강북구 미아동)

제품문의(마하몰)
(02)732-1520

"보살님!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돌, 희담석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스님 등 공부하시는 분들께 최상의 조건은 순간의 집중력과 그것을 얼마나 장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느냐 입니다. 희담 방석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파장으로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몸을 편안하게 이끌고 순간순간 회복력을 높여 주어 장시간의 공부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의 체험 사례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담석 방석 체험사례〉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반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 (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나는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운전석 시트에 〈희담석 방석〉을 깔고부터는 장거리 운전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방석으로 사용한 것인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희담석의 효능은 참으로 탁월한 것 같다. 현정 스님(경남, 금보사)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인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경안 스님(전남, 덕흥사)



과음을 한 날 밤, 배에 〈희담 방석〉을 올려 놓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 과음한 다음날 허리 위 등짝이 시큰거리기에 30분 정도 〈희담 지키미〉를 벨트에 끼워 환부에 대고 고정시켰더니 시큰거리고 뻐근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이명수 (남/35세, 서울 원서동)

* 권장소비자가격 (198,000원
* 색상: 연한카키색, 살구색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